

MAXIM

KOREA



남량 특집 3부작 제2탄

사람을 벌레 놀려 죽이듯 살해한
사상 최악의 잔혹 살인마들이 말하는
살인의 진짜 동기 10가지

STYLE

플장에선 수영복보다 방수시계가 중요하다
섹스를 부르는 스트라이프
몸 좋아 보이게 입는 법

SEXUAL TENSION 2

살과 살이 맞닿는 지점을 넓혀라

SEX GUIDE FOR GIRLS

여친 있는 남자들이 알려주는
여친 있는 남자 뺏는 스킬

에이지 오브 스톰 서유리

2013년 가장 핫한 여성은 걸그룹도, 배우도 아니다.
SNL, MC, 심지어 MAXIM 표지까지 접수한 미녀 성우 서유리.
그녀 때문에 밥그릇 좁아진 전업 연예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남성 선호도 톱에게만 주어진다
대작 게임의 메인 모델로 그녀가 발탁됐다.
2013년 8월 최대의 기대작 AOS 게임
<에이지 오브 스톰>으로 폭풍을 일으킬
서유리의 게임 코스튬을 MAXIM에서 준비했다.

NAUGHTY MARINE PARTY
주지육림, MAXIM의 섹시 마린 파티 대공개
놓쳤다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

MAXIM'S SUMMER NIGHT
BIKINI PARTY
@ CARIBBEAN BAY 08. 10. SAT

5 VACANCE SPECIAL EASY WAYS TO UNDRESS HER

- 바닷가 헌팅, 선수는 넘어올 여자를 알아본다
- KISS의 보컬 폴 스탠리가 알려주는 록페에서 끝장나게 노는 법
- 여차피 놀러가면 고기는 먹어. 여자들이 뺨가게 고기 굽는 법
- 카사노바의 반칙 아이템 페로몬 향수. 과연 그 효과는?
- 킬러의 칵테일 제조법. 최음제가 따로 없어



2013년 8월호
정가 5,900원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Caribbean Bay

2013

SUMMER Night

OCTAGON

DJ KOO / LIP2SHOT / LEE HA NEUL / SDM(SHUT DA MOUTH) / TENASHAR / ROXY JUNE / ARIKAMA
BEEJAY / G-TECH / YANN / PETER HOLMAN / PASCAL DIOL / HAUS-K / KINDERGARTEN / ROXY

And More

★ The

MAXIM



CARIBBEAN BAY
SUMMER NIGHT WITH CLUB OCTAGON

2013.08.10.SAT

Party

With JKcorporation



07.20 ~ 08.17

일~목 (18:00 ~ 22:00) / 금,토 (18:00 ~ 23:00)

입장료 (목~토) 15,000원 / (일~수) 10,000원
I 삼성카드 50% 할인 I One Free Drink



ID CHECKED, NO MINORS ALLOWED. 만 19세 이상 신분증을 지참한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Contents

AUGUST / 2013

98 서유리

성우 출신으로 연기자, MC, 광고 모델까지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서유리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다. 인형 같은 외모의 성우라니! 지금 그녀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며 남성들의 몸과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서유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BY 김태성 PHOTOGRAPH YUD

신의대륙

FORSAKEN
WORLD



편하게 즐기는 그랜드 판타지 신의대륙

뱀파이어족 - 블러드서커

정통 판타지 MMORPG의 스케일을 말하다

5개의 종족과 8개의 클래스
수 백가지의 탈것과 펫 시스템
백 여개의 스킬을 사용하는 화끈한 전투 시스템
당신이 상상하는 판타지 MMORPG의 스케일을 신의대륙에서 만나다

스케일이 다른
Full Version
게임소개영상
보러가기



Diana
B36 W24 H35

신의대륙

FORSAKEN
WORLD



편하게 즐기는 그랜드 판타지 신의대륙

엘프족 - 바드

정통 판타지 MMORPG의 편의성을 말하다

역대 최고 성능의 자동전투 시스템
게임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백과사전
레벨업 할 때마다 시스템이 나눠주는 캐쉬 아이템
당신에게 딱 맞는 MMORPG의 편의성을 신의대륙에서 만나다

더욱 HOT한
그녀들을 원한다면!
시크릿 갤러리
보러가기



Nadia
#36 W25 #37

Contents



94 장기하

학벌, 외모, 키, 재능, 언변...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화개장터
같은 뮤지션 장기하. 그와 MAXIM
이 나눈 이야기는 우주 삼리만상을
다 담은 듯 심오했다. (빅뱅 팬과의
격돌! 다이어트 비결! '여자 연예인
킬러'라는 소문에 대한 진실!
수염과 안경의 행방!)

Circus Maximus

- 20 진짜 사람 머리로 만든 기념품
- 22 MAXIM AWARD:
이 달의 가장 X된 사람
- 24 아동 모자이크 넣는 알바는 얼마 받게?
- 26 8.15 광복절 기념! 최첨단 기어로
애국지사 업그레이드 하기
- 28 여친에게 끌어주면 망하는 라면 4종
- 30 바닷가 헌팅을 성공으로 이끄는
'쉬운 여자 체크리스트'
- 32 굼시니스트 카툰: 팜파탈 유디트

How To

- 34 MISS MAXIM 단영과 상미가
알려주는 손님 잘 대접하는 법
- 36 복날 대비! 닭, 장어, 자라 잡는 법
- 38 록그룹 키스 보컬이 알려주는
뮤직페스티벌 끝장나게 즐기는 법
- 40 종이접기로 육봉 만드는 법
- 42 잘나가는 고깃집 사장이 알려주는
삼겹살 겁나 맛있게 굽는 법

Miss Maxim

- 44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펙트한 16강
마지막 도전자의 이슬이슬 오피스룩

Comment

- 48 다이내믹 듀오의 어정관리송
- 50 최강 춤비 공략집 (춤비 서바이벌 가이드)
- 52 명작들의 골수를 짚쪽 빨아
역기스만 함유한 역사 민화 <킹덤>
- 54 <감시자들>의 한효주

From MAXIM India

- 55 미드 <24> 대통령 딸 파격 라제리 화보

SEX

- 60 여자 에디터가 말한다! 섹슈얼 텐션
심화편, '그의 살이 내 살에 닿았을 때'
- 64 남자 에디터가 말한다!
'남의 남자 뺏는 법' (제발 나 좀 뺏어가 줘)

Game

- 66 있는대로 다 퍼주는
온라인 게임 <신의 대륙>
- 68 꿈도 희망도 없는 게임 속 미래상

Independent Day

- 69 다섯 명의 미국 미녀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성조기만 걸치고 찍은 화보 투척

Stuff

- 76 이달의 기어: 에이스 아스파이어 P3
- 78 MAXIM이 지른 물건:
페로몬 향수, 티쏘 시계, LG 마하젯 프린터,
그리고 무선 마우스 두 개



38



162



Swiss made ✦
 Super luminova ✦
 Anti-Allergy case ✦
 Quattro multi chronograph ✦
 200 meter water resistant ✦
 Sapphire crystal with Anti-reflective coating ✦

200M
 WATER RESISTANT

OPACO
 Tuffatore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작 영 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91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46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860-3126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와 와 치(강남점) 02)537-8977
- *워 치 록(노원점) 070)436-5090
- *샤 룬(안양점) 031)463-8788
- *타 일 런(인천점) 070)7516-4545
- *타일터치(대전점) 042)482-2328
- *엘 가(대구점) 053)255-6940
- *인터록(양산점) 055)911-7111
- *중로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롯데백화점(충동점) 032)320-7559
-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 *신세계백화점(익정부) 031)8082-0344
- *NC백화점(불광점) 02)350-8979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이타일월드(신촌점) 02)313-4108
- *TM시계백화점(신도림) 02)2111-1120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메가와치(충주점) 043)857-9125
- *삼 성 사(대구점) 053)422-3002
- *타 일 불(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본 점) 02)772-3908
- *롯데백화점(광역점) 02)842-7706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087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 *해피타임(울산점) 02)2012-0625
- *타일타임(신도림) 02)2111-1171
- *타 타 임(안산점) 031)413-7656
- *보로스워치(청주점) 043)235-1510
- *골드케니언(광주점) 062)714-1121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엘 가(부산점) 070)7569-5766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22
- *롯데백화점(김포점) 02)6116-3176
- *롯데백화점(광주점) 062)221-1573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1678-4181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NC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중야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패 션 존(동대문) 02)3398-7527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뉴코아윌렛(부천점) 032)624-8337
- *타일 21(청주점) 043)224-8851
- *골 드 록(광주점) 062)410-0137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81
- *티 파 니(제주점) 064)722-3623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 *롯데백화점(문당점) 031)738-2140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256-3191
- *롯데백화점(생림점) 051)730-3198
- *신세계백화점(생림점) 051)745-2297
- *NC 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e-watch(명동점) 02)771-7033
- *타일갤러리(동대문) 02)3398-5528
- *타일 21(광진점) 02)3424-0793
- *독 독(부천점) 032)662-2026
- *복 와 치(청주점) 043)223-1333
- *친 보 석(순천점) 061)725-3849
- *타일피어(포항점) 054)253-8855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164-6191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5
-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92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디큐브시티(신도림) 02)2211-0149
- *정우상사(종로점) 02)2272-2688
- *타일머신(종로점) 02)6388-2927
- *타일 24(일산점) 031)931-5555
- *행 기 톱(부천점) 032)662-0686
- *제이블랙선(천안점) 041)564-5465
- *엘 가(구미점) 054)451-6940
- *초 이 필(포항점) 054)613-1170

Contents



114

82 퇴계 이항 선생을 차승원으로 만들어 줄 환상의 면도 용품들

Sports

86 고성용 SNS 파문 총정리
88 가을 야구 전에 배우재 야구 용어

Smoke&Drink

90 칵테일로 여심 공략하기
92 이달의 맥주: 페루 흑맥주
쿠스케나 몰타

Horror Special 10

107 남량특집 2탄: 살인의 10가지 이유

Miss Maxim Round 8

114 MISS MAXIM 8강 진출자과의 마린 비키니 파티. 그녀들이 입을 비키니는?

Motor

124 THIS IS MY CAR #3
독자의 K3가 맛 본 미묘한 호강
128 미니 트랙데이에서 JCW님을 알현코저 암수 에디터 한 쌍을 바치오니...
131 폭스바겐 7세대 골프 시승기
132 새로운 연비 제왕 푸조 208을 누리 위한 에디터의 히치하이킹

Style

137 몸 좋아 보이는 스트라이프 플로 셔츠
138 간지 터지는 방수 시계

Fight

142 강한 남자 #2 로드FC 챔피언 이길우
144 격투의 신 앤더슨 실바의 KO패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Summer Deserts

148 여친 감동 프로젝트 상남자도 1분이면 따라하는 초간단 디저트 레시피

Military

154 특수작전 차량의 세계

Music

158 청재킷에 두경 열리는 선글라스! 이것이 진짜 복고 간재! 가수 '기린!'

Party

162 MAXIM SEXY MARINE PARTY: 럭셔리 마리나 리조트에서 열린 MAXIM PARTY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섹시 비키니 미녀들
166 DJ 릴레이 #4:DJ ARIKAMA
168 Govenors Ball Music Festival
170 끝나지 않은 밀러의 여정!
Miller Music Tour in Seoul



82



148



50



124

SHAK KING



이렇게 **맛있게** **쉬이** **충전시켜주다니**
이름이 무서워요?



프로틴 충전음료
쉐이킹



LAYERED UP&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료타임 www.eurotime.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하이힐 (02-2136-9743)

[판 세 점] 제주중문세점 (064-780-7671)

[판 매 처] 뉴이백화점 인천 (031-8085-1709) / 울산 (052-210-4010) / 아람 (031-701-6841)
2001아울렛 분당 (031-786-1808)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이마트 지양 (02-455-6841) / 프랑 (054-278-6848)

MAXIM

www.maximkorea.net

편집장 이영비

Editorial / 편집부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 팀장
조종재 주임
김세형 인턴
김소윤 인턴
영상 에디터 김상수 인턴

편집 2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
박정욱 인턴
이효선 인턴

편집 3팀

디자이너 서윤정 주임/ 팀장
최송아 인턴
일러스트레이터 장재혁 인턴

편집 4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에디터 김진욱
뷰티 에디터 장혜민

객원 에디터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엑스포츠> 기자 김덕중
<엑스포츠>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대영
리뷰 리뷰어 '누들러' 김광희
리뷰 리뷰어 '누들러' 박종현
카툰 작가 급시니스트
칼럼니스트 덕사마
변호사 Devil's Advocate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팀

재무 회계 최인영 대리/ 팀장
인사 장선영 주임
유통 안재민 인턴
비서 정석영 인턴

Marketing / 마케팅팀

광고마케팅 김진욱 팀장
정재식 인턴

Web & Mobile Service / 웹 모바일

토렌 서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Photography / 사진 교열 신선경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이용관 대표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MAXIM Korea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 원혜진

MAXIM Contact

독자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단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광고 문의, 사업 제휴 partner@maximkorea.net
TEL. 070-4010-8994
정기 구독, 대량 구매 joy@maximkorea.net
TEL. 02-323-1182
취재, 화보, 협찬, 편집부 press@maximkorea.net
영화사,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주)알파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8월호 통권 제40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PRESIDENT: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USTRALIA
Santi Pintado

CZECH REPUBLIC
Jan Stepanek

ITALY
Paolo Gelmi

SOUTH KOREA
Young-Bee Lee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GERMANY
Boris Etter

GERMANY
Boris Etter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BULGARIA
Hristo Zapryanov

INDIA
Vivek Pareek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urawong Kraeafan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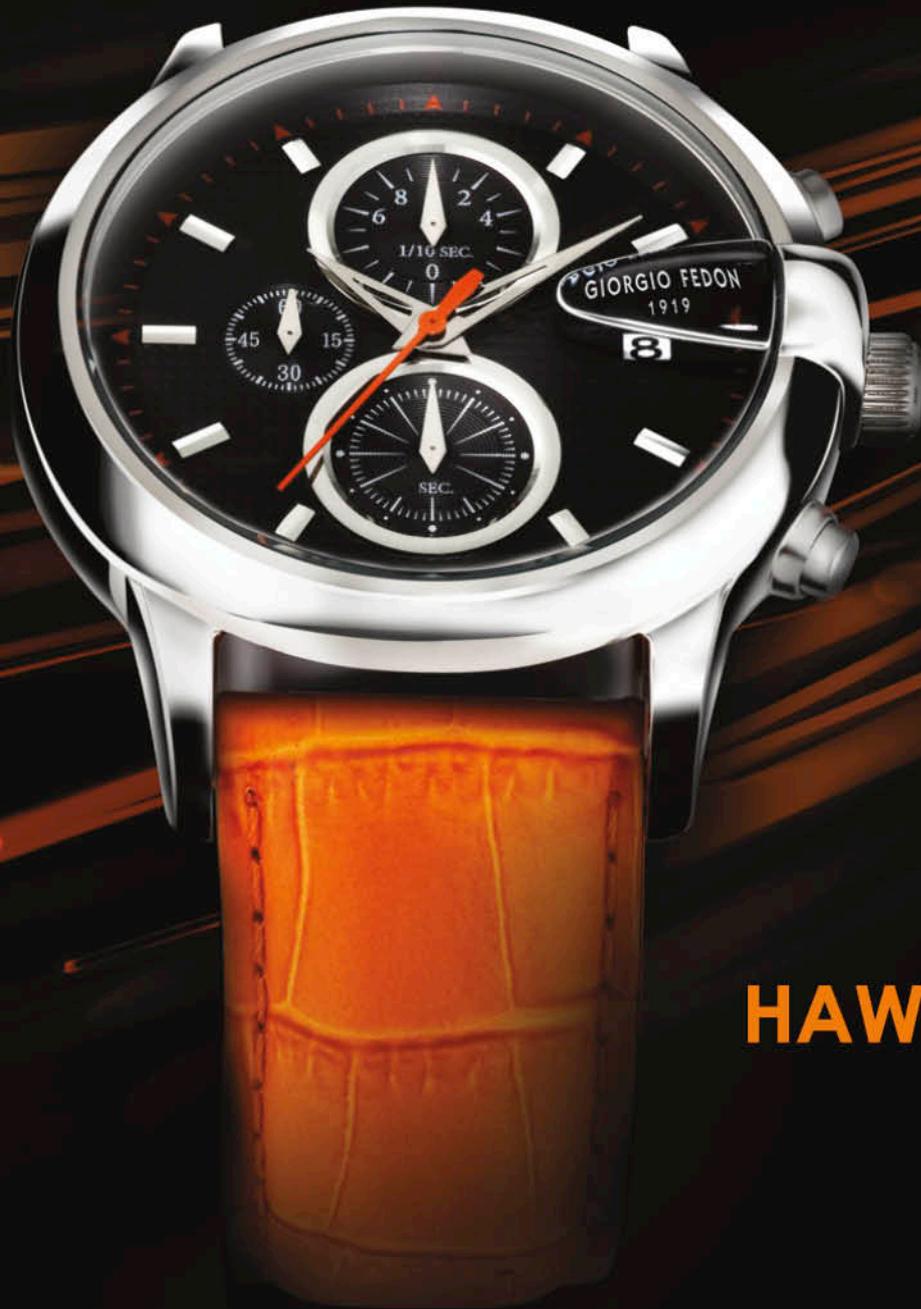
SERBIA
Dragan Otašević

UKRAINE
Sasha Malenkov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mworldwide@maxim.com

GIORGIO FEDON
1919



HAWK EYE

조르지오 페돈 | (주)가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giorgiofedon.co.kr | 02.3397.7100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하이힐 (02-2136-9743)
[판매처]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908) / 잠실 (02-2143-1909) / 부산사면 (051-810-4087)



Letter From MAXIM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요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에디터의 척추는 마감이 압박할수록 점점 굽는다. 그런 병자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사내에 비치할 300만 원짜리 포장도 안 뜯은 싸랭이 안마 의자가 있었는데, 그걸 독자 이벤트 상품으로 걸어버렸다(지난 6월호 '최강 MAXIM 독자 찾기 프로젝트'). 더불어 공서영의 4개 구단별 리미티드 에디션 표지를 다 모은 독자에게도 방송 캠퍼를 쓰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맛있는 거 먹다가도 생각나고, 좋은 거 생기면 뭐든 퍼드리고픈 우리 마음 아시는가. 내내 비가 철철 쏟아지다가 7월 13일 MAXIM 파티하는 날만 살짝 멈추었다. 우린 제갈랑처럼 날씨도 바꾼다.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한 거다. 딴 사람들 여름 휴가 간다고 공동이 들썩일 때 우리 편집부는 서유리 씨 화보 찍는다고, 장기하 씨 인터뷰한다고, 할벗은 비키니 미녀 가득한 MAXIM 파티 취재한다고, 빗길에 자동차 시승 화보 찍는다고, 미스맥심 8강 화보 준비한다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고, '8.15 기념 독립 열사부터 '납량 특집 살인마'까지 8월에 맞는 트렌디한 것 (it) 아이템 짜낸다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부디 이번 8월호도 재미있게 읽어달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MAXIM이 다 줄테니까 절대로 딴 데 가서 기웃기웃 하지를 마.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MAXIM이 줄 수 있으니까 자다가도 딴 생각은 마! 왜냐하면 독자 여러분이랑 저희랑은(예-) 말하자면은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그런 사이니까!

그나저나 더운 장마철에 하도 뛰어다녔더니 발에서 냄새 나는 것 같다. 어디서 발냄새 제거제 협찬 안 해주나?

2013년 8월 편집장

이영희

EXTREME MAXIM READER CHALLENGE!

우승작 발표!

지난 6월호에 극한 상황에서도 곳곳이 MAXIM을 읽는 사진을 찍어 보내면 1등 상품 300만 원 상당의 파나소닉 안마 의자를 포함, 정기구독권, MAXIM 티셔츠, 모델들이 입었던 코스프레 의상 등을 투척하겠다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페이스북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 응모한 극강 독자 중 대망의 1등과 당첨작을 소개한다! 응모하신 모든 독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마 의자 두 번 받다간 반신불수 되겠다.

김윤혁 독자의 익스트림 활약상:

모기용 BMX 타고 계단 내려오며 맥심 보기

축하한다! 감사하다! 이 많은 사진을 찍는 동안 주변에서 얼마나 당신을 걱정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게다가 "어머니에게 안마 의자 드리려고 피땀 흘려 찍었다"고 하니 안 줄 수가 없잖아. 크흑, 물론 어머니는 당신이 이 사진을 찍는 동안 허를 끝끝 차렸겠지만 말이다.

No.1 Extreme Reader!

어머니께 이거 드리려고 한 달 동안 예술혼 불사른 김윤혁 독자

본 이미지는 실제 수령 상품과 다를 수 있다(색깔이 달라움).



저기요 근데 이걸 뭐가 익스트림? 아... 혹시 당신 외모를 보란 말이었나?



벤츠 C63 장비 중 서비스센터에서 정독

맥심 보며 디제잉



47kg 균용 균장 배고 황령산 정복하면서 맥심 보기

수중에서 맥심 정독 (우리 서영이, 현신이 통통 불었겠네!)



U Crazy Reader!

MAXIM 앞에서 기념 사진 찍은 최은용 독자

"주말을 이용해 맥심을 털러 했으나 문이 닫혀 발걸음을 돌렸다는 이 분, 공개 수배합니다. 저희에게 팔란대장경보다 소중한 배달 음식점 전단지엔 손을 대셨어요. 여서 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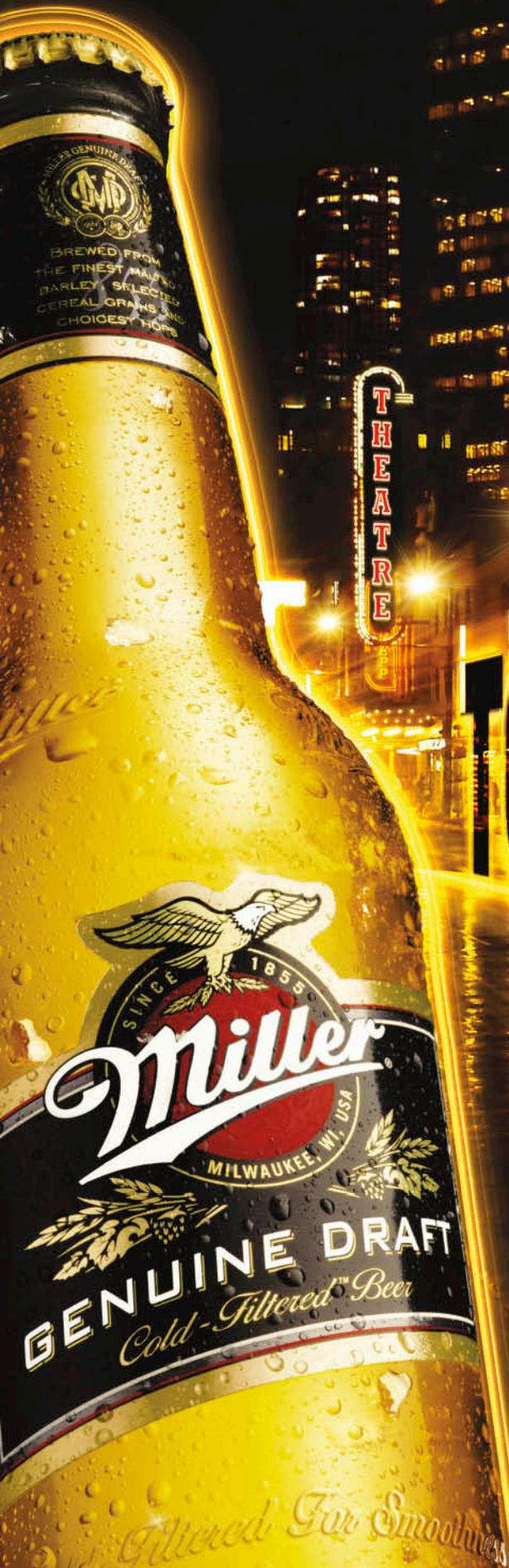


Extreme Reader!

11m 외줄 꼭대기에서 MAXIM을 읽은 황경주 독자

"코스프레 의상도 좀 땡긴다"는 의견을 폐북에 밝히며 공중 곡예를 한 황경주 독자에게 소원대로 모델이 입었던 코스프레 의상 보내주다!

살이막든 활이든 당신 맘대로 해라. 선물은 높이 11m 위에 올려두면 알아서 가져가겠지?



IT'S Miller TIME.



www.talkingalcohol.com 경고: 자선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Letters

뺨속까지 스며드는 더위를 날려버릴
에디터들의 시원한 답변 릴레이!



무서워서 잠을 못자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지난달 류현진 보고 고민없이 MAXIM을 질렀습니다. 마침 안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더군요. 기사는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열대야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방 안에 벌거벗은 남자가 이상한 춤을 추는 비디오를 보고 여자 후배가 "저기 제 방이에요"하는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책임지세요. 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이은성, 이메일 사연>



편집장 → 조운재 에디터가 페를 끼쳤네요. 사죄의 의미로 조운재 에디터를 댁에 보내드릴게요. 공포증 행동치료 기법 중,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자극에 반복 노출 또는 한번에 매우 강한 자극에 노출시켜 공포 반응을 없애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 남자처럼 방 가운데서 두어 시간 벗고 춤을 추게 하면 그 이야기의 공포 따윈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겁니다.(교환, A/S는 안 됩니다)

금연은 어려워

흡연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숨이 떨리네요. 막상 끊자니 그동안 피워 온 게 아깝기도 하고 엔지니어라는 바쁜 직업상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기도 해서요. 주변에도 흡연자들 투성이라 끊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혹시 MAXIM에 금연 성공하신 분이 계시면 노하우 좀 알려 주세요. 한 대 피워야겠네요. 아오! <ITON,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운재 → MAXIM에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라... 탈레반에서 집사님 찾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 저희 SMOKE 섹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기약 없는 금연의 희망을 갖고 만년 골초 인생의 쳇바퀴를 돌고 또 돌겠죠. 아직 5년밖에 안 되셨으니 폐가 아직 황토방 벽마냥 텅텅타진 않을 겁니다. 아직 숨도 쉬고 있잖아요. 금연은 담뱃값이 두 배로 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생각이 너무 빨라

연초부터 MAXIM에 꽃혀 미국에서 MAXIM KOREA 어를을 정기구독중인 86년생 남성이고, 최근 소개팅이 잘 풀려 어여쁜 93년생 여친을 만나는 중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진도도 빠르고 이래저래 욕심이 나오. 심지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친은 어리고 집안도 뽕뽕하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나니 답이 없소. 어찌하면 좋은 말이오? <영업맨, 모바일 사연>



에디터 유승민 →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어여쁜 93년생 여친과 진도 빠른 영상을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나 비슷한 경험에 비추어 답을 주겠다. 조건과 스펙상 대체 불가능한 남자가 되어라. 자신이 없다면 밤일에 집중하라. 밤 스킨은 사법고시 패스보다 막강하여 한번 그 맛을 알면 영국 왕실에 시집을 갔다가도 다시 기어 나오게 되어 있다. 아 참. 겨...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나?

이달의 애프터 서비스

이거 왜 안 통하죠



7월호 Sexual Tension 기사를 보니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세 가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연애할 마음이 없대요. 지금은 서로 친구지만 아직도 텐션 중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네요. 뭐죠 도대체?? <박은규, 모바일 사연>



에디터 김화성 → 당신과 그녀 사이에 정말로 '섹슈얼 텐션'이 존재한다면 만나면 만날수록 긴장감이 더욱 더 고조돼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정한 패턴의 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건 텐션이라기보다 습관인 것 같네요. 이번 달에는 지난 기사의 심화편으로 신체 접촉과 관련된 섹슈얼 텐션만 집중적으로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독자 조공

소다를 드리고 싶소대!



<피지벨칭>이라는 소다 음료 전문점에서 편집부에 <강남 스타>와 <평균 청포도>라는 아스트랄한 이름의 소다 음료 베이스를 보내주었습니다. 요즘 매장에서 MAXIM이 남녀 불문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부듯해하며 MAXIM 편집부는 소다를 목구멍에 청포도 들어보듯 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모 에디터는 날부러진 빈 병을 보고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 참 아주 시원했소대!"



여친이 너무 착해요

제 여친이 너무 구속이 심한 편이라 클럽이나 여자들이랑 술 마시는건 꿈도 못 꾸요. 그래서 일단 놓고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하려고 일부러 여친한테 화난척하고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근데 노는 중에도 여친이 계속 연락오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군요. 마음이 아파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웬지 짹짹하네요. 제가 나쁜놈인가요? <성수역,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 그런 여친이 안쓰러워 사고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독자님이 '아주' 나쁜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친분이 날개만 안 달렸지 정말 천사가 아닐까 싶네요. 아마 저한테 그랬으면 골장 났을 거예요. 신발에 입정 넣고, 휴대폰 배터리 훔쳐가고, 때리고 꼬집고 비틀고...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데헛!

열혈 곰신의 패기

남친과 사귄 지 509일
째입니다! 어느덧
MAXIM을 같이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군인이 된 남친을 위해
MAXIM을 매달 사다 보니
저도 어느덧 열혈 독자가... 아, 이래도 되는 건가?
유격훈련 간 남친도, 기다리는 저도 응원해주세요!
짱짱아, 나 짱이지? 사랑해! 여성 독자분들도 숨지
마세요! 우린 당당하니까!! <김민경,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웅재 → 군대에 있을 때 빈자리를
채워 줄 여자 친구가 있다는 건 굉장히 힘이
되는 일이지요. 저도 힘든 의경 시절에 경찰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저 여자가 내
여자였어야 해'라며 한탄하곤 했는데, 민경님의
남친은 복이 터졌네요. MAXIM을 꾸준히 구독하고
계시다 마치 없는 제 여친이 정기구독자인 것 마냥
기쁩니다. 이 사연을 계기로 MAXIM의 많은 잠재
여성 독자들이 오락실 게임기의 두더지들마냥
"저기요! 여기예요!" 하며 모습을 뽕뽕 드러냈으면
좋겠네요.

여자 친구가 중2병

현재 여친과 사귄 지 약
3주 정도가 됐습니다.
청순하게 생긴데다
몸매도 좋은데 생각보다
몇 마디에 쉽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녀의 트위터를 팔로잉해보니 이상한 글이 엄청
뜨더라구요. 달빛이 어찌구, 파란 피가 어찌구, 죽음이
어찌구 등등 오글거리는 글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만나면 안 그러는데, 자꾸 트위터 글이 생각나서
신경이 쓰이네요. 어떡하죠? <0819, 이메일 사연>

인간 주제에



에디터 조웅재 → 이틀 속에서 540도
돌려차기를 시전한 뒤 아따따무겐을 한다는
그 중2병에 걸리셨군요. 괜찮습니다. 겪어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순수하고 특이한 자기 세계를 갖고
있어서 한눈도 잘 안 팔지요. 그런 그녀의 남친이
되셨다는 건 비 제대하는 날 김태희 꼬시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사귀세요. 예쁘다면서요. 100일 선물로
헬스라도 써서 보내 주면 무척 좋아하겠네요.

독자 사연 응모

응모 방법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요령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찍으면
시답잖은 짤방 아래에 '닷글' 버튼이 보일
거다.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적어 놓은 사연과 함께 우측 상단에 '닷글
작성' 버튼이 뜬다. 버튼을 누른 뒤 보이는
빈칸은 반드시 꼼꼼히 입력하자. 휴대폰
번호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으니 걱정
말고 만약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려면
선물을 받을 주소와 분명, 연락처를 꼭
기입하도록, 선물 배송이 빨라진다!

사연이 실리는 독자 전원 증정! 이달의 독자 선물



FOR MEN

엠도씨 안티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

고농도의 천연유래효모
발효추출수를 80%나 함유해
쭈글쭈글한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 주는 제품이다.
링클케어 제품은 여자만
사용하는게 아니라니깐!



FOR LADIES

MAXIM U-라운드 스판 티셔츠

당신의 여친을 클라라 못지 않은
섹시녀로 만들어 줄
MAXIM 라운드 스판
티셔츠! 여친에게
입히고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한 눈에
받아 보자!



Unstitched

Utilities 친환경 슈즈

탐스만 주구장창 신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은 개성을 발휘해 보자.
예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Dear. Readers

안경 플프랭크
구두 슈즈원

서유리 선생님의 육감적인 독자 고민 상담!

눈만 마주쳐도 고민이 사라질 것 같은
너무x100 예쁜 그녀의 조언!

Q. 5년을 사귀 그녀가 저를 떠났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이별이라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정신 못 차리고 청승떨고 있는 제게 위로든 육이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잠버거, 이메일 사연〉

A. 일단 몸을 바쁘게 만드세요. 취미 생활도 더 많이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친구들과도 만나고, 힘들면 맘껏 울고 다 토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후련해지면서 점차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Q. MAXIM을 즐겨 읽고 있는 여성 독자입니다. 처음엔 남친 때문에 읽게 됐는데 색시하고 예쁜 여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친이 보고 하악대는 걸 생각하니 질투가 나요! 저만 이렇까요?

〈리락쿠마, 이메일 사연〉

A. 저 역시 지금은 슬로지만, 만약 남친이 제가 보는 앞에서 다른 색시한 여자들을 보며 하악대면 기분이 좀 안 좋기는 하겠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보는 건 좋지만 나한테 안 듣키게 봐라. 응?"

Q. 사내 커플을 반 년째 하고 있는데 여자 친구가 부서 내에서 스캔들이 났더군요. 알고 보니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나 봅니다. 커밍아웃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Milli, 이메일 사연〉

A. 냉정하게 얘기해서 연인 사이에서 믿음이 깨지고 나면 둘 사이에 남은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겠다 싶으면 헤어지는 편이 낫겠네요. 잠깐은 힘들겠지만, 시간은 모든 걸 치유해 줄 테니까요.

The MAXIM Party

저녁 8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캐리비안 베이.
뭔가 아쉽다는 생각 만들었나?
MAXIM이 캐리비안 베이의 밤에
19금 파티를 연다.
비키니 차림의 MISS MAXIM들과
뒤섞인 채 MAXIM 에디터들과
노닥거리며 부비적대고 싶다면?
MAXIM 파티에서 강렬한 디제잉과
알코올에 몸을 맡길 것!
MODEL 공금하면 114페이지로

Caribbean Bay

2013

SUMMER Night

OCTAGON

PLACE: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2013.8.10.SAT OPEN 06:00 PM

ENTRANCE: ₩15,000 (1 FREE DRINK), 삼성카드 50% 할인
MORE INFO: www.maximkorea.net | [f](https://www.facebook.com/editors.maxim) editors.maxim
VIP RESERVATION: 010-4040-0865, 010-6429-7101 JK CORPORATION
NO MINOR ALLOWANCE (애들은 집에 가서 숙제해)
DRESS CODE: BIKINI & MARINE





Jägermeister

ICE
COLD
SHOT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임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WE NEVER FREEZE

www.facebook.com/jagermeister.Korea



새차처럼 쌩쌩하게

NEW Bullsoneshot

얼마 달리지도 않은 새 차에 생기고, 한참 잘 달리는 정든 차에 쌓여가는
엔진 때를 없애야 차의 성능은 더 좋아지니까!



주유구에
쉽게.





불스원샷의 Hi-Tech 기술력 | 독일 기술검사협회인증 획득

신제품
New Car
0~3만km

더욱 새로워진



새 차엔

엔진보호성분이 강화된
불스원샷 New 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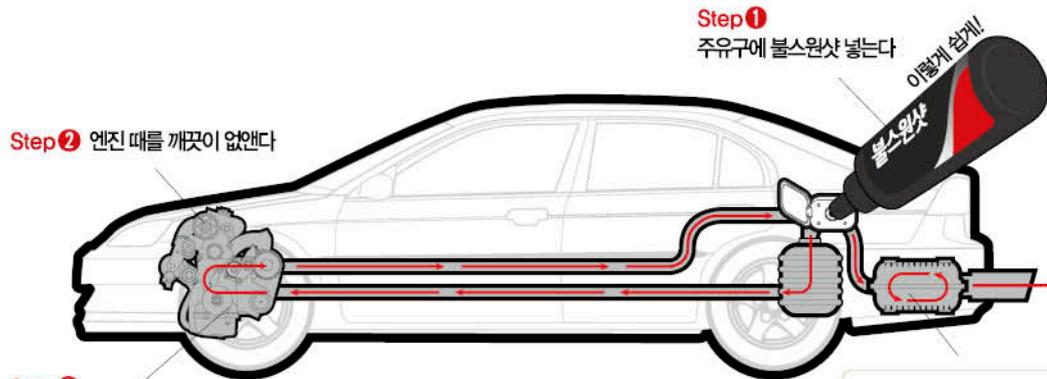
정든 차엔

Hi-Tech 세정기술로
더 강력해진 불스원샷



출력UP 연비UP 소음DOWN 배가스DOWN

| 불스원샷의 효과 |



Step 2 엔진 때를 깨끗이 없앤다

Step 3 엔진 성능이 새차처럼 쉐깁해진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녹색기술
불스원샷은 CO₂ 저감효과로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Dear. Readers

장기하의 '그렇고 그런 남녀 사이' 고민 해결소!

첫 번째 고민을 들은 그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걸 왜 저한테...?”

BY 장기하

아무것도 없잖어?

Q. 여자 친구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다른 누구랑 잡자리도 같이 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눈 감아 주고 사귄 필요가 있을까요?

〈대인배, 모바일 사연〉

A. 아무래도 나 같으면 헤어질 것 같다. 만약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정 때문이라도 도저히 못 그러겠으면 확실하게 용서를 하고 잘 넘어가라. 물론 자기가 얼마나 여자친구를 좋아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다.

Q. 클럽에서 봤던 그녀와 어떻게 하다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연락처를 주고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오네요. 난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인다클럽, 모바일 사연〉

A. 정중한 돌직구가 필요할 때다.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것보다는 말이다. 연락을 짐짓 안 받았을 때 여자가 눈치를 채고 일어서 포기하면 평화로운 이별을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직접 만나라. “우리 참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꿈곰이 생각을 해 본 결과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나 봐”라며 정중하게 사과하자.

Q. 살아오면서 여자로부터 가장 관리만 수도 없이 당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어장이네요. 지겹습니다. 이제 제가 어장을 만들고 싶어요!

〈상수상, 이메일 사연〉

A. 안달나는 사람이 지는 거다. 내가 초연하면 오히려 어장을 형성할 수도 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좀 초연해지면 일어서 어장이 형성된다. 그건 이성 관계뿐 아니라 공연 때도 마찬가지더라. 예전에 뒤편! 뒤편! 하면 다들 시큰둥하게 굴었는데 요즘은 초탈하니 반응이 확실히 다르다. 말 안 해도 일어서 뒤편이라고.

퇴마사

유리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으로
역귀를 물리치는 퇴마사!



열혈전장 AOS!

에이지오브스톰

8월 8일 GRAND OPEN

에이지오브스톰



우리 이런 데서 놀았어



저... 등 좀 밀어주세요.

2013. 08. 10 THE MAXIM PARTY
MAXIM의 물놀이 파티는 8월에도 계속된다!
오는 8월 10일, 캐리비안 베이로 집결하라!

MAXIM SEXY MARINE PARTY

지난 7월 13일, 경기도 청평에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인 '마리나 클럽&리조트 퍼핀스베이'를 통째로 빌려 MAXIM PARTY를 열었다. 섹시 마린이라는 드레스 코드를 제대로 지켜준 미녀들, 청평호의 투명한 별빛, 환한 레이저 조명이 파티를 빛냈다. 거품 목욕을 연상시키는 버블 풀장은 신의 한 수였다. 술과 음악에 취해 한껏 달아오른 이들이 서로 빠뜨리고 빠져가면서 거대한 야외 거품 목욕을 즐겼다. 미끄덩미끄덩~출렁출렁!



좀만 더 올리면 누군지 알겠는데!

This Month's Hot Scan



지난 7월호 속 QR 코드 중 독자가 가장 많이 스캔한 항목은 MAXIM 파티 포스터의 주인공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 엉덩이가 누구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였다, QR



This Month's Hottest Request



코스프레 여신 서유리를 이번 달 표지 모델로 섭외했다. 서유리 섭외 요청 게시글의 치솟는 추천수를 주체하기 힘들었던 MAXIM 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독자가 게시판에 제안한 대로 코스프레 화보까지 찍었으니, 98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당신이 MAXIM에서 만나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섭외 요청 게시판에 사진을 투척하라!

MAXIM ONLINE SURVEY

제일 끌리는 다리는?



아이, 시원해!

1 미니스커트 아래로 뻗은 여자 다리의 매력은 역시...

1위 섹시한 허벅지!
(836표, 79.3%)

2위 미끈한 종아리!
(166표, 15.7%)

3위 예쁜 발목이제!
(52표, 4.9%)

총 투표자: 1,054명
투표 기간: 2013년 6월 24일~진행 중

2 난 이런 다리가 좋다!

1위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 다리 (209표, 43%)

2위 약간 비쳐보이는 검정 스타킹 신은 다리 (116표, 23.9%)

3위 화끈한 망사 스타킹에 가터벨트 신은 다리 (69표, 14.2%)

총 투표자: 486명
투표 기간: 2013년 7월 9일~진행 중

남자들의 시선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여자 다리 버뮤다 삼각지대'는 어디일까? MAXIM에서 진행한 '다리 스페셜' 설문 조사 결과를 조합하면 '아무것도 신지 않은 섹시한 맨살 허벅지'가 정답이다. 그 밖에도 '여름 피서지 최악의 꼴불견은?', '최강 미모 프로야구 치어리더는?' 같은 다양한 설문에 참여하고 싶으면 MAXIM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아래 QR 코드를 스캔할 것!

꼴불견 설문율



마도사
유니스

별빛 정령의 가호를 받는 마도사



열혈전장 AOS!
에이지오브스톰
8월 8일 GRAND OPEN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오지의 잇(it) 아이템 쫓그라든 머리

 혹시나 당신 머리가 쫓그라들까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대신 고틀는 좀 쫓그라들었을 거다. BY 조용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aximus

지미 헨드릭스
스타일이다.



'헤드헌팅'이라는 말은 요즘 들어 '스카우트'의 의미로 통용되지만 취업난 따위 있을 리 없는 아마존 부족에게는 단어 그대로의 뜻을 담은 멋진 풍습이 있었다. 부족원이 죽으면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뜯금없이 지나가던 외지인의 목을 자르는 '대가리 사냥' 말이다. 그중에서도 에콰도르의 지바로족은 잘린 머리로 장신구를 만드는 공작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장인력이 <TV 유치원> 김영만 아저씨 저리 가라 할 정도라고, 부족원들은 이렇게 만든 '쪼그라든 머리'를 한때 양키 무역상과 거래하기도 했는데, 머리를 주고 총포나 탄환을 받았다고 한다. 좀 더 원활한 머리 생산을 위한 무역이었을 거다(분명 신나게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멍청이들도 있었을 거야). 최근에는 집 안에 3D 협짤을 모으는 게 취미인 관광객이 현금을 주고 구매한다고 한다. 심약자를 위한 원숭이나 고릴라 버전도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개인 판매자도 있는데, 검색창에 'Shrunken head'를 치면 세기말적인 거래창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언젠가는 중국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존 직수입 15cm 대갈 직거래(한정판, 수염 있음, 예늘 사절, 화곡동 오시면 차비 빼드립니다)'

쪼그라든 머리(Shrunken Head) 만드는 방법

- 1 잘린 머리에서 두개골을 분리한다. 목 뒤부터 절개하면 깔끔하게 가죽만 뜯어낼 수 있다.
- 2 '레드 시드'라 부르는 열매를 텅 빈 눈꺼풀 아래에 집어넣고 눈을 감긴 뒤 단단히 꿰맨다. 마치 눈같이 있는 것처럼!
- 3 입을 꼭 다물게 한 뒤 실로 꿰매고 두피 아래에 있는 지방을 제거한 뒤, 나무로 만든 공 위에 씌워 머리의 형태를 잡는다.
- 4 짐승 가죽을 무두질할 때 사용하는 '타닌' 성분이 들어 있는 허브를 끓는 물에 왕창 넣고 머리를 보글보글 끓이자. 이거 뭐 소머리 국밥도 아니고..
- 5 잘 익어 쪼그라든 머리를 뜨거운 돌과 모래 사이에 넣어 건조시킨 뒤 피부결을 정돈한다. 거친 석탄으로 피부결을 닦는다(간다).
- 6 예쁘게 장식한다. 머리도 딸고, 수염에 리본도 달고, 아유! 예쁘대!

MAXIM Award 이달의 추락자

인간만사 새옹지마.



여기로
패스하러니까?

승호같은 훌륭한
수색대원이 꿈이야

1위 세븐(최동욱) 이병

소식적 힐리스를 너무 많이 탔던 탓일까. 무릎이 마이 아팠던 최동욱 이병은 '치료'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찾았다. 현금 17만 원을 들고, 이게 방송국 취재 카메라에 포착돼 전국구 개망신을 당했고, 그동안 소음이 많았던 연예 병사 제도가 폐지되는 데 본의 아니게 큰 공헌을 한다. 예전에 방송에서 세븐은 행운의 7이 아니라 설령탕집에서 각두기 7개를 보고 작명한 거라고 했을 땐 지어낸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행운의 7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졌다. 이 순간 세븐에게 제일 부러운 사람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연예 병사 '비'일 거다. 이로써 한때 가요계 숙적이었던 이들 중 최종 승자는 비로 굳혀졌다.

2위 배우 정준호

채널 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연예 병사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던 정준호는 "나도(안마병) 가봤다. 남자라면 헬기왕성한 나이에 그럴 수 있다"며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 자신의 안마병 출입 사실을 자진납세했다. 그동안 조폭 영화를 찍으면서 형님 놀이에 너무 심취한 걸까. 이로써 그는 연예 병사들의 영원한 '두목'이 된 대신 60만 국군 장병을 잃게 됐다. 이로써 그의 오랜 야망인 정계 진출은 이제 그른 것 같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3위 가수 로이킴(김상우)

그의 '볼, 볼, 볼'이 어쿠스틱 레인의 'Love Is Canon'과 표절 시비가 붙었다. 누가 들어도 Ctrl+C, Ctrl+V 수준이라 표절이나, 아니나 보면 '했네, 했어'란 비난이 대세. 그가 못매를 맞게 된 건 <슈스케3> 출신 버스커 버스커 장범준을 향한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자기 자작곡 이 장범준의 '축가'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부를 때때다 장범준을 언급하겠다"며,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장범준의 이름을 외쳤다고 해이, 조지타운. 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정신차리자.

4위 축구선수 기성용

그는 최강희 감독과 대표팀을 비난하고 조롱할 일각이 필요했고, 비밀 SNS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다 얼마 전 그 존재를 들키했다. 고압계도 로이킴과 정준호가 마침 말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폭풍까임을 당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기성용의 비밀 SNS 계정이 하필이면 결혼 발표 이후 세상에 폭로되고, 그의 인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 단순한 우연일까? 헤진 누나를 품절녀로 만든 것에 대한 누군가의 불타는 질투는 아니었을까?

5위 인피니트 성규

tvN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비하인드 영상에서 박은지가 "저도 30년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게 진짜 쉽지 않네요"라고 하자 이상민이 답했다. "사실 여자 나이 30이면 뭐라 그럴까..." 인피니트 성규 왈, "요물이죠" 인피니트에는 소녀팬만 있는 줄 알았던 건지 앞도 뒤도 없는 성규의 요물 발언은 30대 누나팬들의 동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이 때 가슴을 쓸어내린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상민이었다. 그는 원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HELLDIVER



HELL DIVER

1942 SB2C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덕천시계(부산점) 051-333-8849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런(부평점) 070-7516-4545	M B K TIME(부산점) 070-8200-2234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뽕끼통(부천점) 032-662-0686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탐타임(안산점) 031-413-7656	복와치(청주점) 043-223-1333	삼성새대구점) 053-422-3002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TIME 21(강변점) 02-3424-7073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타임볼(부산점) 070-7530-1219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TIME 21(강변점) 02-3424-1210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엘가시계(부산점) 070-7569-5766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MAXIM이 추천하는 여름방학 이색 알바 4



언제까지 시급 4,860원 받고 일할래?

BY 손안나

1 워터슬라이드 테스터

지원 자격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체력을 갖춘 자

연봉 3,400만 원

▶ 영국의 한 여행사는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기구를 타며 안전성을 체크하는 워터슬라이드 테스터를 모집했다. 북미와 유럽에 있는 20곳 가량의 수영장을 돌아 다니며 하루 종일 미끄럼틀을 탄다.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으며 지원하려면 30초짜리 동영상 자소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아, 내가 카메라를 어디 뒀더라....

세상의 모든 알바들

뽕배방 마거 알바

제시카 알바

〈씬 시티〉와 〈판타스틱 4〉에 나온 섹시 여배우.

발연기가 심각한 수준이나, 얼굴과 몸매가 워낙 출중해서 끊임없이 일이 들어오는, 김태희의 할리우드 버전.



비행 알바

〈꾸러기 수비대〉의 알바트로스

“뚝기, 땀, 호치, 새초미 지축인묘”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꾸러기 수비대〉. 여기에서 12간지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시공간 이동머신 알바트로스의 약칭이 알바다.



초정밀 알바

세이코 알바

퀵츠 무브먼트의 가성비가 훌륭한 일본 시계 브랜드.

웹 시리즈로 G-shock의 프로그래머와 함께 전국의 고등학교를 평정했었지..



다혈질 알바

조르디 알바

FC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멘탈이 별로 좋지 않다.

지난 4월, 팀이 4:0으로 관광 당한 것에 분노한 나머지 FC 바이에른 뮌헨의 아르넨 로번의 얼굴에 공을 던졌다.



2 AV 모자이크 편집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 아동에 거부감이 없는 자 (우리 모두)

일급 4만 원

▶ 출시 직전의 AV를 하루에 8시간씩 감상하면서 응용 장면에 모자이크를 넣어 ‘노모’를 ‘유모’로 탈바꿈시키는 창조적인 알바. 여자 주인공이 입은 교복이 실제 학교의 교복인지도 체크! 어지간한 덕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급 기술이다. 30프레임의 동영상 하나 하나에 모자이크 넣는 일을 반나절동안 계속 하면 세상 모든 여자가 ‘유모’로 보일 거다. 일 관두면 한동안은 현자타임이 찾아올지도!



3 NASA 중력 연구 피실험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 귀차니스트

일급 700만 원

▶ 할 일은 하루 종일 누워있기. 그런데 침대 머리 쪽이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서 실험 내내 머리에 피가 쏠린다. 아무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소변도 튜브로 해결한다. 몇 개월을 내내 누워만 있느라 관절이 약해져서 결국 알바 끝나고 병원행을 택하는 참가자들이 많지만, 병원비는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괜히 고수입이 아니다.



4 북극곰 감시 아르바이트

지원 자격 목청이 큰 자

일급 네고 가능

▶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에는 북극곰을 감시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연구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먹이를 찾는 북극곰이 다가오면 “곰이 온다!!!!”라고 크게 외쳐야 한다. 북극에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야생에 적응이 빠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에 총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참고로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2,400명이고 북극곰은 그보다 많은 3,000마리다.

RÉMY MARTIN



MIX WITH
PLEASURE

 1 oz
RÉMY MARTIN

 3 oz
TONIC WATER ON ICE
WITH LEMON & MINT GARNISH

RÉMY SÖDA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율을 높입니다.

Circus Maximus

8 · 15 Weapons



8·15 독립 투사 업그레이드!



우리 조상님들이 장비빨만 댔어도 왜놈들은 이미 존나 옛날에 끝났어. BY 조용재



1 안중근 의사에게 체이탁 (CheyTac)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m1900 라이플을 7발 쏘아 벌집 피자를 만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격의 명수였다. 화승총으로 40m 떨어져 있는 동전을 맞출 정도였다니 아마 그의 사격 실력이 진중 못지않았음엔 확실하다. 그런 그가 실사거리 2,600m에 달하는 미제 저격총 체이탁을 장착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쉽게 체포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화여대 옥상에서 홍대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복학생 선배를 맞출 수 있는 거리다. 농담이 아니라 훗날 '스나이퍼 안'으로 위키 대백과 사전에 길이 남았을지도.



2 김구에게 구글 글래스 (Google Glass)를

김구 선생이 늘 고집하던 레트로 스타일의 서클 프레임 안경을 벗어 던지고 구글 글래스를 착용했다면 어땠을까. 이름 그대로 '김구 구글 글래스 더 하이브리드'. 아마 구글 플러스로 신민회, 한인애국단, 상해임시정부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했다면 동선이 꽤 줄었을 것이고 페이스북과 연동해 '임시정부' 페이지를 만들어 '좋아요'도 200만 개씩 받았을 거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일생이 담긴 <백범일지>를 보이스 저장 기능을 통해 담아두었다면 많은 후손이 <백범일지>를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윤봉길 의사에게 락앤락 찬함 풀 세트를

도시락 폭탄을 서브웨폰으로 품고 있던 윤봉길 의사가 훗날 탄생한 세계적인 국산 브랜드 락앤락을 알았다면 무척 자랑스러워했겠지. 당시의 소박한 양철 도시락 통보다는 가격이 좀 나가지만, 그렇다고 값싼 다이소 제품은 일제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다. 실제로 윤봉길 의사는 일본군에게 물병 폭탄을 던졌고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다는 사실이 최근 모 예능을 통해 알려졌다. 아마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는 락앤락 3단 찬함 세트만 준비했어도 폭탄이 세계 왜놈들을 세 배는 더 많이 잡았을 거다.



4 안익태에게 맥북 에어와 작곡 프로그램을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에게 작곡과 전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맥북 에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당시 클래식 작곡 기술은 21세기에 작곡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비할 바가 못 되니까 말이다. 요즘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작곡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로직'을 이용하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을 거다. '한국 환상곡' 더브스텝 버전과 일렉트로니카를 기반으로 바리톤과 오토튠을 결합한 애국가 탄생했을 거다. 길이 보전하- 쉼시 베이비! 쿵! 쿵!



KANG
KYUNG-HO

강경호

LIM
HYUN-GYU

임현규



BENSON
HENDERSON

벤슨 헨더슨



코리안 파이터 3인 출전

UFC 164

수퍼액션
공식블로그



9월 1일 (일) 오전 10시 30분

SUPER
ACTION

Circus Maximus

Noodle

여친에게 끌여주면 안 되는 라면

라면 먹고 갈래? 그녀가 수줍어하며 당신 집에 따라 들어온다. 그러나 기껏 대접한 라면이 그녀 맘에 안 든다면? 당신은 방금 산 콘돔을 환불해야 할 거다. (그러니 영수증을 절대 버려선 안 돼!)

BY 라면 리뷰어 김면발, 박스프(blog.naver.com/noodler)



오뚜기 참깨라면

박스프: 자~ 구수한 맛이 일품인 참깨라면 대령이요.
박선영: 나 집에 갈래.
박스프: ?
박선영: 참깨라면 느끼해서 싫어한다고 말했잖아. 오빠는

늘 그런 식이야.

박스프: 아차, 그랬었지. 그럼 김치 가져다줄게. 그냥 이번만 먹어줘. 제발.

박선영: 아 진짜 이빨에 참깨 낀단 말이야!

박스프: 아차, 그랬었지. 그럼 가글 가져다줄게. 그냥 이번만 먹어줘. 제발.

박선영: 됐어, 나 택시 타고 갈래.



오뚜기 컵누들

박스프: 자~ 칼로리 적기로 유명한 컵누들 대령이요.
김남현: 나 집에 갈래.
박스프: 왜? 대체 왜?
김남현: 오빠 내가 지금 똥똥하다는 거야?

박스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칼로리도 적고 콜라겐도 100mg이나 들어있으니까.

김남현: 뭐? 오빠 지금 나 피부도 안 좋다고 말하는 거야? 오빠도 모공 장난 아니야!

박스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가지마. 지금 시간에는 택시도 없어.

김남현: 됐어, 나 자전거 가지고 왔어. 픽시 하나 질렸어.



오뚜기 스낵면

김면발: 자~ 우주에서 가장 빨리 익는 스낵면 대령이요.
오현진: 나 집에 갈래.
김면발: 갑자기 왜? 얼른 먹고 다른 것도 해야지.
오현진: 이 반대 새끼.

이렇게 2분 만에 익는 라면을 꼭 먹어야겠어?

김면발: 아니, 이게 밥 말아 먹으면 엄청 맛있으니까. 그냥 이번만 먹어줘. 제발.

오현진: 내가 맵고 짠 라면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 이건 멍멍하다고!

김면발: 오빠가 잘못했어. 소금 왕창 넣어줄게. 그냥 이번만 먹어줘. 제발.

오현진: 됐어, 나 택시 타고 갈래.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

김면발: 자~ 오늘 밤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짜파게티 대령이요.
이유진: 나 집에 갈래.
김면발: 또 왜? 아니, 그냥 왜?

이유진: 오늘은 단 거 말고 매콤한 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김면발: 미안해, 오빠가 고추기를 넣어서 사천으로 만들어 줄게.

이유진: 이거 먹으면 입도 다 까매진단 말이야. 오빠는 진짜 왜 그래? 어휴.

김면발: 제발. 한 올 한 올 물에 헹궈줄게. 가지마. 너 택시비도 없잖아.

이유진: 티머니 되는 택시 타면 돼.

위 대화는 그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색했음을 밝힙니다. 더운 날씨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가구독권을 선물합니다. 사랑합니다



컵라면 용기 활용법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증가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북극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따뜻해진 날씨 덕에 모기가 많아져 말라리아 환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상기온으로 최근 울산지역에는 벌꿀생산량이 급감했다. 이 같은 대위기를 맞이하여 누들러가 컵라면 봉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구를 사랑하자.

BEST

핸드폰 거치대

풀리는 대로 가위질을 해서 핸드폰을 대충 걸쳐놓으면 된다. DMB 볼 때 이만한 것이 없다.



화분

간단하다. 잘 씻은 컵라면 봉지에 흙과 씨앗을 심으면 된다. 남자라면 컵라면 봉지에 고추를 길러보자. 당신의 남성성을 과시할 수 있다.



저금통

뚜껑이 될 만한 것으로 봉지를 덮은 뒤, 동전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사용한다. 주의 사항: 동전을 많이 넣으면 터진다. 오백 원짜리는 다른 곳에 저금해라.



부채

컵라면 봉지를 잘라서 평탄하게 만든 후, 나무젓가락으로 고정시켜 부채로 사용한다. 주의 사항: 안 시원하다.



바가지

잘 씻은 컵라면 봉지를 사워 시 몸에 물을 끼얹을 때 사용한다. 주의 사항: "너한테선 왕뚜껑 냄새가 나"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



SUPERSTARI[★]

슈퍼스타아이



365 on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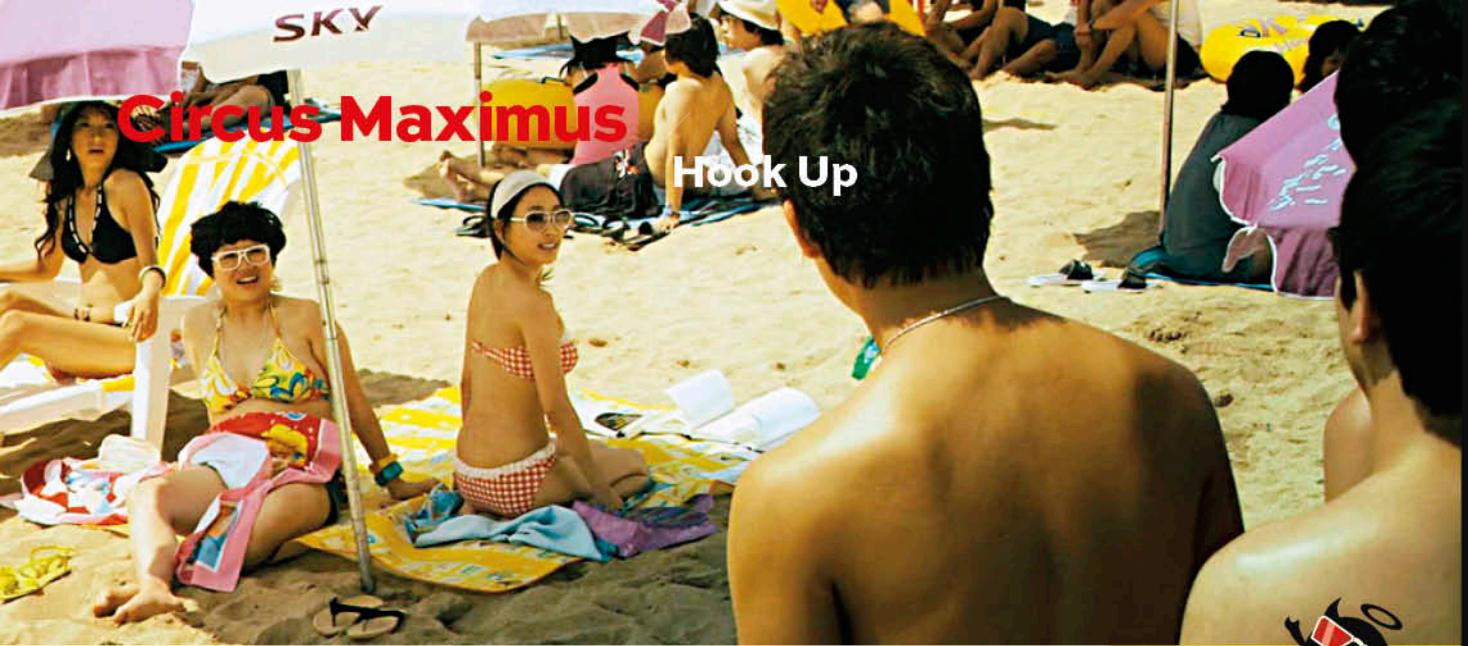
하루 하루 바뀌는
유행과 스타일에
지친 남자들에게
언제나 파격적인 가격과
퀄리티 높은 옷을 위한 공간

www.superstari.co.kr

지금 슈퍼스타아이에서는
썸머 시즌오프 최대 80% 세일

누구보다 빠르게 슈퍼스타아가 여름아이템을 시즌오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알뜰쇼핑할 절호의 기회!!





바닷가 헌팅 체크리스트 12

지피지기면 백전불퇴! 여자를 알고 작업을 걸면 퇴짜 맞을 일이 없는 법!



바닷가 헌팅도 전략이다. 당신보다 훨씬 못한 새끼는 여자 끼고 노는데, 당신은 고추에 둘러싸인 채 보내야 했던 지난 여름 휴가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면 주목! MAXIMI이 다년간 바닷가 헌팅을 통해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한 '쉽게 넘어오는 여자' 체크리스트가 여기 있다.

Check List <합계: ___ 점>

- 1. 가슴과 새골 등 노출 포인트마다 팔을 발랐다. "남자들이, 내 섹시한 보디를 보고도 날 내버려둘 거야?"라는 뜻이다.
- 2. 온몸엔 잔뜩 오일을 바르고, 태닝된 피부 위에 비키니 끈 자국이 여러 개가 겹쳐있다. 바닷가에 자주 와서 헌팅 당하는 걸 즐기는 오픈 마인드의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
- 3. 쉬지 않고 해변을 돌아다니고, 주변을 의식하며 두리번거린다. 주위의 남자들을 스캔하면서 광란의 밤을 함께 보낼 남자를 찾고 있다.
- 4. 바닷가에 왔는데 물에는 안 들어가고, 머리가 항상 말라있다. 남자와 놀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 망가질까봐 물놀이는 절대 하지 않는다.
- 5. 목걸이, 귀고리, 팔찌 등 모든 액세서리를 풀로 장착했다. 그녀에게 바닷가는 만남의 장소이자 유흥의 장소, 클럽과 같은 의미다.
- 6. 백사장에서 하이힐을 신고 있다. 남자와 놀기 위해 발목을 포기한 용기 있는 여자다. 꼭 잡아라.



- 7. 선글라스를 절대 벗지 않는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눈알을 굴리며 남자를 훑쳐보는 중이다.
- 8. 쌓아둔 짐들이 산더미처럼 많다. 짐을 넣어들 숙소가 없는 것이다. 숙소가 없으니 길고 긴 밤을 함께 있어줄 남자가 필요하지 않겠어?
- 9. 술도, 안주도 없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남자들이 조인하면 남자들이 제공하는 술과 안주를 먹을 예정이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어야 남자들이 작업 멘트 던지기 쉽지 않겠어? "저희랑 치킨에 맥주 한 캔 하실래요?"
- 10.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긴 한데, 한 시간이나 훌쩍거리며 주변을 살핀다. 술을 한 아를 들고 와서 함께 마시자고 말해줄 남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 11. 높은 톤의 큰 목소리로 주목을 끈다. 남자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우리를 좀 봐줘!"
- 12. 가끔 두리번거리며 자기들끼리 속닥거린다. 남자들을 훑쳐보며 점수를 매기는 중이다.



자! 체크는 다 끝났나? 얼른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체크한 항목 개수에 따라 당신의 헌팅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보겠다.

10-12점: 100%

'오늘 남자 제대로 얻어서 놀아보자'는 팀워크를 제대로 다지고 나온 아이들이다. 임플란트 각오하고 이빨만 잘 털자. 혹시라도 그녀들에게 끼이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건 100% 당신 문제다.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말더듬이 병신짓을 하진 않았는지 체크해봐라.

7-9점: 70%

대놓고 "남자 뉘러 출동!" 하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친구들보다 남자에게 더 관심이 많은 내숭형이다. 보통 리더녀의 선택에 따라 우르르 움직인다. 일단 우두머리 암컷을 파악하고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비위를 맞추자.

4-6점: 30%

애내는 일단 저희들끼리 놀려고 나온 게 맞다. 하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수컷을 맞이할 준비 또한 하고 나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암수 서로 정다운 바닷가 풍경에 취해 점점 더 양기를 찾게 된다. 이런 타입은 경계심이 많고 뒹굴질도 심하니 '낭만적인 운명의 남자' 코스프레를 하면 잘 먹힌다.

1-3점: 0%

여자들끼리 놀기로 작정을 하고 나온 아이들이다. 남자가 아닌 추억 나무랑이를 찾기 위해 바다에 왔다. 지들끼리 추억 많이 쌓게 놔둬라. 괜히 그녀들에게 접근했다가 거절당하면 그녀들은 추억이 쌓이고 당신은 스트레스만 쌓인다.

〈트와일라잇〉시리즈 자비에르 사무엘

〈스텝업 3D〉 샤니 빈슨

쓰나미가 덮친 도시,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났다!

〈레지던트 이블 3〉 제작진

베이트

BAIT 3D

수원 (주) 조이엔터테인먼트 배급 (주) 판파티너스

8월, 더위를 통채로 삼켜버린다!

麥心

목따는 애국과부 유디트

BY Goobsinist

구약성경 외경 유딧서의 주인공 유디트는 이스라엘판 논개라 할 수 있는데요-

서, 성경?!



미녀 과부 유디트네 동네에 앓시리아 군이 쳐들어오자-
항복해라!!



항복해라!!



Judith

유디트는 적의 장군에게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억ㅋㅋ 유대노 과부와 새녀 데스넹ㅋㅋ

장군이 곱아떨어지자- 후후후

장군의 목을 덩끼 이에 적군은 패퇴.
꽃배 클라스 하ㄷㄷ;;

이 스토리는 르네상스 화가들의 음흉한 취향에 들어맞아, 유디트는 르네상스 미술의 주요 테마로 자주 다뤄졌습니다.
나의 유디트는 카와이하고도



하지만 17세기 초, 이탈리아의 여류화가 젠틀레스키는 그 주제를 남자화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그녀의 유디트 그림은 남성들로 하여금 구술이 오그라들게 만드는 포스트를 뽐어냅니다.

진짜 유디트를 그려줄까?
(성폭행 피해 경험자)

헉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이미 페미니즘 그림을 등장시킨 유디트는 이후 19세기, 콜럼트의 그림에서는 팜므파랄로 거듭나며, 오늘날까지 심리기저에서 남성들의 모가지를 틀어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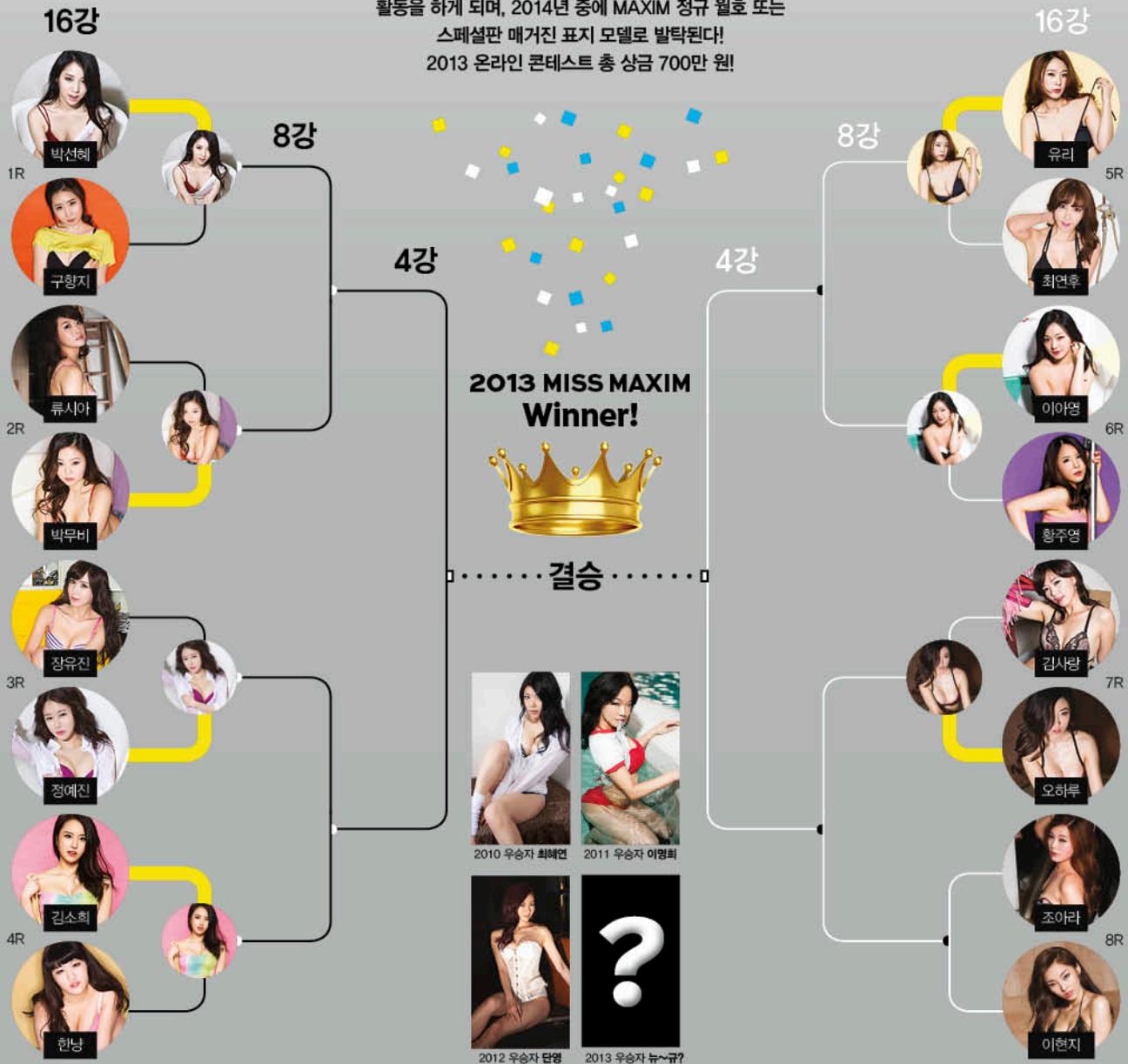
앗시리아 장군 모가지 쿠션 ₩7000

2013 MISS MAXIM CONTEST

TOP 16 Tournament Battle Start!

드디어 MISS MAXIM 16강전에 절정에 다달았다!
당신의 한 표가 MAXIM의 간판 미녀를 좌우한다!

우승자는 2014년 한 해 동안 MAXIM에서 각종 화보 모델 활동을 하게 되며, 2014년 중에 MAXIM 정규 월호 또는 스페셜판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된다!
2013 온라인 콘테스트 총 상금 700만 원!



YOUR CHOICE! YOUR MISS MAXIM!

MAXIM이 사랑하는, 그리고 MAXIM을 사랑하는 매력녀 중 최강자 1명을 선발하는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이 MAXIM 홈페이지에서 시작됐다. 이미 독자의 선택을 받은 본선 진출자 16인의 MAXIM 화보를 PC와 스마트폰에서 감상하고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라! 여기 MISS MAXIM 배를 대진표를 선사할 테니 복습, 또 복습하도록! 8강, 4강, 결승으로 올라갈수록 더 핫한 화보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화보로 만나고픈 그녀에게 어서 한 표 선사하라!

투표 방법

1. 모바일 기기 또는 PC에서 www.maximkorea.net에 접속해 16강 진출자들의 아찔한 매력을 감상한 뒤 투표한다.
2. 여기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투표한다!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5만 원
할인!**

MAXIM

KOREA

HORROR MANIAC

귀신 들린 여친 다루는 법
허를 찌르는 이토 준지의 공포 범죄
저주받은 영화 (악마의 씨)
그 30년 후 이야기 (코즈메리의 아들)

10 RULES OF FEAR

납량 특집 3부작
공포의 10가지 범죄

영화 (꼭두각시)의 호러퀸
구지성

SENSUAL VACANCE
필수 아이템 **7·7·7**

SEX & GO PRISON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건동죄의 허와 실

SEXUAL TENSION
브라 팬티 낚맞춤하고 나왔을 얘기 끝난 거지

SAY Ah~ Oh~
여성 독자 코너: 89%의 남자에게 먹히는 스킵
오랄 섹스, 이럴 때 시전하고 이럴 때 거절하라

**Goddess
of Baseball**

아나운서 공서영
BASEBALL SPECIAL
Limited Edition

‘김석류, 최희, 김민아 아나운서’
프로 야구는 매년 한 명의 여신을
탄생시켰다. 800만 관객 시대를 열
2013년의 야구 여신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지금 야구팬들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단 한 명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녀다

**STRIKEOUT
MONSTER**
진격의 류현진

대전벌에 뿌러지던 광속구가 LA다저스의
미트에 꽂힌다. 동산고 4번의 불방망이가
MLB의 외야를 유린한다. 게다가 좌투우타?
야, 대체 한국에서 뭘 데리고 온 거야?

EAGLE'S BAT GIRL
인터뷰를 뜨겁게 달군 현화의 귀요미
베트걸이 미스맥시 콘테스트 16강의
막자를 뒀다. 얼굴은 귀요인데 몸은...

COMING SOON!
**MAXIM'S
SEXY MARINE
PARTY**
13TH JULY

2013년 7월호
정가 5,900원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24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엠도시 안티 링글 트리트먼트 에센스

※ 한정 수량이므로 사은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은품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개월	정가 17,700원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천 원 할인 +1000씩 적립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천 원 할인 +2000씩 적립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만 5천 원 할인 +4000씩 적립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만 원 할인 +6000씩 적립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만 원 할인 +8000씩 적립	

※ 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딱=1원)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KB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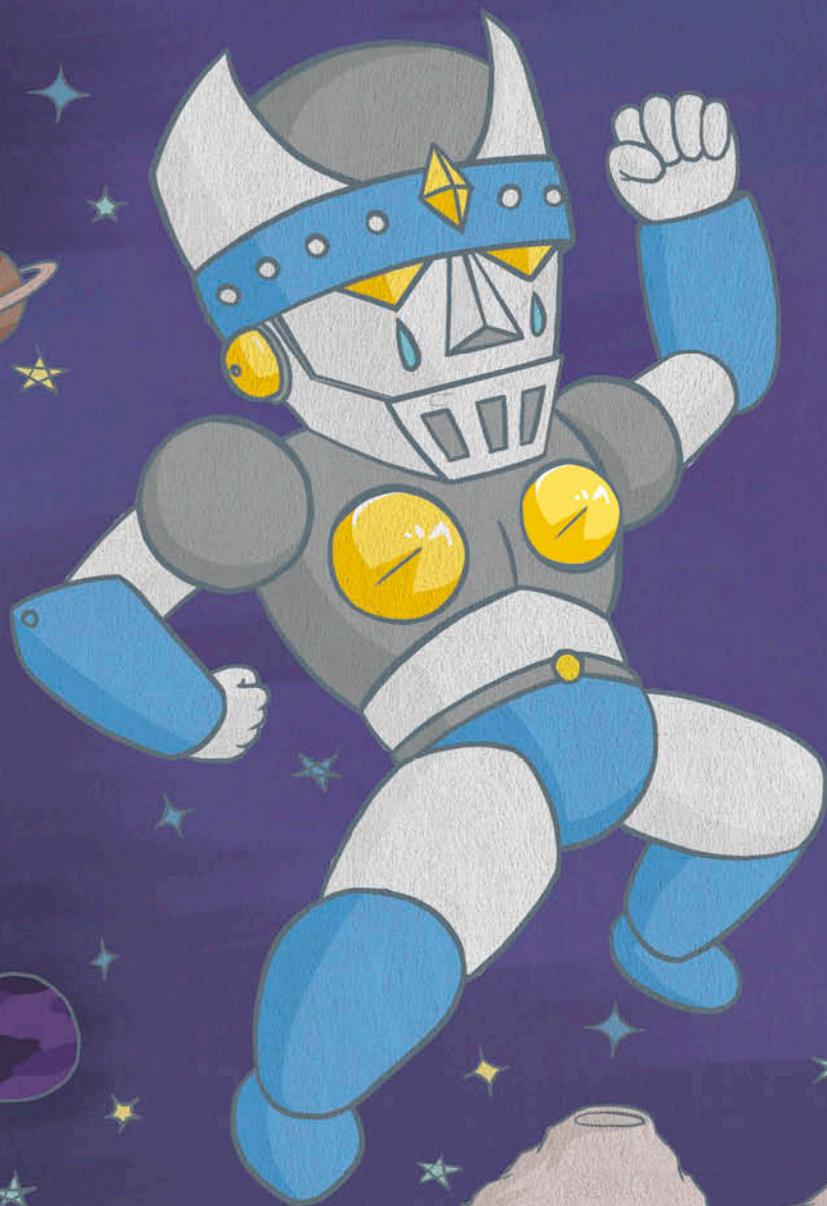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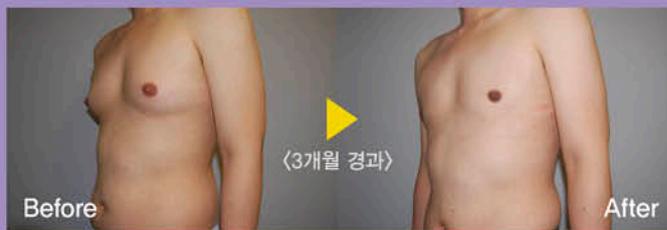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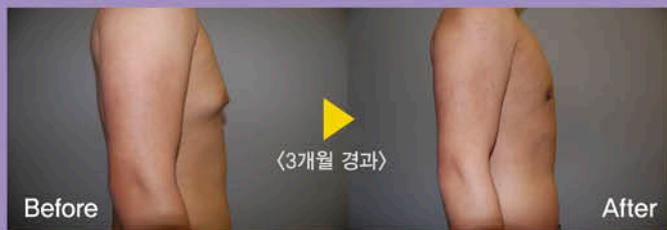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종이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편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와 개갈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시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 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남자가
버려야 할
한 가지!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의원 [진료내용 : 여성형유방증]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30312-중-40312호

HOW TO

복장은 단정하게

Office Life Tip

#8. 손님 대접하는 법



사무실에 온 손님한테는 커피와 녹차 중 어떤 걸 드리는 게 더 좋을까?

BY 김희성

MODEL (왼쪽부터)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준우승자 엄상미

해고 당하는 법



☞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때

집이든 사무실이든 당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은 손님 응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부서와 직급에 상관없이 알아두어야 중요한 비즈니스 매너지만 '기껏해야 커피나 녹차 타가는 데 어려울 게 뭐있느냐'며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 차를 대접하다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먼저, 메뉴 선정에서부터 고민이 된다. 기껏해야 커피 아니면 녹차겠지만 둘 중 어떤 걸 내가야 센스있어 보일지 당최 감이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고민은 뜨거운 음료와 차가운 음료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다. 어떤 이는 이 상황에서 '나쁜 오후 시간이니 녹차보다는 커피가 괜찮을 것 같고 바깥 날씨가 더우니 아이스커피를 타 가면 예뻐 받겠지?'라며 스스로의 판단 하에 차를 준비한다. 하지만 그건 센스라기보다 손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쪽에 가깝다. 손님이 방금 커피를 마시고 왔을 수도 있고 원래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없다면 무조건 물어보는 게 정답이다. 차, 다음 멘트를 기억하자. "커피와 녹차가 준비돼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시원하게 드릴까요?" 차가 다 준비되면 손님에게 먼저 차를 낸 다음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드리면 된다. 손님이 여러 명인 경우, 직급을 알면 직급순, 모르면 연장으로 보이는 사람부터 드려라.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가장 안쪽 자리부터 차례로 내면 된다. 안쪽일수록 상석일테니까.

☞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을 때

다른 회사에 손님으로 갈 때도 애매한 상황은 발생한다. 어쩌다 보니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패기 넘치는 신입 때는 자신의 성실함을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즈니스 매너에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폐다. 상대방이 미처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자리를 비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당신과의 만남 전에 꼭 처리해야 할 중요 업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면 근처 커피숍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정시에 임박해서 가는 게 매너다. 그리고 곧바로 약속 장소로 직행하기 보다는, 사육 입구에서 도착했으니 곧 올라갈 것이라는 연락을 하는 게 매너다.

☞ 미팅 중인 상사에게 급히 전할 용무가 있을 때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사에게 긴급히 전해야 할 말이 있을 때,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귓속말로 전달하면 허수다. 메모를 쪽지에 적어서 상사에게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님 우롱차?

커피 드릴까요?

차를 탁자 위에 놓을 때 뒷붙이면 좋은 멘트
"커피는 어느 쪽에 놔드릴까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 미팅 후 자리를 뜰 때

용건은 다 끝났는데 도대체 언제 자리를 떠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많다. 용건이 끝난 직후 바로 자리를 뜨면 인간미 없고 무성의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남의 업무 공간에 오래 있는 것도 결례다. 그러면 미팅을 할 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 게 좋을까? 30분? 1시간? 이때 중요한 건 당신이 몇 분이냐 다 끝나면 자리를 뜨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스스로 감지하고 일어서면 된다. 상대방이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할 때쯤이 가장 적절하다. 경험상 상대가 "미팅 끝나고 어디로 가세요?", "지금 가시면 차 좀 밀리겠다"와 같이 행선지나 교통 상황과 관련한 멘트를 할 때가 자리에서 일어날 타이밍!

☞ 담당자가 손님보다 늦게 올 때

이런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미팅 당사자인 직원이 손님보다 늦게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생초짜 신입일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 상사도 불면해 죽겠는데 손님, 손님이라니!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 먼저 잘한다고 손님에게 상사 대신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사와 회사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솔하고 오지랖 넓은 행동이다. 5분을 늦든 30분을 늦든 상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나설 필요는 없다. 당신은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한 뒤, 신문이나 잡지 등 읽을 거리를 차와 함께 가져다주며 양해 정도만 구하면 된다. 담당자가 폭풍 자락을 할 것 같으면 MAXIM을 건네주는 방법도 좋겠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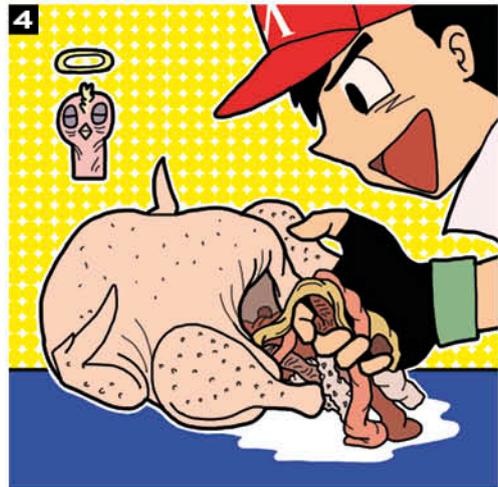
닭 잡는 법

초복, 중복 다 지났는데
몸보신을 못했다고?
아직 말복이 있어!



1 닭 잡는 법

1. 옷걸이의 몸통을 펴서 긴 나무 막대에 감아 갈고리를 만든다. 그리고 도망가는 닭의 발목에 썩사게 연장을 건다.
2. 잡은 닭을 땅에 놓힌 뒤 목을 쪽 빼서 1~2분 지그시 밟으면 피를 보지 않고도 녀석을 황천길로 보낼 수 있다.
3. 질식사한 닭을 따뜻한 물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뒤, 닭 털을 제거한다. 따뜻한 물이 닭의 모공을 넓혀 털이 쉽게 뽑힌다. 아냐, 여태까지 따뜻한 물에 머리 감았는데...
4. 닭 모가지는 부패가 빠르므로 재빨리 분리하고, 항문에 U자로 칼집을 내어 내장도 제거한다. 속이 빈 닭을 흐르는 물로 씻어주면 손질 끝. 이제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당신 마음!



2 장어 잡는 법



1.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말아 쥐고 있다가 장어가 뱀 위로 고개를 내밀면 장어의 머리부터 몸통 3분의 1 지점에 위치한 부레(공기주머니)를 재빠르게 눌러 잡는다.

2. 장어는 워낙 힘이 좋아 그냥 손질하기는 힘들다. 장어를 도마 위에 옆으로 눕혀 눈알에 못을 박아 고정한 뒤 칼집을 내면 된다.

3 자라 잡는 법



1. 수면 위로 자라의 머리가 올라올 때를 기다렸다가 낚아챈다. 자라는 이빨이 날카로우며 여차하면 물릴지도 모르니 조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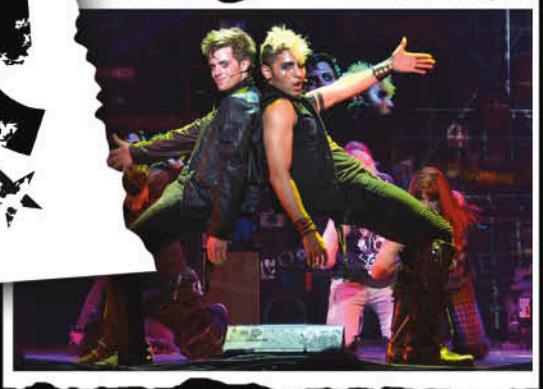
2. 자라를 뒤집어 놓으면 긴장이 풀려 등껍질 안에 숨어 있던 고개를 살포시 내민다. 이때 목과 등껍질 사이에 칼을 재빠르게 찢어 넣어 숨통을 끊으면 피가 쿵쿵 쏟아진다. 자라 피가 그렇게 정력에 좋다던데...

OD Musical Company, CJ E&M & Interpark Theater present

21세기 최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온다!

GREEN DAY'S 아메리칸 **기니엣** ★ the groundbreaking **BROADWAY** musical

뮤지컬
보고싶다면
여기로



(Photos by Turner Rouse, Jr., John Daughtry, Litwin)



오리지널 팀 내한 공연

2013. 09. 05 ~ 22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제작 OD MUSICAL COMPANY CJ E&M 인터파크 씨어터 주관 오픈리뷰㈜ 예매처 오픈리뷰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yes24

How To / Survive Music Festa



공연 중
삼지어
이런 짓도!



망원지구에서
치맥 한 판
사뉘매영, 음뽕~♥

한강에서 착하게 노는 법

열대야에 한강 공원 나갔다가 더 열받는 경우를 피하려면.

남시 착하게 즐기기



한강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낚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실수중보부터 성산대교까지, 즉 대부분의 한강 다리 근처에서는 떡밥을 뿌리면 안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선상 낚시나 한 사람이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쓰는 것, 여러 개의 낚싯바늘로 고기때를 추라는 일명 출치기 낚시도 금지다. 관련 규정 위반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텐트 착하게 치기



텐트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칠 수 있다. 일몰 이후엔 한강 주변에 텐트 치는 행위가 야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100만 원을 먹고, 이 과태료는 예누리가 없다. 3번 걸리면 300만 원이다. 텐트를 낮에 치더라도 가로, 세로 길이가 2.5~3m 이하의 그늘막만 허용된다. 텐트 설치 후엔 2면 이상을 늘 개방해야 한다. 폐쇄된 텐트 안에서 벌어질 으스스한 풍기문란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걸리고 나서 모기장이라고 변명해도 소용없더라고...흑흑...)

그냥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라

잠실대교 상류 지역은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주야 불문 그늘막 설치가 불가하다. 놀라지 마라. 여기에 텐트 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면는다. 감경도 안 되니 걸리면 진짜 울경 되는 거다. 또 여의도 선강, 강사습지, 고덕수변, 암사둔치, 난지습지 등의 생태공원에선 그냥 야외에 앉아 쉬는 것도 안 된다. 거기 풀은 당시 공둥이보다 더 소중한기 때문이다.

뮤직 페스티벌에서 살아남는 법



화끈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록 그룹 KISS의 보컬 폴 스탠리가 뮤직 페스티벌에서 잘 노는 법을 알려준다. BY Paul Stanley

준비물을 잘 챙겨라

"물티슈, 콘돔, 갑작스러운 키스에 대비한 입냄새 제거용 껌이나 사탕 없이 페스티벌에 가는 건 총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르르 가지 마라

"친구들이랑 떼가져로 물러가지 마라. 페스티벌은 시위를 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당신과 마음이 잘 맞는 한 명이랑 같이 가라. 동선을 설정하기도 쉽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작전을 짜기도 수월하다."

뮤지션이 있는 곳을 찾아라

"그곳이 바로 숨은 핫 플레이스다. 밴드라고 해서 악기만 들고 오는 건 아니다. 뮤지션들이 있는 텐트를 찾아라. 엑스터시가 많을 거다. 내 경험상 그런 악을 뿜면 개가 방귀 쾴는 소리도 아름답게 들린다."

찌질한 짓은 하지 마라

"진정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공연 중인 무대 위에 난입해 저질 댄스를 추는 용기 따윈 버려라. 갑자기 요망한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거든 무대 바로 앞 말고 가장자리에서 취라. 공연하다가 저질 댄스를 추는 광경이 보이면 산통 다 깨지거든."

*공연 중인 무대 앞에서 걸스데이 구미호춤이나 크래용팝의 5기통 댄스를 추지 말란 얘기가. - 율근이

백스테이지 통행권을 얻어라

"앞줄을 차지하지 못해 공연을 제대로 보기 글렀다면 뒷도리를 거의 벗어나서 한 예쁜이 무리를 찾아 살을 부비적대며 춤을 추다가 그녀들 중 한 명에게 백스테이지 통행권을 얻어달라고 부탁해라. 그리고 밴드랑 사진도 찍고 노가라도 끼면서 같이 노는 거지. 할뻔은 그녀라면 분명 얻을 수 있을 거다!"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 0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커집니다.
- 0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 0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 www.medoctor.co.kr / 02-3445-4514

How To Pornoga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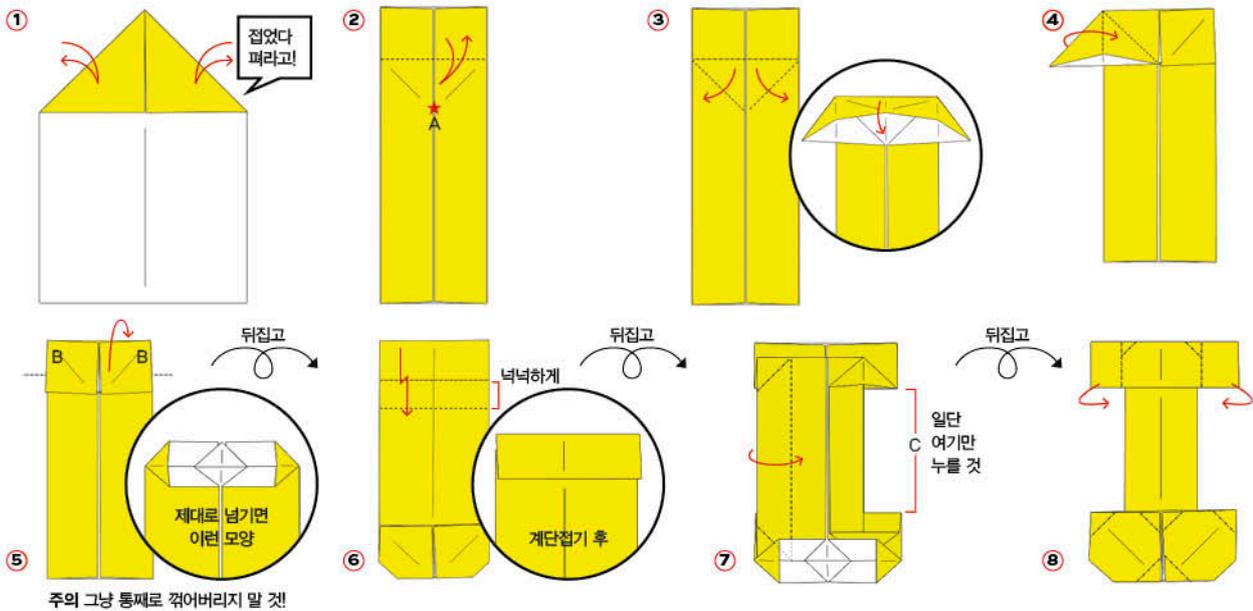


쑹쑹
자리로!

시형각
자료: X
접는 법

종이접기로 육봉 만들기

종이 한 장으로 고환-기둥-귀두를 다 갖춘 매직 스틱을 만드는 방법. 확 거시기를 접어버려! BY//ILLUSTRATION 이효선



➔ 준비 - A4 사이즈 종이 1장(자기 피부톤 색종이라면 금상첨화...)

- 1 비행기 접기 비행기를 접을 때처럼 양 귀둥이를 접었다 편다.
- 2 대문 인사시키기 종이 양옆을 대문처럼 모아 접고 윗부분을 A까지 인사시켰다 편다.
- 3 셔츠 풀어 젖히기 대문 윗부분의 갈라진 틈을 접은 선대로 열어젖힌다. 종이 모서리가 양옆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오도록 벌려서 눌러준다.

4 고환 생성하기 튀어나온 양옆 삼각형의 아랫변 틈으로 손가락을 넣고 펼쳐 눌러 접는다. 눈앞의 정사각형 두 개가 고환 부분이다.

5 고환 전승하기 고환을 뒷면으로 넘기는데, 양손으로 먹살 잡듯 종이 양옆을 쥐고 두 검지로 종이의 고개(B)를 뒤로 젖힌다. 고환 아랫면이 벌어질 거다. 그대로 펼쳐 눌러 접는다.

6 귀두 마디 내기 종이를 뒤집는다. 여기가 앞면이다. 귀두가 될 마디를 Z자 형태로 계단 접기 한다. 계단 중간이 넉넉한 게 좋다.

7 기둥 조각하기 이제 기둥 부분을 날씬하게 깎아낼 차례다. 종이를 뒤집고 기둥 부분 종이만 양옆을 모아 접는데, 일단 기둥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C)만 눌러라. 양옆, 위아래 모서리가 고깔처럼 봉기하면 삼각형 모양으로 펼쳐 눌러 제압한다.

8 마무리 종이를 뒤집은 후, 과도하게 튀어나온 귀두 양옆을 뒤로 넘기고, 고환과 귀두의 뾰족한 모서리를 접어 넘겨 디테일을 살린다. 지극정성으로 매만지면 종이가 3D로 솟아오르는 일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 겠.

ZINI
CONDOMS

탄탄해서 안전한 콘돔

탄탄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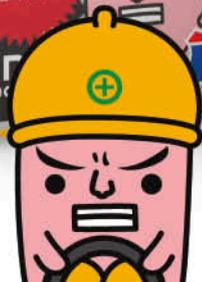


그 누구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모바일로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110-05-1578



이른들만을 위한 명랑완구 전문점
bururu.com

친절 전화상담 | 부르르 고객센터 : 1661-7725

How To Eat Meat

배고프면
보지 마!
삼겹살 먹방



배고프면
오리세요.
고기 맛 좋아.



삼겹살 맛있게 구워 사랑 받는 법

미남 개그맨에서 육식계의 프린스에 등극한 이승환이 삼겹살로 여심을 얻는 법을 알려준다. BY 이승환(별집 삼겹살 대표)

1 고기와 함께 로맨스는 시작되었지

“고기만 잘 골라도 이미 반은 성공! 눈으로 봤을 때 고기와 지방의 비율이 6:4인 삼겹살이 구웠을 때 맛있다.” 게다가 마트에서 물건을 꼼꼼하게 고르는 당신의 모습에 이미 그녀의 심장은 벌렁벌렁 뛰고 있다. 설사 싸구려 수입 냉동 삼겹살처럼 생긴 남자라 할지라도 여자의 ‘두근두근! 마트에서 남자랑 같이 장보기!’ 로망을 자극한다면 승산이 생긴다. 게임 윈!

2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 돼지고기에 어서 응급조치를!

“혹시 휴가지에서 급하게 구매할 삼겹살의 질이 별로라면 삼겹살에 파슬리 가루를 뿌려라. 누린내를 잡아주어 맛이 좋아진다.” 이렇게 우리 고기가 달라졌어요. 맛은 됐고 섬세한 손길로 돼지고기를 열심히 시즈닝하는 모습을 연출하라. 그

순간부터 그녀는 당신의 화려한 손놀림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을 거다. 이제 고기 대신 그녀에게 손기술 쓸 일만 남았다.

3 이 식빵? 널 향한 나의 하양고 순수한 마음

“삼겹살을 구울 때 불판 위에 식빵을 같이 올려줘라. 식빵이 기름을 흡수해 기름이 튀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에 삼겹살 기름이 튀면 안 되잖아.” 애써 화장한 고운 얼굴에 뜨거운 기름을 튀겼다면 분위기를 다 망칠지 모른다. 당신도 아직은 돼지기름으로 뒤덮인 그녀 얼굴을 볼 자신은 없잖아.

4 그 돼지를 좀 내버려두겠어?

“삼겹살을 구울 땐 한쪽 면이 노릇하게 익은 다음에 뒤집자. 너무 자주 뒤집으면 고기의 육즙이 빠져나와 맛이 떨어지므로 최대 2~3번까지만 뒤집자. 삼겹살

전체가 노릇노릇해졌을 때가 딱 먹기 좋은 타이밍!” 미친 여자 치마 필릭이듯 고기를 뒤집고 또 뒤집다가 불판 위에 짓눌러도 보고 초랭이 방정을 떨면서 고기를 굽는 사람이 있다. 그건 당신 위장을 위해 희생된 돼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5 뜨겁게 하나 되어 지지고 볶자

“다 먹은 후 삼겹살을 구운 고기 판에 남은 삼겹살을 잘게 잘라 김치, 밥, 김과 함께 볶으면 맛있는 볶음밥이 완성된다. 여행 전 센스 있게 볶음밥 재료를 준비해 가면 맛과 그녀의 사랑 둘 다 잡을 수 있을 거다.” 자, 끝이 보인다! 고깃집에서 볶음밥은 늘 식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코스라는 걸 그녀도 이미 알고 있다. 다 먹고 나서 빨리 상 치우고 일곱달공 깨소금 볶을 생각에 그녀도 지금 잔뜩 달아올라 있어! 지금이야!

포일 하나로 엠티촌 고기 왕자가 되는 법

삼겹살을 숯덩이로 만들어 먹는
바보들 사이에서 삼겹살 프린스 되기

준비물: 석쇠,
알루미늄 포일



1. 고기 석탄에 망연자실해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꺼낸다.
2. 포일의 반쪽반쪽한 앞면이 바깥으로 가게 고기 굽는 석쇠를 감싼다.
3. 삼겹살의 지방 부분으로 포일을 문질문질 해준다.
4. 그 위에 삼겹살을 올리고 우아한 포즈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OD Musical Company and CJ E&M present

여기 정신줄 놓은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가 왔다! 예측불허 상상초월 초특급 코믹 버라이어티 성배찾기 모험담!



깨알같은 패러디와 배우들의 **역연!** 정말 오랜만에 많이 웃고 즐기고 왔습니다! -liebe***

신나게 웃을수 있는 뮤지컬, 스팸어랏! -hh***

완전 홀릭!! 이렇게 배꼽잡고 웃었던 적이 있나 싶어요~최고예요! -ya2***

무대 위에서 망가지기를 두려워 하지 않는 배우들 덕분에 너무나 **유쾌했던 뮤지컬!** -itsha***

오랜만에 **뽕뽕** 터지는 공연보고 스트레스 다 풀고 왔어요~ -taliar***



스팸어랏
이벤트
보러가기



뮤지컬 스팸어랏

Book and Lyrics by Eric Idle Music by John Du Prez & Eric Idle

2013년 5월 21일~9월 1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프로듀서 신춘수 연출 데이비드 스완 출연 서영주 정준하 이영미 신의정 정상훈 조형균 윤영석 고은성 이훈진 김 호 정철호 공민섭 박경동 윤민우 정성진

제작 OD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연 오픈리뷰(주) 협찬 SPAM LOUNG 후원 KIBO 예술보충기금 에메서 인터파크 오픈리뷰 옥션 예스24 두산아트센터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A new musical lovingly ripped off from the motion picture "Monty Python and the Holy Grail" from the original screenplay by Graham Chapman, John Cleese, Terry Gilliam, Eric Idle, Terry Jones, Michael Palin

MISS M

2013 MISS MAXIM CONTEST

열일곱 번째 본선 진출자

이현지

얼굴, 몸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도전자가 나타났다!

BY 김세형 PHOTOGRAPH YuD

AXIM



한채영이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줄 알았다! 정말 답았는데 혹시
친척인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한채영 씨를 만나본 자인이
답았다고는 하더라.(웃음)

사람들이 한채영인 줄 알고 오해하진 않나?

길 가다가 깜짝 놀라 돌아보는 사람이 가끔
있는 정도? 특히 클럽이나 어두운 곳에
가면 "한채영 씨 아니세요?"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16강 진출자 규리의 기권으로 MISS
MAXIM 콘테스트의 막차를 탔다. 당신을
볼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원래 MAXIM의 애독자였다. 잡지에
실린 MISS MAXIM 홍보 페이지를 보고
자연스레 지원했다.

언더웨어 캠페인 클라인 언더웨어
구두 슈즈원

역대급
비주얼
감상하기





이번 콘테스트 예상 순위는?

4강 안에는 들지 않을까? 얼굴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웃음)

여름 휴가는 다녀왔나?

부산 임바다에 가기로 했다. 태어나서 처음이다. 전에는 여자 친구들끼리 캐리비안 베이에 놀러 가곤 했는데, 예상과 달리 다들 커플끼리 와서 말 거는 남자도 없더라! 그래서 외롭고 섭섭했다.(웃음) 말 좀 걸어주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어떻게 유혹하나?

반전 매력으로 어필한다. 외모가 도도하고 차가운 인상이라 귀엽게 말하고 행동하면 먹히더라고. 그러다가도 가끔씩 도발적으로 대하면 좋아 죽던데?(웃음)

여름 하면 복날이다. 복날엔 보통 뭘로 기를 보충하나?

역시 삼계탕이지! 사실 평소엔 홍삼, 영양제 등을 열심히 챙겨 먹는다. 부모님이 드시는 영양제까지 들러 챙겨 먹을 정도니까.(웃음)

하루 중 자신이 가장 예뻐 보이는 때는 언제인가?

실은... 항상 예뻐 보인다.(웃음)

역대급 대답이군! 독자들에게 한마디 알려줘라!

MAXIM KOREA의 마스코트가 되고 싶어요! ♥ 

HAIR&MAKEUP 장혜민 FILM 김상수 ASSISTANT 김소윤 장재식
COOPERATION 슈즈원(02-3443-1703)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02-540-4723)

←
이름 이현지
주량 소주 한 병
특기 정인, 알리 성대모사
활동 지역 강남 일대
매력 포인트 쇄골, 어깨 라인
이상형 섹시하고 귀여운 남자
FACEBOOK
www.facebook.com/hyunji0811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웬지 널 사연 있는 여자 같아
가벼운 덩벙처럼 들었다 놔다
햇갈리게 해 너의 애매한 태도
어디야 지금 영화 애매했대도!

그녀는 BAAAM BAAAM BAAAM 같은 여자
근데 왜 왜 끌리는 걸까
내겐 너무 애매서
You're always in my heart
그녀는 BAAAM BAAAM BAAAM 같은 여자

연락이 끊겼다가도
늦은 새벽에 불쑥 날 찾아와 술 사달라고
콧소리 내면서 내 맘에 불 붙였다가도
갑자기 정색하곤 해 오늘은 그만하자고
아 답답해 내 맘은 굴뚝같은데
너는 연기처럼 날아가는 게
마치 손아귀에 잡힐 듯 가까이 왔다가도
왜 뺨처럼 미끄럽게 빠져나가는데?
왜 내 맘에 파리를 틀었어?
삼킬 게 아니라면 넌 왜 나를 물었어?

- 다이نام믹 듀오의 7집 음반
(LUCKYNUMBERS)에 수록된
인기 호구송 'BAAAM' 중에서 -

당신의 그녀도 BAAAM 같은 여자?



다이نام믹 듀오가 부르는

어장관리송. BY 손안나 PHOTOGRAPH ARC SRUDIO



에디터도 한 마리 금붕어였다.
'쌔쌔남'이 던져주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을 받아먹으며
어항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던 적이 있다.
"이 남자랑 나랑 지금 사귀고 있는 게
맞을까?",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원래 성격이 쿨한 것 같은데, 촌스럽게 굴지
말아야겠다"라며 고민하는 에디터에게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너 지금 어장관리* 당하고 있는 거야"

* 어장관리: 실제로 사귀지는 않지만 마치 사귀
 것처럼 친한 척하면서 자신의 주변 이성 여럿을
 동시에 관리하는 태도, 혹은 그런 행동

지난 7월 1일, 다이남믹 듀오의 7집 앨범
(LUCKYNUMBERS)가 발매됐다. 1년
반 만에 발매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BAAAM(뽀)'. 강한 비트 위에 9인조 스트링
사운드에 UV 뮤지의 보코더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힙합곡이다. 이 곡으로,
다이남믹 듀오는 데뷔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BAAAM의 핵심은 무엇보다 당해 본
사람이라면 절로 고개를 끄덕일만한
'어장관리녀'에 대한 폭풍 공감 가사다.

요즘 가요는 가사가 매우 특이하거나, 매우
공감이 가거나 둘 중 하나여야 히트한다는
말이 있다. '전기 충격' 사행시를 가사에 담은
에프엑스의 '일렉트릭 쇼크'나 후렴구 내내
과상망측한 주문을 외는 사이니의 '링딩동',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 분(!)이신데
안되는 게 어딴느냐'는 이상한 논리로 듣는
이의 손발을 퇴색시키는 걸스데이의 '여자
대통령'이 전자라면, 다이남믹 듀오의 노래는
후자다. 특히 힙합 음악은 래퍼가 자기 얘기를
직접 쓰기 때문에, 그 어떤 장르보다도 가사가
중요하다. 다이남믹 듀오 역시 자신을 "일상을
가사로 풀면서 공감을 이끄는 팀"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2009년 발매된 다유의
5집 앨범 (Band Of Dynamic Brothers)

의 수록곡 '진돈은 됐어'는 다유의 그러한
강점이 가장 잘 나타난 곡. 막 면접을 보고
택시에 탄 한 취업준비생은 운전사에게 '전공
살리려고 다니던 중소기업은 월급도 받지 전에
망했고, 그나마 인턴으로 들어갔던 대기업에
서너 반 년 넘도록 잡일만 했고, '나를 4년째
나와서 그게 아까워서 아직 막일은 안해봤다'
며 택시 운전기사에게 '아저씨, 택시하려면
면허 말고 또 필요한 거 있나요?'라고 묻는다.
당신이 취업준비생이라면, 눈을 없인 이 곡을
들을 수 없을 거다.

최근 1, 2년 새 한국 가요계에는 '나쁜 여자'와
거기에 휘둘리는 '순정남'에 대한 가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훈남 랩퍼 빈지노는 '아쿠아맨'
에서 '하루종일 너란 바닷속을 향해'하며 '헤엄'
치는 'one of your 생선'이고, 힙합 듀오
배치기는 '아는 여자에서 '이럴 거면 고기쌔'는
왜 싸졌어. 술 취해 보고 싶다는 문자는 왜
보냈어'라며 어장녀를 원망한다. 그리고
다유의 이번 곡 'BAAAM'에서는 '오전에 보낸
문자는 메아리가 없어 하루종일 내 기분은
맥아리가 없어 친구들에게 밀고 당기는 중,
사실 네가 던진 떡밥에 완전 낚이는 중',
'어깨 근처에 향수만 묻혀놓고 가냐 내가 너의
웅달생은 아닌데 왜 항상 커피 아니면 술만
얻어먹고 가냐'고 한탄하는 화자가 등장해,
전국의 백만 물고기들이 산란기 연어 모이듯
대동단결하여 "웁시!"를 외쳤다.

이 노래를 듣고 나니, 당신의 머릿속에도
BAAAM 같은 여자 한 명이 자연스레
스친다고? 그렇다면 당신도 그녀의 어항
속에서 파닥거리는 관상어일 확률이 높다.
가끔 던져주는 뱀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용단을 내릴 차례다. 그녀와 드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이 곡을 틀어보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뺨처럼 미끄럽게 빠져나가지
말고, 이제 그만 내 맘에 파리를 틀어 줘!"
라고 라고

에디터가
뽑은
어장송 5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좀비떼가 출현하면 에디터는 제일 먼저 물릴 게 분명하다.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

BY 김희성 ILLUSTRATION 장재혁

공격에서 살아남기
 눈에 띄지 않게 생활하라. 혹시 지하실이 있으면 소리와 발진을 비롯한 모든 생존 활동을 그곳에서 해결하라. 라디오는 매일 청취하되 헤드폰을 끼고 들어야 한다. 창문에는 모조리 검은 커튼을 치고 특히 밤에는 절대 걷지 말아야 한다.
 -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117p
 '방어 요령'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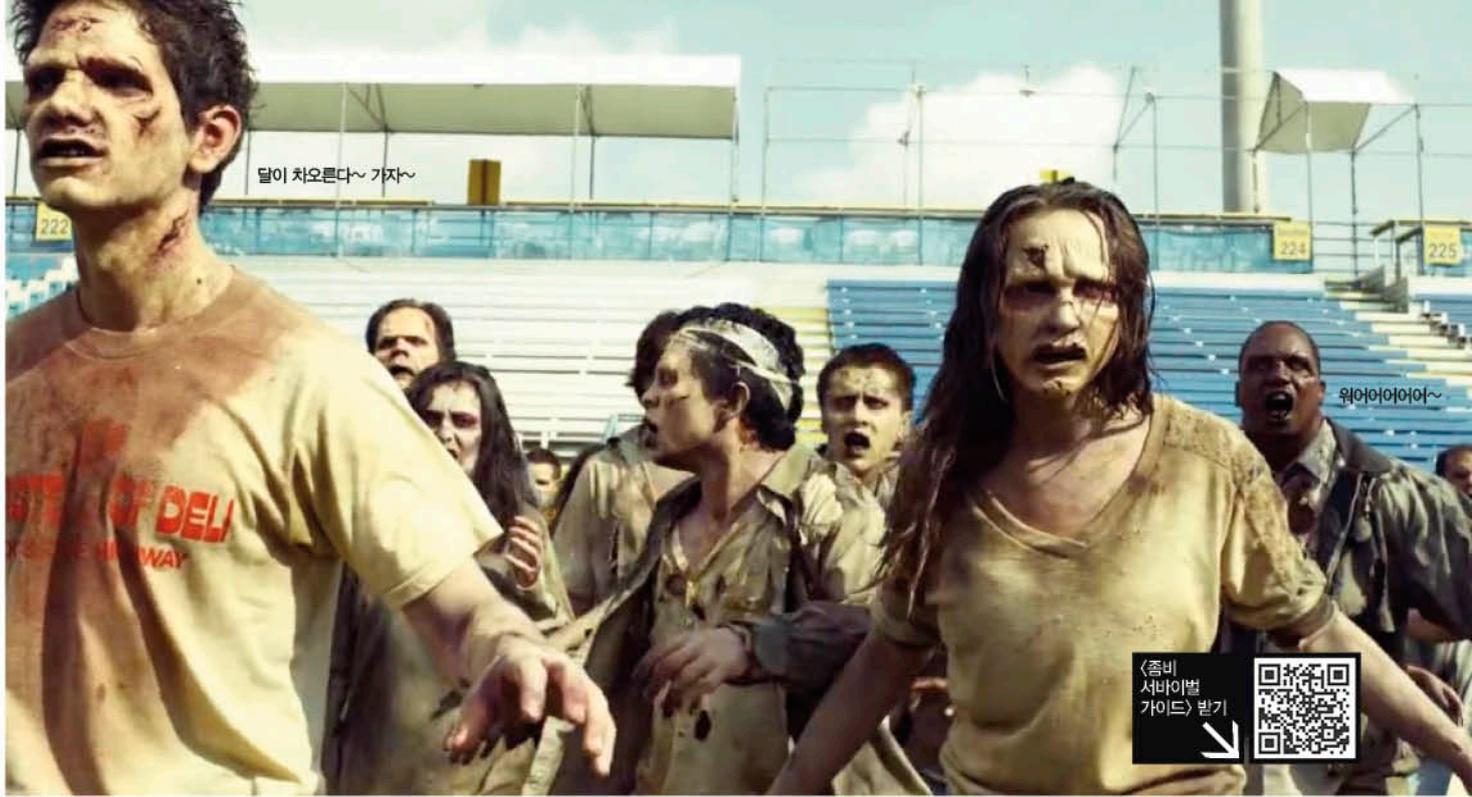
소화 능력
 좀비의 소화 계통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이다. (중략)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킨 인육은 좀비가 희생자를 거듭 먹어 치우는 동안 체내에 쌓이며 서서히 썩어가다가 마침내 항문으로 밀려 나오거나, 아니면 복부나 내장 벽을 뚫고 문자 그대로 터져 나온다. 이 정도로 극적인 소화 불량 사례는 드물지만, 배가 볼록 튀어나온 좀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수백 명이나 된다.
 -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32p
 '살아있는 시체: 미신과 진실' 중에서 -

사살 후에는 소리에 주의하라
 접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후속 공격에 주의해야 한다. 좀비가 쓰러지면 즉시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주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총소리가 닿는 범위 안에 좀비가 있을 경우 소리를 듣고 당신 쪽으로 접근할지도 모른다.
 -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194p
 '공격요령' 중에서 -

생물학 무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괴물들을 다른 바이러스로 처치한다.' 낭만적이지 않은가? 불행히도 이 방법은 아예 선택할 여지조차 없다. 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세포만 공격할 뿐, 살아있는 시체에게는 아무 효과도 없다.
 -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93p
 '무기 및 전투 기술' 중에서 -

번식
 좀비는 불임 생물이다. 그들의 생식기는 썩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좀비 난자와 인간 정자, 또는 좀비 정자와 인간 난자를 수정시키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이제껏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좀비가 자기 동족 또는 인간에게 성욕을 느끼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좀비를 낳는 좀비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34p
 '살아있는 시체: 미신과 진실' 중에서 -





달이 차오른다~ 가자~

위어어어어~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받기

살면서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순찰차의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였다. 아, 순찰차 뒷자리에 왜 타봤냐고? 그건 순전히 변태 때문이었다. 집 앞 출입구를 변태가 막고 있어 경찰 아저씨가 순찰차로 데려다 주셨거든.(아, 오빠였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태를 목격한 나는 그날 집에 돌아가 엉엉 울었다. 친구들이 변태 만난 설을 무용담처럼 풀어놓는 걸 보면서, 변태를 만나면 웃길 거라 생각했지만 직접 맞닥뜨린 변태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에디터는 이후로도 몇 번 더 변태를 목격하게 됐는데, 변태를 목격할 때마다 좀비가 자주 떠올랐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돌이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째, 랜덤으로 공격한다. 좀비가 특정한 목표를 삼키 않고 닥치는 대로 아무나 물듯이, 변태도 아무 여자 앞에서나 바지를 내린다. 자신이 지목한 특정 여성을 기다렸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당한 사람만 재수 음물은 거기 뭐.

둘째, 이상한 소리를 낸다. 좀비가 정체불명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등장하듯 변태도 신음 비슷한 소리를 내며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셋째, 기습적이다.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아무도

모른다. 좀비물의 주인공이 좀비떼에게 느끼는 공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공포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먼저, 좀비한테 언제 어떻게 물려 감염될지 모른다는 설정은 중증급성호흡기중증군 사스와 같이 각종 전염병에 대한 인간의 공포를 자극한다. '가급적 사람이 북적이는 곳의 출입을 삼가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손을 잘 씻으라'는 내용의 전염성 바이러스 대응 요령은 좀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시나 좀비를 만나게 되면 머리를 조준하라는 단순 응대 메뉴얼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한편,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언제 좀비로 변할지 모른다는 요소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의 급작스런 '죽음'을 연상시켜 마친가지로 공포의 감정을 유발한다. 좀비에 맞서 함께 싸워주던 조력자가 더 이상 없다는 '외로움'도 우리에게겐 굉장한 두려움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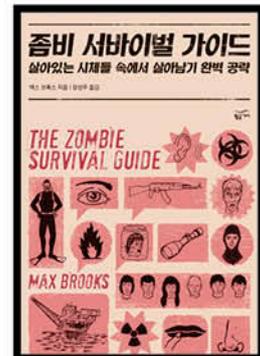
좀비의 습격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 놓지만 계획이 변수가 생겨 누군가는 물리고 인다는 좀비물의 흔한 설정에 대비해 '불안정'한 우리의 삶과 같다. 좀비는 허구지만 좀비가 주는 공포는 현실이다. 좀비물의 주요한 인기 요인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공포에 대한 공감'인 것이다.

그러니 좀비와 인간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 《웬비디스》는 흥행에 참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감정을 가진 좀비라니... 좀비에게서 현실 공포를 기대하는 대중에게 전혀 와 닿지 않는다. 반대로 좀비들로부터 살아남는 법을 다룬 책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는 제목만 봐도 이미 히트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저자 맥스 브룩스가 이 소설로 좀비 르네상스의 창시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의 영화 감독 '조지 로메로 이후 가장 창조적인 좀비 전문가'라는 찬사를

듣게 된 것도 당연하다. 브룩스는 이 여세를 몰아 《세계대전 Z》를 발표했는데, 아마존닷컴에서 50주간 베스트셀러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아, 당신이 얼마 전에 본 브래드 피트의 영화 《월드 워 Z》의 원작이 바로 《세계대전 Z》다.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는 《세계대전 Z》의 기반이 된 작품이고,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에는 '살아있는 시체들 속에서 살아남기 완벽 공략'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한밤중에 만난 변태를 소탕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탐독하다 보면 이 좀비 때려잡기 이야기가 픽션이 아닌 마치 실전 공략집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디테일하고 리얼하다.

초기에 나온 좀비들은 설정과 설명, 묘사가 죄다 흐느적거리며 비틀대기만 했지만 영화 《28일 후》에서 뛰어다니는 좀비로 진화하더니 《월드 워 Z》에서는 키보다 몇 백 배 높은 벽 따위는 가볍게 뛰어넘는 능력을 장착했다. 좀비가 더욱 강력해질수록 우리가 느낄 공포는 커진다.

《월드 워 Z》를 보고 나서 책장에 꽂혀있던 이 소설이 다시 읽고 싶어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 이 책을 보기 전에 일단 좀비 영화를 한 편 감상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책을 집어 드는 거지. 식후명하는 기분으로, 오케이!? 🧟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맥스 브룩스 지음
황금가지
12,000원

직접 선두에 서서
적대 관계에 있던
종족들을 차례차례로
격파하여 장악했다.
그 세력은 확대시켜
이제는 천하의 서쪽
산계의 대부분이
안타한 소유가 됐다.

역사물의 다크호스 〈킹덤〉 전격 분석!

 데뷔작이 대히트, 시작이 반,
백일장으로 신춘문예에 당선한 풀이다.
뜻내기 작가였던 하라 야스히사의 〈킹덤〉의
대박은 적어도 그 정도다. BY 조용재

 **천재 스타 만화가의 등장**
〈킹덤〉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하라
야스히사. 그의 데뷔작이자 그에게 '천재
작가'라는 수식어를 안겨준 〈킹덤〉은 출간한 지 7년이
지난 요즘에 와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광장시장
육횃집처럼 입소문을 타고 히트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킹덤〉은 그간 〈창천향로〉, 〈전략삼국지〉, 〈히스토리예〉
등 소위 '명작'이라 부르는 역사 만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위대한 인물
진시황 '정'을 중심으로 당대의 내로라하는 명장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하라 야스히사판 〈열국지〉라 할 수
있겠다.



킹덤
장르 역사
작가 하라 야스히사
출판사 대원씨아이
연재 시작 2006년 주간 영점프
국내 발매 2012년~현재(29권 발매)



1 '손 실름 없이' 박진감 넘치는 구성



만화 <킹덤>이 지난 출판력 중 하나는 손 실름 없는 긴장감이다. 이것은 1990년대를 풍미한 <오늘부터 우리는> 이나 <상남 2인조> 같은 명작 학원물의 히트

요소를 적절히 차용한 결과라 하겠다. 후배들이 옆 학교 양아치들에게 얻어터졌다는 소식을 들은 무적의 주인공. '이제 화끈하게 양아치들을 쥐어 패겠구나!' 싶으면 한 권이 끝나고 만다. <킹덤> 역시 마찬가지다. 간악한 술수로 진나라를 위협에 빠뜨리고 기고만장한 상대 진영의 장군. 이때 갑자기 특유의 "오호호호" 하는 게이 웃음을 흘리는 천하무적의 왕기 장군이 등장한다. "재미있는 싸움이 되겠군요" 라는 한마디와 함께 이어지는 "다음 권에 계속", 여유 넘치는 천하대장군이 적을 시원스레 썰어버리는 다음 이야기를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 계속 읽지 않으면 궁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독자는 여지없이 다음 권을 찾는다. "와, 이 만화 완전 대박이네!"라는 감탄과 함께 말이다.

2 팩트와 허구가 어우러진 그럴싸한 설정



이런 박진감 넘치는 구조뿐 아니라, <킹덤>이 보이는 또 다른 강점은 바로 허구와 사실을 적절히 섞어놓은 설정에 있다. 아마 작가는 수많은 캐릭터의 설정을 잡느라 오랫동안 애 좀 먹었을 거다. 그런

그는 고난을 겪으며 성장해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동시에 멋진 장군들을 주변에 퍼뜨려놓으며 부수적인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작중에 등장하는 일당백 무녀, 거인 여장수, 소녀 군사 등은 작가가 멋대로 성전환시킨 사례긴 하지만, 모두 실존 인물이 맞다. 또한 진시황의 아버지인 소왕 때 진 최고의 장군들로 <육대장군>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으나, 그 세력이 너무 막강해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이거 개뽕이다. 그런 오그라드는 직책 따위가 실제로 있을 리 없잖은가. 그럼 '삼대내시', '구대기생' 같은 것도 있어야지. 그저 '가뉴 특전대' 같은 임팩트를 주기 위해 만들어낸 장치다. 물론 스토리가 실제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을 역사적 사실에 기댔다는 점은 어쩔 수 없지만 훌륭한 선택이었다.

3 배틀물의 인기 요소를 적절히 섞어 놓은 보스전의 향연

또 다른 특징으로, <킹덤>은 최종 보스와의 결전이



반복되는 소위 '배틀물'의 공식을 철저히 따른다는 점이다. 이는 <드래곤볼> 이나 <헌터x헌터> 등의 소년 폭력 만화에서 흔히 차용하는 방식이다. 주인공은 고난을 겪으며

점점 더 강한 적을 해치워나간다. 프리더를 잡으니 셸이 나타나고, 셸을 잡으니 부우가 나타나는 격이다. 이는 딱히 전투 폭력물만 아니라 요리 만화 계열의 메가히트작 <미스터 초밥왕>에서도 뻔히 보이는 구성이다. 물고기를 마취한 뒤 회를 뜨고도 살게 만들지 않나. 바닷속에서 활어회를 뜨지 않나. <킹덤>에서도 마찬가지다.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던 왕기 장군이 뜬금없이 등장한 '무신' 방난에게 당하고, 무시무시한 철퇴를 휘두르던 장수 간명을 대체 누가 때려잡을까 했더니 초반부터 등장하던 장수 몽무가 맞다이로 빌라버리고... 물론 독자들은 "아 무신! 말도 안 돼!"라며 실소를 지지만 속으로는 "아... 이 새끼가 이렇게 당하네!"라며 흥미진진하게 스토리를 즐기게 된다.

4 예상되는 <킹덤>의 난관, 파워 인플레이션 현상



그런 <킹덤> 역시 '파워 인플레이션'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을지는 미지수다. 이것은 배틀물이라면 백이면 백 부딪히는 난제로, 작가가 초반부터

너무 압도적인 적들을 등장시킨 나머지 이후의 스토리 전개에 제동이 걸리는 현상이다. 가상현실 속으로 매번 뛰어 들어가 적을 무찌르며 보상을 얻는 만화 <간츠>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갈 거다. <간츠>는 볼과 다섯 권 만에 앤더슨 실바 급의 무적 악당을 등장시켜 주인공 일당을 전멸 직전에 이르게 했다. <킹덤> 역시 철저히 캐릭터 위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미 상대 조나라에는 여포를 방불케 하는 무신 '방난'과 전국시대의 제갈량 급 지략가 '이몽'이 버티고 있다. 이걸 나로호 대폭발 슛을 구사하는 차범근 축구교실의 초딩이 10년간 슛을 연마해 부폰과 카시야스, 체호가 가로막고 있는 골대를 뚫겠다는 격이다. 주인공 '신'은 그저 루피 급의 열혈 바보일 뿐, 강한 적들을 차근차근 베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엔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만약 <킹덤>이 <더 파이팅> 급의 연재 기간(현재 102권 출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앞으로 조나라를 넘어 연, 초, 위, 제를 정복하는 완결편까지 새로 등장할 캐릭터들의 능력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5 차기작이 기대되는 천재의 호수(好手)

하라 야스히사는 <슬램덩크>, <베가본드>의 작가 이노우에 다케히코의 어시스턴트 출신이다. 좋은 스승 밑에서 자란 제자답게 데뷔작이 메가히트를 쳤으나, 그의 만화 속에는 단순히 이노우에의 흔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장르별 '만화'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재미를 맛있게 비벼볼 줄 아는 신인답지 않은 작가다. 학원물의 전개 방식, 배틀물의 긴장감 그리고 사실에 기인한 역사물의 흥미로움까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킹덤>이라는 그릇 안에 잘 버무려놓았다. 벌써부터 그의 차기작이 기대된다. 이 정도로 집중력이 뛰어난 스토리와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야 어떤 장르의 작품을 풀어내도 어색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근육 무관과 꽃미남 문관의 전국시대 로맨스 <코덤>이라든가, 잔인하기로 이름을 날린 여제 서태후의 일대기를 그린 <뎀덤>이라든가... 아, 조만간 슈에이샤에서 연락 오겠네. 📞

만화 vs. 역사

현실은 시궁창? 아니, 얼굴이 시궁창?



VS



여불위

조나라 출신의 상인으로 정(진시황)의 아버지 장양왕을 진나라에 즉위하게 만든 절대권력의 사나이.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만화 속 이미지가 훨씬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VS



몽념

무식하게 생긴 아버지 몽무와는 달리 '낙화대'라는 부대를 이끄는 꽃미남 명장.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완성한 장수다. 만화에서는 맨날 만리장성 쌓을 것처럼 생겼는데, 현실은 어째...



VS



이목

조나라의 명장 중의 명장으로, 말 그대로 동량지신(棟樑之臣: 나라의 대업을 맡는 신하). 김조한 뺨치는 소울패치 수염을 뽐내던 만화 속 모습과는 달리 사서 내의 모습은...

초능력 포돌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제는 하다 하다 초능력이다.
BY 손안나

출주는
경찰



1993년 <투깝스>가 나온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에서 '경찰'만큼 익숙하면서 비현실적인 존재도 없다. 영화 속 그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의 양심 따윈 개나 췌고(<투깝스>), 하는 짓은 깡패인지 경찰인지 모를 정도로 불량하다(<공공의 적>), 그도 아니면 그저 범인을 풀어주는 멍청한 무능력자(<추격자>)로 평가절하된다.

지난 7월 3일 개봉한 <감시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남달랐던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로맨스는 없고 일만하는 경찰"이 "오로지 범죄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미국 드라마'스러운 설정에, 어쩌면 이번엔야말로 과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찰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캐릭터가 등장'만' 할 뿐 <감시자들>은 지금까지의 비현실적인 대한민국 경찰 캐릭터에 초현실적인 능력까지 부여한 영화다.

영화 속 경찰 특수조직 감시반,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온갖 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다. 팀워크도 훌륭해서 황 반장(설경구)이 이끄는 '동물원'은 환상의 팀플레이로 목표물을 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당 제임스(정우성)를 찾아내는 건 천재적인 기억력을 지닌 감시과 신입 하윤주(한효주) 1인이다(심지어 범인과 1대1

로 대면할 때까지도 도움을 준 이가 하나도 없다). 그녀는 만화 <몬스터>의 룡계 경감처럼 손가락을 몇 번 툭툭 두드리는 걸로 몇 달 전 지하철에서 스친 남자가 무슨 책을 들고 있었는지, 몇 분, 몇 초에 몇 번 출구에서 내렸는지 기억해내는 만화 같은 초능력을 지녔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평범한 경찰 조직이 아무리 뛰어봤자 비범한 능력이 한 명을 못 이긴다"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 관객의 입장에서 맥이 풀릴 수밖에. 이러다가 나중엔 사건 해결을 위해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순경, 용의자에게 에네르기파 쏘는 형사까지 나오겠다! 🤖

인도 뭍바이의 뜨거운 정기를 품고 태어나 나이지리아, 영국, 캐나다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미드 <24시>를 통해 전 세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글로벌 미녀 스타 나즈닌 콘트랙터. 최근 <스타트렉>의 새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SF 왕국까지 점령했으니, 신사 여러분, 섹시 왕국으로 멘탈을 전송할 준비는 되셨는지?

Nazneen Contractor

PHOTOGRAPH JOE DEANGELIS



Nazneen Contractor

생일: 8월 26일

출신지: 인도 뭄바이

사는 곳: 미국 로스앤젤레스

신체: 163cm

취미:

달리기, 요가

좋아하는 것:

여행, 오토바이

대표 작품:

〈24〉, 〈스타트렉 다크니스〉

출연하고 싶은 작품:

〈맨 오브 스틸〉 후속편

나즈نین과 친구가 되자:

twitter.com/MsNazContractor





인기 미드 <24>의 대통령 딸 '카일라 하산', <스타트렉 다크니스>의 '리마 헤어우드'. 어떤 역할로 기억하건 나즈닌 콘택터는 한 송이 라벤더 같은 은은한 매력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반갑다. MAXIM 화보를 찍은 소감은 어떤가?

떨리고 흥분된다. 꼭 한 번 MAXIM 화보에 나오고 싶었다! 드디어 내 버킷 리스트 하나를 달성했다.

요즘 당신은 연극,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불문하고 할리우드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연기를 시작한 이후로 J.J. 에이브럼스, 하워드 고든, 폴 레이저처럼 재능이 넘치고, 평소 존경하던 사람들과 작업하는 행운을 누렸다. 식구들도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응원해준다. 그 덕분에 이렇게 잘 풀린 것 같다.

<스타트렉> 시리즈에 합류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이제 당신은 전설의 일부가 되었다. 어떤 느낌이었나?

<스타트렉> 팬은 인도 발리우드 영화 팬 이상으로 열정적이다. 팬덤만큼이나 제작진, 출연진도 대단했다. 영화의 시리즈 첫 편에 참여한 배우와 감독이 그대라라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느낌이었다. 모두가

최고의 영화를 만들자는 목표에만 집중했다. 촬영은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했고, 모든 대본엔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다. 촬영이 끝나면 매일 밤 대본을 수거해갈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다. 세트장을 이동할 때도 은밀하게 움직였다. 심지어 출연진인 나조차 최근까지 내 캐릭터 이름을 몰랐을 정도다.

고향 인도에서 작품 활동을 할 계획이 있나?

인도에서 영화를 찍게 된다면 정말 기쁠 거다. 고향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늘 꿈꾸던 일이었으니까. 기회가 되면 날 나틴 무케시(인도 영화배우)와 작업하고 싶다. 그가 출연한 <조니 가다르(Johnny Gaddar)>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다. 영화 특유의 거친 분위기와 무케시의 강렬한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스타트렉> 같은 초대형 SF 영화와 스타일 넘치는 미드 <24>에도 출연했다. 본인은 어느 역에 더 끌리나?

어떤 캐릭터든, 어떤 세계의 사람이든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는 작업은 언제나 즐겁다. 나는 약점과 강점을 찾아 그 캐릭터가 관객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실 약역 연기를 더 좋아하긴 한다. 솔직히 말하면 사족을 못 쓴다. 나쁜 여자가 돼보고 싶다!

경찰 히어로와 스마트한 과학자, 만약 두 남자 캐릭터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쪽에 더 끌리나?

경찰관보다는 과학자에게 더 끌린다. 요즘은 똑똑한 사람이 힘센 사람보다 더 섹시한 시대다.

인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다양한 국적의 남자를 봤을 텐데, 그중 가장 나은 곳은? 국적에 상관없이 남자는 다 똑같다. 모두 다 사랑한다. 둘을 비교하거나 선입견을 가진 적은 없다.

연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신이 꿈꾸는 최고의 데이트는?

아침 일찍부터 함께 조깅을 한다. 뜨거운 온천물로 피로를 풀고, 오토바이를 타고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간다. 그리고 영화 한 편을 보고, 굴과 초밥이 있는 저녁을 먹는다!

당신에게 대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모 아니면 도' 스타일이다.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남자가 좋다. 여자라면 다 그럴걸?

본인 신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인가?

등이 예뻐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등이 깊이 파인 드레스를 여러 벌 가지고 있다. 레드 카펫 같은 공식 행사에 설 때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 MAXIM 독자들은 내 어디를 가장 좋아할지 궁금하다.

MAXIM과 또 촬영을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

로맨틱하고 정열적인 발리에서의 야외 촬영! 잘생긴 남자 스태프 몇 명이 촬영 장비를 들고 다닌다면 MAXIM과 함께하는 최고의 하루가 되겠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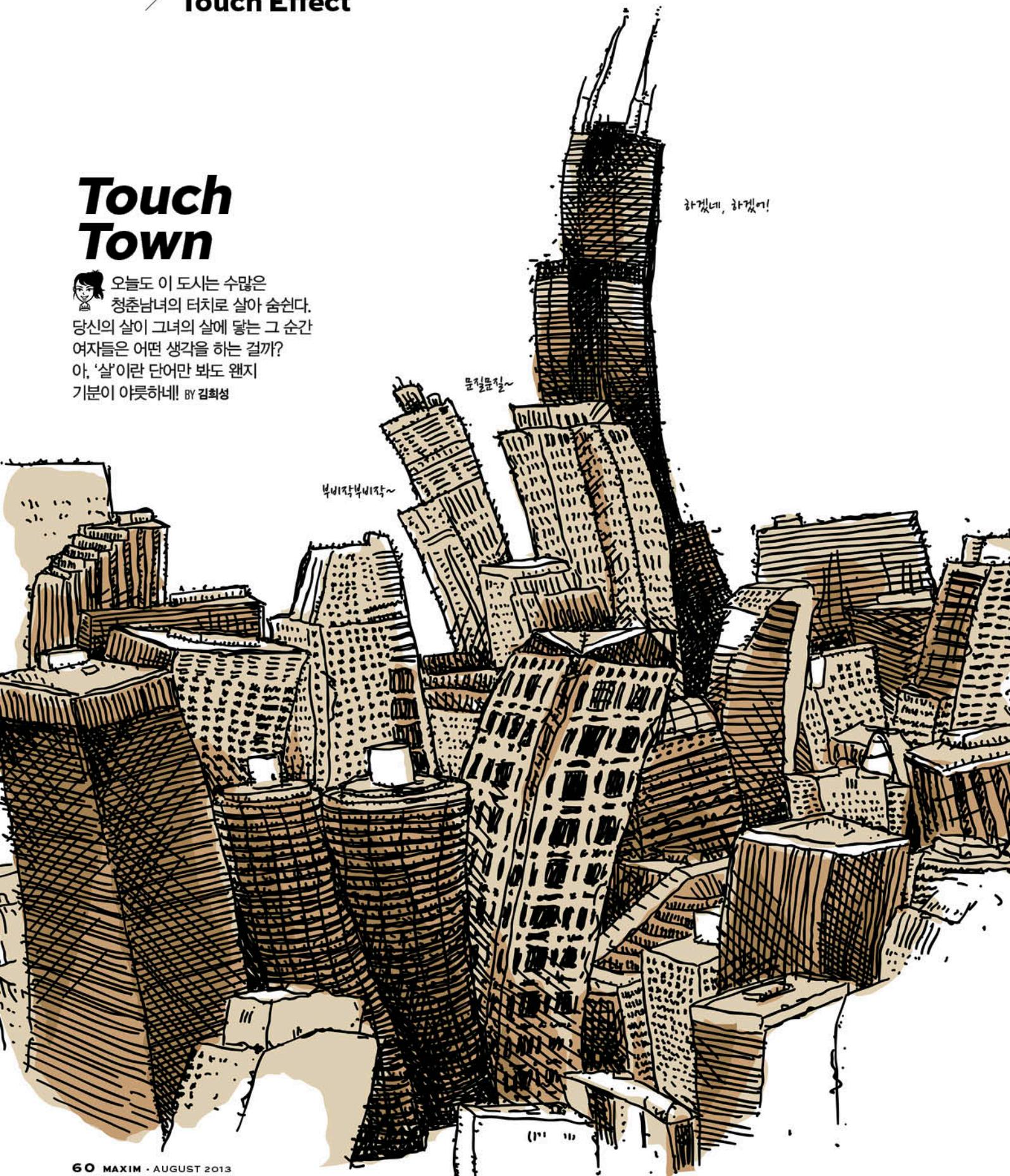
경찰보다는 과학자 타입의
남자에게 더 끌린다

”



Touch Town

 오늘도 이 도시는 수많은
청춘남녀의 터치로 살아 숨쉰다.
당신의 살이 그녀의 살에 닿는 그 순간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아, '살'이란 단어만 봐도 왠지
기분이 아릿하네! BY 김희성



1

요즘 좀 친해진 여자동료랑 지하철을 거의 매일 같이 타고 다녀요. 여름이 되면서 민소매 옷을 입으니 나란히 앉았을 때 팔이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매끈매끈한 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맨 살이 닿아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그녀도 그런 걸까요?

EDITOR'S COMMENT

그리고 보면 지하철은 썸남썸녀의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데이트 공간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앉는 의자에 칸막이도 없어 명확한 자리 경계가 없으니 팔이나 다리가 맞닿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깐요. 민소매 옷을 입은 그녀의 맨 살이 당신의 맨 살에 닿았을 때 그 말랑말랑한 생명체의 감촉은 당신을 황홀경으로 빠뜨렸을 겁니다. 게다가 날이 더워 땀이 살짝 나기라도 하면 끈끈끈한 느낌도 들었겠죠. 아마 당신은 그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하며 부드러운 생명체에서 살갗을 떼고 싶지 않아 짐짓 모르는 척 가만히 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떡하고요? 일단 남자의 팔이 닿으면 거칠면서도 까슬까슬한 물체가 확 스쳐지나가는 듯한 찌릿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팔을 황급히 빼거나 가만히 있거나 둘 중 하나의 리액션을 조건반사처럼 취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와 살이 닿았을 땐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곤 합니다. 팔이 닿는 것만으로도 떨리니까요. 그러니 그녀가 굳이 팔을 떼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건 당신에게 100% 호감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땐 꼭 평소보다 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있으니 '여자들은 살이 닿아 있는 걸 개의치 않아 하나 보다' 하셨나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 순간 여자도 당신과 닿아있는 그곳에 온 몸의 신경이 전부다 쏠려 있다는 걸요!

이럴 땐 그녀가 먼저 팔을 떼기 전까지 그 묘한 기분을 충분히 즐기면 하면 됩니다. 혹여나 그녀가 불쾌할까 싶어 혹은 점점 뜨끈뜨끈해지면 땀이 차오르는 것이 민망해 먼저 팔을 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팔을 떼버리면 '나와 팔이

닿는 게 싫은가 보다'며 섭섭해 하거나 상처 받기도 하거든요. 그녀도 당신과의 팔이 닿아 있는 이 시간이 최대한 오래가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묘한 감정을 그녀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러다가 그녀가 먼저 닿아있는 팔을 떼다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녀 또한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민망하고 부끄러워져서 그러는 거니까요. 확실한건 둘 중 누구도 팔을 떼지 않고 닿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녀와 섹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거죠.

2

몇 년째 친구로 지내던 여자사람 친구가 있는데, 애가 얼마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원래부터도 종종 같이 밥 먹으러 가거나 가끔 영화도 보고 했는데, 지난달 즈음 실수로 팔꿈치가 그 애 어깨에 닿았어요. 말랑하는 느낌에 깜짝 놀랐지만 사과하는 게 더 어색한 것 같아 못 느낀 척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팔이 실수로 그 친구 가슴에 닿는 일이 잦아지네요. 제 팔이 미친 건가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애는 그걸 모르는 거 같아요. 그냥 그쪽 신경이 둔한 건가요?

EDITOR'S COMMENT

요즘 들어 당신의 몸이 그녀의 몸에 자주 닿는다는 건 당신과 그녀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을수록 가까운 거리에서 걷게 되는 법이니까요. 행동반경이 가까워지니 팔이 자주 가슴에 닿는 것도 당연하죠. 당신의 팔이 미친 게 아닙니다. 동시에 여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도 내 가슴이 자기 팔이 닿았다는 걸 알까?'

대부분의 결론은 '휴, 다행히도 모르는 것 같다'는 쪽으로 납니다. 둘 다 말이죠. 가슴을 건드려 놓고도, 가슴을 터치 당하고도, 맘에 드는 상대를 굳이 민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모르는 척 태연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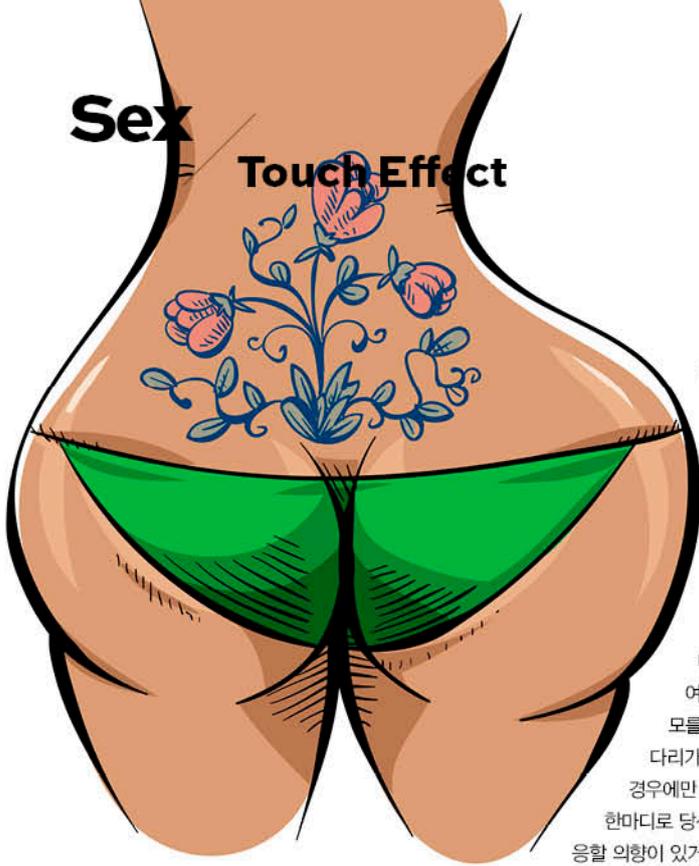


굴었던 서로의 연기에 둘 다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당신 다리 사이의 그곳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숨기도 1년 365일 예민한 감각대입니다. 터치 당했을 때 절대로 모르거나 둔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자의 손이 당신의 '그곳'을 실수로 톡 쳤는데 못 느끼고 지나갈 수 있나요? 여자들이 예상치 못한 숨가 어택을 당했을 때의 느낌은 그 때 당신의 주니어가 느꼈던 느낌 그 이상입니다. 관심없는 사람이 이런 부위를 건드리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반대로 남녀의 이런 부위는 자주 닿고 싶어지는 것 또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못 느낀 척 태연하게 굴면 우리도 애써 태연한 척 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어쭙잡은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상대방의 눈은 도저히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만약 상대방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다면 그냥 여기서 숨가 어택 사건은 종료될 겁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었던 남자라면 숨가 어택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전에는 없었던 호기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아, 이럴 땐 정말이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가슴에 팔이 닿았을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을지, 알았다면 느낌은 어땠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가끔 일부러 닿아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그럴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 신경 쓸 테니까요.



Sex

Touch Effect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가능한 일거든요. 슬까말 그가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거나, 자기 무릎에 앉혀 버린다 해도 피할 도리가 없잖아요. 여름이라 만약 당신까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면 지나갈 때 어쩔 수 없이 다리도 닿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이런 돌발 상황이 용납되며 다리가 닿아도 되는 남자일 경우에만 통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스칸십을 시도했을 때 응할 의향이 있거나 친도를 더 빼고 싶은 남자와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도 몰라주고

3

동호회 사람 중에 맘에 드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요, 입주일에 한 번 있는 동호회 활동 후에 매일 맥주 한 잔 하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술 마실 때 종종 테이블 안쪽에 앉아있던 그녀가 찢치름 입고 제 앞을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넘어가는데 완전 브라보였습니다. 지난 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매너 있게 일어나서 비켜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로는 그녀가 먼저 "잠깐 나가게 비켜줄래?"라고 물어봅니다. 왜죠?

EDITOR'S COMMENT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의자와 테이블

사이의 비좁은 통로를 비집고 나간다는 건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찢치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무방비 상태로 보여 준다는 건 어느



더 민망한 건 당신이 굳이 일어나 자리를 비켜줄 때입니다. 물론 당신은 짧은 치마를 입은 그녀가 민망할까봐 그랬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사심 없는 남자와 살갗이 닿는 것에 극도로 예민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일말의 감정도 없다면 "나 나갈건데 잠깐만 비켜줄래?"라고 대놓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당신 앞을 지나가는 그녀의 허리를 살짝 끌어당겨 당신의 다리 위에 앉혀도 괜찮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4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불살이 귀엽기도 하고 해서 저도 모르게 자주 볼을 꼬집는데요, 어느 날은 저한테 "왜 자주 볼을 잡냐"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동생 같아서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못하게 하네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EDITOR'S COMMENT

관심 있는 남자가 볼을 만지면 조런 당하듯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느낌, 보살핌 받는 느낌, 귀여움 받는 느낌 등 온갖 느낌적인 느낌이 다 더해져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연애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몇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순간을 반드시 순위권에 포함시킬 겁니다. 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네요. 그런데 이 복잡한 느낌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의 볼을 만지는 이유를 다양하게 추측하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볼을 꼬집었던 건지, 여자로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귀여운 동생으로만 느끼는 건지 그 간극에서 끝없이 헛갈려 합니다.

아마 당신은 그녀의 몸 다른 부위를 만졌만짓하고 싶은 욕정을 억누르고, 그 대체 장소로 가장 무난해 보이는 그녀의 볼을 택했을 겁니다. 호감이 있다고 허벅지나 엉덩이를 덤씩 잡을 순 없으니까요, 그런 당신의 욕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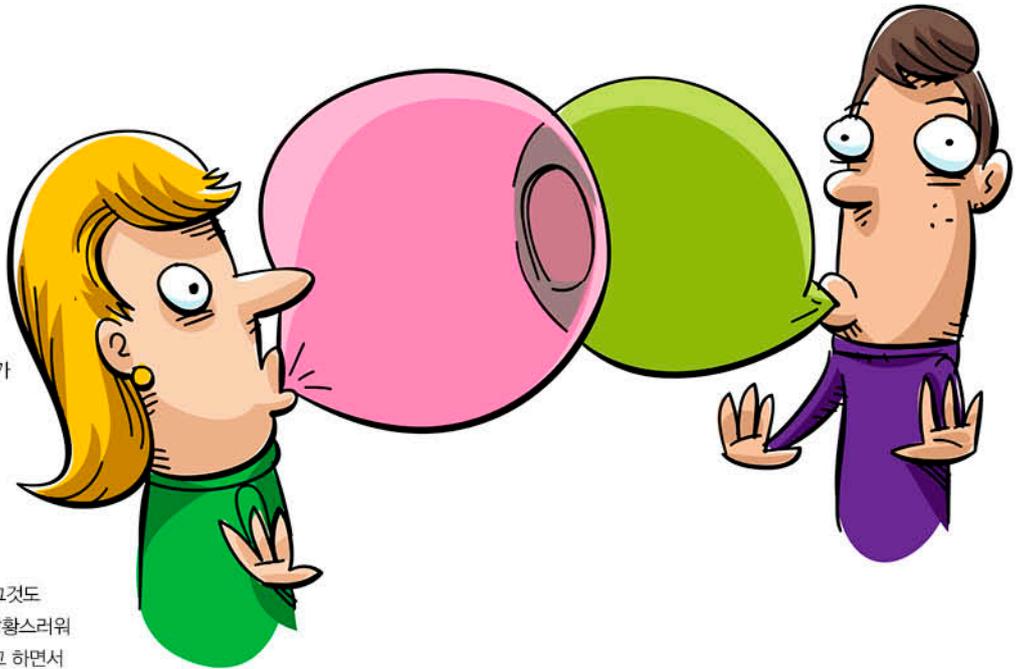
'잠시 화장실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적잖은 남자들이 '네 몸을 훑어보지 않겠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몸을 뒤로 젖힙니다. 쓸데없이 음탕한 남자로 오인받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당신처럼 나름 매너남으로 보이기 위해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던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소심해지는 여자의 입장에서 당신의 그 제스처가 '니 엉덩이 따위엔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뜻이 고개를 휙 돌리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당신은 갑자기 마주하게 된 그녀의 엉덩이에 정신이 아득해져 자신도 모르게 다소 과장된 행동을 한 것이었겠지만 여자들은 상당히 민망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황급히 통로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아, 당신에게는 그녀의 엉덩이를 감상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 거구요, 그리고 화장실에 간 그녀는 온갖 생각에 잠기죠. '역시 그는 내 짧은 치마 따위에 관심이 없어', '혼자 착각했네', '관심 없다는 티를 저렇게 대놓고 내다나', '내가 짧은 치마를 입고 눈앞을 지나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등등... 자리로 돌아온 그녀가 왜 정색했는지 이제 알겠죠?

들킬까봐 '왜 자꾸 내 볼을 꼬집어?' 라는 질문에 '동생 같아서', 그냥 귀여워서'라는 가장 무난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그 질문에서 기대하는 답변이 무엇이었을지 말입니다. 자신을 전혀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은 당신의 심플한 대답에 그녀는 좌절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여자가 아니라 동생으로만 보였다니!!!!' 하면서 당신을 향한 마음을 접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싸늘해진 그녀의 카톡에 당황스러워 하겠죠. 여자들은 왜 이리 변덕이 심하냐고 하면서 그녀를 욕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잠 못 이웠을 그녀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평생 살아갔겠죠. 애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물론 당신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볼을 만지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될까요. 말로 하는 게 쑥스러우니 비언어적 표현으로 당신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단, 가장 큰 혼란의 주범은 당신이 욕정을 들킬까봐 짓는 사심 없는 듯한 아빠 미소입니다. 에디터의 볼을 만졌던 남자들 중 80%도 아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미소만큼이나 우리 여자들은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죠. 오빠는 나를 아는 동생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상처 받기 전에 빨리 마음 접자... 아, 나머지 20%는 어땠냐고요? 손으로는 사랑스럽게 볼을 어루만지며 욕정 가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금 널 안고 싶어 미치겠지만 오늘은 참겠어' 같은 표정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애써 참는 듯한 그 모습에 여자들은 또 환상하는 법이죠.

5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다같이 한 명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 자리가 좁아서 어쩔 수 없이 몇몇은 포개져서 차를 타야 했는데요. 불행인지 행운인지 일행 중에 제가 맘에 들어하던



여자가 제 무릎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 주니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속으로 애국가도 부르고 아버지 생각도 했지만 물려드는 혈액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아 눈치챘겠죠? 여자들은 엉덩이에 깔고 앉은 물건들의 변화를 감지할 만큼 엉덩이가 예민한가요? (재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EDITOR'S COMMENT

재발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자의 엉덩이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훨씬 훨씬 더 예민합니다.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당신의 곤후에 물려드는 혈액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못 일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허튼 기대는 아예 하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엉덩이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다기도 당신의 물건을 통과하는 혈류량이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는 그 순간, 레드불 한 캔을 원샷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더 놀랄만한 사실 하나 말해줄까요? 굳이 당신의 다리 위에 앉지 않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엉덩이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클럽에서 춤 출 때 엉덩이를 스쳐 지나가는 곤후가

선 곤후인지 안 선 곤후인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땀인 것 같죠? 근데 땀 하나도 안 보낸 거예요. 아, 근데 남자 허벅지 위에 앉는다는 거 보기엔 편해 보이지만 사실 진짜 불편합니다. 혹시 몸무게가 많이 나가 보일까봐 체중의 30%는 투명 의자를 한채 두 다리에 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녀가 "나 무겁지?"라고 물었을 때, 진짜로 별로 안 무거웠다면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응하는 주니어 때문에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다리는 쥐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 고통까지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당신의 다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나요? 당신의 그곳이 단단해졌다는 걸 일면서도 서둘러 일어나지 않고 모르는 척 앉아 있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나요? 기왕 들킨 거 당신의 마음까지 화끈하게 들켜 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For Ladies

나도 좀 먹자. 응?

남자가 말한다 필살! 남의 남자 뺏는 법!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조용히 살금살금 골키퍼 쫓아내는 방법을 전수해준다.
조강지처 버리고 서큐버스에게 갔다가 피 쪽쪽 빨려본
에디터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오는 소리다. BY 조용재

→ 여유 있는 남자가 맛있는 법
임자 있는 남자에게 당신이 매력울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흔히들 불륜소재로 많이 쓰는 구도가 '유부남과 미혼녀' 아니던가. 오랜 시간 연애를 해온 남자는 매력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정적인 연애를 해온 남자는 이성 문제로 크게 흔들리는 법이 없으며, 애정 결핍증 환자처럼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대범함도 갖췄다. 한 여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 단연컨대, 임자 있는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남자다.

타게팅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자. 당신은 그를 그녀에게서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그의 눈에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자가 자주 눈에 비치는 이성을 알아보듯, 남자 역시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여자보다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한다. 반면에 있는 사이라면 같은 수업을 듣는단지도 같은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해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 두세 번 이상 당신의 얼굴을 봤다면 이미 그는 당신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거다. 언젠가 옆자리에 앉아 간단히 말을 걸어보자. "죄송한데, 지금 몇 시예요?" "이거 저만 재미없는 건가요?" 같은 가벼운 질문이나 농담도 좋으니가 말이다. 일단 말을 건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다음에 마주쳤을 때, "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니가. 혹시나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껏해야 '성격이 활발한 친구네' 정도로 생각할 거다. 물론 이미 서로 아는 사이 혹은 친구 관계라면 이런 번거로운 수고는 아예 덜어버리고 다음 단계부터 시작한다.

전담 마크
전 단계에서 이미 서로의 관계를 꽤 친밀하게 만들어두었다는 전제하에 전담 수비로 들어가자. 이미 당신은 그가 여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와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그가 여친을 만나는 패턴을 대충 파악할 수 있다. 매일 만나러 간다는 짜증나는 여친 호구 새끼도 있겠지만, 집이 멀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거리가 타입도 있다. 아싸! 어찌 됐건 수감 신청 시간표 짜듯 머릿속에 박아두고 그에게 둘만의 시간을 제안해보자. "끝나고 뭐 하나? 영화 볼래? 나 심심해"라고 무심한 듯 얘기하자. 만약 그가 두세 번 당신의 제안을 쿨하게 받아들인다면 기쁨의 미소를 지어주어 좋다. 일단 떡밥은 문 셈이니가. 물론 이 단계에서 남자가 당신을 따라주는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일 거다. 아무렇지 않게 당신의 쇼핑을 따라다니며 두리번거리고, 옆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사실 당신에게 아직까지는 큰 감정이 없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언제부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가 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일상처럼 되었다면,

별망의 게임은 이미 시작된 거다. 그는 지금 당신이 파 놓은 개미지옥으로 빠져들고 있으니가 말이다.

스킨십
사귀는 사이가 아닌 남녀 관계에서 스킨십은 무시할 수 없는 친근함의 표현이다. 그 뿐 아니라 여자가 상상하는 것보다 남자는 여자의 스킨십에 민감하다. 당신이 그저 '편한 상대'로 생각해서 남자를 때리거나 꼬집거나 비틀거나 스펀킹을 해도 남자는 그것을 일종의 '터치'로 받아들이 가능성이 크다. 남자들은 여자의 몸에 자신의 몸이 닿는 것에 묘한 느낌을 받는다. 여자친구 몸만 쪼물딱거리던 남자의 억압된 시야가 조금 더 확장되는 순간이 온 거다. 내 것을 두고 다른 물건에 손대는 죄책감과 묘한 흥분은 생각만큼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러다 당신이 애안놀이라도 한담시고 팔짱이라도 껴다간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다. 상대가 조심스러운 남자라면 술 먹고 사고치겠다는 당신의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무서운 것이 계단 밟고 올라가듯 차근차근 진행되는 스킨십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당신이 갑자기 '여자'로 보이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썸녀 중에서는 생일 이벤트랍시고 내 팔에 수갑을 채우고 안대를 채우더니 교실에 생일 촛불을 켜놓고 나를 질질 끌고 가던 여자가 있었다. S기가 다분한 그녀는 그렇게 둘만 남은 빈 교실에서 내

복부를 후려치더니 핵핵대는 나에게 관찮으나며
인공호흡을 빌미로 내 입을 덮었다. 이런 병신 같은
어거지가 어디 있네! 물론 그때는 존나 좋아 죽을 것
같았지만 말이다.

가벼운 심리전

전 단계인 육탄전을 거쳐 남자가 당신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늦출 때에는 심리전을 펼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시달잡은
얘기를 하다가도 “여친이랑은 잘 지내?”라고 무심코
물어보자.

“응, 잘 지내!”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남 얘기하듯
“그래, 있을 때 질해라!”라며 쿨하게 조언을 해 주자.
남자는 ‘뭐 어쩌라고’ 하는 표정으로 시달잡게 넘어갈
거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며 아쉬워하고 있다.
만약 “아니, 요즘 안 좋아!”라는 대답이 나와도
기다렸다는 듯이 “왜? 무슨 일인데!” 하고 반색하지는
말자. 역시나 이번에도 묵묵하게 무관심한 척
넘어가면 된다. 대신 “혹시 헤어져도 내가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툭툭 던져 주자.
아마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뭔 개소리냐”며 실소를
지을 거다. 이런 반응에 서운해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그가 요즘 여친과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신이니깐.

심화된 심리전

앞에서 펼친 심리전이 봉오동 전투라면 이번엔
들어갈 심리전은 청산리 대첩이다. 매번 우려먹는
얘기지만 섹스 얘기를 하는 남 녀는 그러지 않는
남 녀보다 묘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니 여친은 잘해?” 이만 걸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다. 섹스 이야기라기보다는 ‘어필’에
가까운 농담을 던져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자. 예컨대

“내 친구들이 내 엉덩이 보고 복숭아 같다며 엄청
부러워했어!”라든가 “가슴이 너무 커서 무거워 죽겠어”
같은 얘기 말이다. 순간 남자의 눈은 투시 카메라가
되어 당신을 힐끔힐끔 스캔하기 시작할 거다. 물론
그게 사실이든 구라든 상관없다. 우주 삼라만상보다
여체에 더 무한한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은 그런
자극적인 농담에 반응 안 하는 척하면서도 무척이나
신경 쓴다. 아마 그날 이후로 복숭아를 볼 때마다
당신을 연상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의 육체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건, 당신과 조금 더 아련한
관계를 원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욕망과
파멸의 종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순간이다.

마무리

최근 소개팅을 했다거나 관심남이 생겼다는 얘기를
남자에게 어필하자.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더 좋다. 혹시 그의 골킥에서 아주 작은
움짤거림이나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캐치했다면
제대로 한 방 먹인 거다. 남자는 분명 여자친구가
있다. 최근 당신 때문에 조금 소홀해진 감이 없지
않다. 가끔씩 당신과 한 약속 때문에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여자친구보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다. 여자친구보다
당신을 보면 더 두근거린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남자가 생겼단데! 아... 어떡하지? 멘붕이 오기
시작한다. 당신이 카톡을 보며 즐거워하면 짜증이
몰려 온다. 사귀는 것도 아니었는데 웬지 자신이
버림받은 느낌이다.
이제 그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명골킥퍼를 다시 예전처럼 띄워주는 것. 아니면
당신을 영입하기 위해 골킥퍼를 퇴출시키는 것.
잠깐 동안은 ‘그래, 질된 거야’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르는
사이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당신에게 길들여졌다.

남자를 흘릴 상은 따로 있으니...

자, 어서 거울을 보자.

눈썹이 술이 적고 중앙이 쑥 올라가 있다

눈썹이 일자가 아니라 반달
모양일수록 색에 강하다.
반대로 일자 눈썹의 경우 기교가
없고 감성적인 성격으로 재미가 없다.



눈꼬리에 주름이 있고 흰자위가 많다

흔히 말하는 심백안으로,
순간적으로 남자를 바꾸려는
편력이 심하다. 잠깐 서로
즐거기엔 적당하나 사이가 깊어질수록
피곤해지는 타입.



미간이 넓고 코가 낮다

콧등이 필요 이상으로 낮으면
정조가 부족하여 유혹에 약해
다른 남자에게 쉽게 빠져드는
타입.



입술이 동글고 두텁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아랫입술이 역삼각형, 윗입술
중앙이 꼭지처럼 볼록하면
색을 매우 밝혀 남자를 흥롱
보내는 상이라고.



24시간 언제든 당신이 목마르다면 삼다수를 퍼다
바치고, 배고프다면 라면을 끓여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아무리 조강지처가 좋지만, 한 번
새 장가 든 짜릿한 기분을 맛본 그는 쉽게 당신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가짜 썸남을 걷어차고 또다시
그를 달달 북으며 그와 전보다 더 가까워지자. 아마
그는 당신을 또다시 놓치는 더러운 기분을 느끼기
싫어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안녕, 오랜 내
연인이여.” 이쯤 되면 당신은 딜레마에 빠질 거다.
사실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와는 이미 어느
정도 적당히 재미를 봤다. 그런데 이 새끼가 여친을
걷어차고 나한테 마구 달려든다. 몹시 병신 같다. 그를
쟁취하는 것도, 영원히 병신으로 만드는 것도 내 손에
달려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일어서 하도록 하자.
참고로 조강지처 버린 남자는 쉽게 믿는 거 아니라
했다. 🍷

Game

CHARACTER OF
THE MONTH

여친 자취방보다 편한 온라인 판타지 <신의 대륙>



밥 해주는 것도 모자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주네.
이것이 날로 먹는 정통 판타지. BY 조용재

→ 신의 대륙

'편하게 즐기는 MMORPG'를 표방하는 <신의 대륙>은 몰약 빨기도 어려운 요즘 온라인 MMORPG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갈긴 게임이다.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백과사전 시스템'은 유저들이 홈페이지를 여친 자취방처럼 들락거리며 구멍 난 콘돔 같은 쓰레기 정보를 읽는 수고를 덜어주었다. 그뿐 아니라 매일이 생일인 양 일정 레벨마다 아이템을 퍼주는 '아이템 자원 시스템'과 고렙 등짜에 붙어 피를 쪽쪽 빼는 '사제(라 쓰고 합법적 거머리라 읽는) 시스템' 등 프렘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으니, "게임은 하다 빠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바른 생각을 가진 유저들이라면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하다.



PLAYABLE CHARACTERS



→ 드워프

'김리'로 유명한 난쟁이 종자루족. 도끼가 아닌 화총을 들고 총잡이가 되어 설치는 모습이 색다르다. 김골라스?!



→ 인간

적응력이 좋으며 리더십이 뛰어난 종족으로 그려진다. 뭔가 이상하지만 우리 얘기 맞다. 역시나 특출한 능력보다는 평균적인 외모와 위력을 지니고 있다.



→ 뱀파이어

말 그대로 피를 보면 환장하는 종족. '뱀파이어 +여성 캐릭터'라는 조합이 섹시한데, 유일하게 '블러드서커'라는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 여자에게 서커라니, 허허, 참.



→ 타이탄

피부가 돌로 만들어진 최강의 방어형 종족. 이름만 들어도 영통이 쫓기해지는 '가디언'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 웬지 현실은 뽀뽀 아닐까 싶지만 말이다.



→ 엘프

그냥 예쁜 것도 모자라 섹시하다. 뱀파이어가 아이비라면 엘프는 강민경이랄까. 청순한 외모답게 음악이나 마법을 무기로 사용하며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종족이다.

제작사	원미세계
플랫폼	온라인
장르	판타지 MMORPG
유통사	NGL
서비스	OBT (오픈 베타 서비스) 중

〈신의 대륙〉
맞보기!





Distopia to Play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하물며 게임 속에서도 개똥망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당신의 플레이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BY 덕사마



1 Watch Dogs

장르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플랫폼 PS3, XBOX360, PC



〈와치 도그〉는 테크놀로지 파워로 무장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삼는 오픈 월드(당신 골리는 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세상) 게임의 끝판왕이다.

한마디로 테크노 스타일의 〈GTA〉라 하겠다. 현실에서 짜리 취급받는 당신이지만, 이곳에서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컴퓨터가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하는 도시를 상대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미션도 멋지게 성공시켜야 한다.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바꿔보라. 동네 PC방의 전원만 잠시 차단해도 사람들의 폭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데, 하물며 컴퓨터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도시라면? 정말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질 거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심장이 풀깃할 만큼 자극적인 일거리가 넘쳐난다는 얘기다. 어때? 신날 것 같지 않아?

2 Star Wars 1313

장르 액션 어드벤처
플랫폼 PS3, XBOX360, PC



〈스타워즈〉 덕후인가? 그렇다면 이 게임을 찬양하라! 〈스타워즈〉 덕후가 아닌가? 그래도 이 게임을 찬양하라! 리들리 스콧 감독의 불후의 명작

〈블레이드 러너〉를 연상시키는 멋진 비주얼, 여기에 "꿈도 희망도 없어!"라고 외치고 싶은 만큼 꿀꿀한 우주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런 〈스타워즈〉의 세상을 어디 감히 상상이라도 해봤나?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지릴 판이다. 이 게임 제목에 붙은 숫자는 '구역'을 의미하는데 우주의 낙오자, 그저 자기 뱃속만 채우고자 하는 양아치들이 모인 곳 등을 다양하게 구분해놓았다. 게임 속이라고 지긋지긋한 현실 세상과 정반대의 판타지가 펼쳐질 거라 생각했다면 짐어 치워라. 그런 말랑말랑한 생각으로는 이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멘탈이 붕괴해 멘탈까지 뚫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럼 너무 슬프잖아?

3 Remember Me

장르 액션 어드벤처
플랫폼 PS3, XBOX360, PC



〈리멤버 미〉는 기계를 통해 인간의 기억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된 미래에서 남의 기억을 훔치고 조종하는 '메모리 헌터'인 주인공 닐린이

남의 기억을 파는 악덕 기업 '메모라이즈'에 대항해 싸워 나가는 이야기다. 현실에서든, 게임에서든 미래를 입맛대로 바꾼다는 건 그저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는 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가 전부인 당신을 사랑해주는 고마운 연인을 모종의 이유로 죽여야 한다고 가정하자. 레몽처럼 쿨한 살인 청부업자라도 똥꼬가 아릴 거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기억을 조작해 그녀를 '죽도록 미운 상사'로 인식하게 한다면? 그녀에게 총을 겨누는 건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현실에서나, 게임에서나 말이다.

RED-HOT! White & Blue



우리 조상들이 대한 독립으로 자유를 얻었듯, MAXIM 역시 후끈한
미녀를 다섯 명이나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만세!

BY STEPHANIE RADVAN PHOTOGRAPH MARLEY KATE









데이지 미체슨

아폴로, 펜실베이니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보통 무엇을 하고 지내는가?
가족들과 바닷가에 가서 불꽃놀이를 하며 논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누구와 단 둘이 파티를 하고 싶은가?
조지 워싱턴. 술에 잔뜩 취하면 그가 자기 가발을 써 보게 해주지도 모르잖아?

휴가로 누드비치에 가면 벗을 수 있나?
벗을지 말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꼭 한 번 가 보고는 싶다.

여름 노래 플레이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가수가 있다면?
왠지 모르게 여름철에는 컨트리 음악이 땡긴다. '케니 치스나'나 '블레이크 셸튼' 같은 뮤지션들의 노래 말이다.

미국 여행 중 꼭 들려야 하는 여행지를 추천해 보자.
이번 여름에 나 역시 국내(미국 횡단) 여행을 할 예정이다. 중서부 지역에 들려 별을 보며 캠핑을 하고 싶다.



브리트니 앨저

빌록시, 미시시피

독립기념일에 했던 일 중 가장 미친 짓은 뭐였나?
고등학교 때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 중 하나가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다치지지는 않았다. 완전 웃겼다!

역대 대통령 중 단 둘이 파티를 하고 싶은 사람을 한 명 꼽자면?
빌 클린턴. 근데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다음으로 함께 하고픈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근데 왠지 엄청 무서운 사람일 것 같다.

여름에 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빌록시에 있는 하드록 카지노 호텔에서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곳에서 일을 했다. 나는 그 때 카바나(원두막)를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 막 개장했을 때라 많은 아티스트들이 방문했다. 완전 놀면서 돈을 번 셈이다.

여름 바비큐 파티에서 빠져선 안 될 것들이 있다면?
햄버거나 핫도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닭고기가 있어야 한다. 한 손에는 잭 다니엘, 다른 쪽 손에는 다이어트 콜라를 쥐고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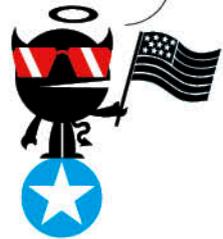
비키니
American Apparel



비키니 상의
Calhoun
하의
Inca



그거 벗어서 이리 주세요.
국기 게양합니다.



브리트니 클레이즈

코너어스, 조지아

여름 바비큐 파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친구, 가족, 그리고 애플파이. 거기에 달빛이 있다면 금상첨화지.

독립기념일에 했던 가장 미친 짓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호수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독립기념일을 병원에서 보냈다. 내 다리가 머리를 넘어 몸통 뒤로 가 있더라! 등 근육 전체에 심한 무리가 가서 2주 동안 걸을 수 없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좋나 아가지기한 폭죽이 좋나?

당연히 불꽃놀이이지. 제대로 파티를 즐기려면 뱅뱅 터지는 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

피부를 가장 심하게 태웠을 때는 언제인가?

술을 몇 잔 마시고 잔디에 누워 잠든 적이 있다. 자고 일어나니 한 쪽은 완전 빨갛게 그을렸고 다른 쪽은 완전 창백했다.

여름이 오면 꼭 듣는 음악이 있다면?

루크 브라이언의 〈Talegates & Tanlines〉, 컨트리 뮤직이다!

탱크톱
American Apparel
비키니 하의
Tori Praver

비키니 상의
Gober
비키니 하의
L*Space



세넨 아힐케

워커, 미네소타

여름에 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 티키 바 (아국적인 칵테일 바)에서 일한 적이 있다. 미네소타에는 티키 바가 적어서, 그 곳은 완벽한 핫 플레이스였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섹시한 사람은?

존 F. 케네디가 역시 가장 섹시하지. 마릴린 먼로가 쫓아다닐 정도였으면 확실히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나?

한 번에 몇 개의 핫도그를 먹을 수 있나?

다섯 개는 먹을 수 있다. 사이드 메뉴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사실 난 완전 먹보다.

살면서 역대 최악의 태닝을 한 기억이 있다면?

여름에 승마를 하고 했는데, 청바지에 아주 작은 탱크톱을 입었다. 물론 좋은 생각은 아니었다. 태닝 자국이 농부 런닝 셔츠처럼 남았거든...

여름이 오면 꼭 듣는 노래가 있나?

지미 버핏의 〈Margaritaville〉!



메이라 티나제로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환상적인 바비큐 파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텍사스식 BBQ, 맥주, 불꽃놀이, 워터
슬라이드

여름에 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고등학교 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작은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10대를 고용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일하는 곳이라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미국 여행을 할 때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다면?

9.11 기념관 뉴욕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가봐라

한 번에 핫도그를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

손바닥 만한 핫도그를 말하는 거면
한 개? 그것도 구운 양파와 할라피뇨,
케첩, 머스타드 소스를 얹은 거라면
말이다. 핫도그를 먹을 때 케첩만 뿌려
먹으면 섭섭하니까.

누드비치에 가면 벗을 수 있나?

당연하지! 누드비치는 끝내주는
곳이다. 하지만 변태를 조심해야 된다.
한 번은 막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와 췌서 감사하다'고 하더라.



비키니 상의
American Apparel
비키니 하의
Calhoun



Stuff

GEAR OF THE MONTH

에이서 아스파이어 P3

잘빠진 태블릿 엄마와 건장한 울트라북
아빠 사이에서 탄생한 사기급 아새끼 BY 조용재

→ 한동안 스마트폰 하나에 목숨 걸며 “세상 참 좋아졌다”고 감탄하던 시절이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마고치를 일인 양 품던 기억처럼 내게 첫 스마트폰은 첫 경험만큼 특별했다. 몇 년을 그렇게 기계의 노예로 살다 보니 3년 사근 여친을 대하듯 애정이 시들해지고 다시 한 번 본격적인 뽀뿌가 오기 시작했다. 아이폰이었다. 아사미 유마의 힙 라인처럼 질빠진 곡선을 자랑하는 최첨단 기기에 끌려갔던 나는 당시 가진 인턴 월급을 죄다 쏟아부을까도 고민했지만, 수년간 윈도의 노예로 살아온 이상 iOS에 손을 뻗는 것은 단골 국밥집을 버리고 신생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것만큼 대단한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낫 놓고 있던 얼마 전, 울트라북과 태블릿을 합친 형태의 컨버터블 PC를 에이서에서 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구경이라도 해봐야겠다며 김밥천국에서 돈가스 주문하듯 서둘러 테스터를 자청했다. 얼마 후 물건이 들어왔다. 명품 지갑 같은 감성 가죽 커버와 은갈치 정장처럼 빛나는 보디에 매료된 나는 그렇게 P3와 사랑에

빠졌다. 회사에서 마우스로만 사용하던 윈도8의 터치스크린 모드에 감탄하며 HD급 화질을 감상할 겸 다운로드한 영화를 재생했다. 헤드폰을 꽂으면 돌비 홈시어터 V4를 지원하는 풍부한 사운드가 귀를 적신다. ‘울트라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3세대 인텔코어 i5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끊임 없는 1,600x900해상도의 HD 화면이 한눈에 들어오자 입에서 감탄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동안 “갤럭시S2는 아직도 현역!”이라며 설레발치던 내 모습이 마치 단발령에 상투를 자른 선비처럼 부끄러워졌다. 이런 내가 과연 신제품 기사를 쓸 만한 에디터의 모습인가. 테스트를 마치고 P3를 에이서 본사에 다시 보내주려니 마음이 쓰리다. 1.5kg의 가벼운 무게가 더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얼마 전에 산 2.5kg짜리 노트북이 담긴 가방이 오늘따라 더 무겁다. ☹





POINT 1.

최고급 소가죽은 아니지만, 충분히 고급스러운 인조가죽으로 만든 커버가 멋들어진다. 가운데에 접이식 홈을 파놓아 본체를 세워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잡았다 폼다
누웠다 섰다!



Spec Check

- 입력 방식**
10 포인트 터치 스크린
치클릿 키보드
- 사양**
3세대 인텔 코어
i5-3339Y 프로세서
2GB DDR3 메모리,
120GB SSD
- 운영체제**
Windows 8
- 사운드**
돌비 홈시어터 V4
스테레오 스피커
- 카메라**
후면 500만 화소
전면 100만 화소 HD 카메라
- 기타**
USB 3.0
마이크로 HDMI
블루투스 4.0 지원
- 가격**
119만 9천 원

POINT 2.

기존 노트북을 쓰다 조막만한 자판 때문에 백진 사람이라면 아스피어 P3의 풀 사이즈 치클릿 키보드가 무척 마음에 들 거다. 키 간격이 확실해 손의 피로를 줄여주며 오타율이 낮고, 무엇보다 소리가 찰시다. 찰! 찰! 찰!

어우, 냄새...

그거 왜 샀어? #10

이번 달에도 질러댄 물건이 산더미인 편집부. 에디터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져만 가고 할 말은 많아진다.

BY / MODEL 손안나



CASANOVA Pheromone
11번가에서 40mL,
23,500원에 구매

CASANOVA Pheromone

편집장님, 웬 향수예요?

'이성을 유혹하는 페로몬 향수'가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사봤지. 나는 남녀상열 기사에 늘 혼신의 노력을 쏟는 MAXIM의 편집장 이니까.

그러니까 이 향수로 이성을 유혹해보려고 사신 거네요?

어헤! 이걸로 '페로몬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각종 홍보 글이 뺀인지' 확인하는 진지한 실험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지. 에디터들에게 편집장으로서는 스스로 몸을 던지는 모범을 보여서... 음... 어... 아무튼, 절대 내 일신의 행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산 게 아니었다고!

이런 물건(?)을 구입한 걸 엄마한테 들킨다면 어쩐지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부류(?)의 제품답게 아주 꼼꼼 포장해서 누가 뭘 샀는지 모르게끔 보내주거든. 박스에 내용물 표기도 없어서 내가 페로몬 향수를 샀는지, 평소처럼 피규어를 질렀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하하하, 이렇게 말하니까 뭐 마약이라도 산 것 같네.

쿵쿵... 좋은데요?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남자 스태프들한테 실험해봤는데 반응이 열광적이었어요. '살 냄새'라며 다들 환장하던데...

이 냄새가 좋아? 정말? 이건 그냥 암내를 액화해서 병에 담은 것뿐이야! 포장을 뜯자마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원.

페로몬에 끌리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아예 반응을 안 하는 사람 등의 개인차가 있다는 속설도 있잖아요.

아마도 나는 여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간인가봐. 두껍을 열기도 전에 진한 암내 비슷한 냄새를 맡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 하지만 이걸 뿌렸을 때 이성(異性)의 존재들이 이성

(理性)을 잃고 나에게 텍사스 벌판의 소떼처럼 몰려온다면, 이 향수의 효용이 있다는 얘기니까 꼭 참고 다음 날 출근할 때 살짝 뿌려놔지. 그렇지만 내 사무실에 들어오는 직원 수가 갑자기 증가하지도 않았고, 쓸데없이 비벼대고 몸을 꼬거나 끈적끈적한 시선을 보내는 놈도 없었지. 그저 평소처럼 다들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

웅재 씨는 "엄마들한테 나는 약간 달달하고 진한 화장품 향기 같아서 싫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럼 웅재는 내가 이거 뿌리고 왔을 때... 아아, 왠지 기분이 더 나쁘다야아... 그나저나 이 페로몬 향수에 대한 반응이 이리도 엇갈리다니! 하긴 뭐 어떤 향기에 끌리는지는 아주 주관적인 거니까. 안 되겠다. 더 다양한 실험 사례를 모아야 해. 마감이고 뭐고 일단 이걸 뿌리고 지금 자리를 박차고 흥대 거리로 나가봐야겠어.

퍼... 편집장님, 어디 가세요!

LG 프린터 마하젯 LPP6020N



회성 선배! 선배네 편집 1팀 프린터가 바뀌었네요?



응, 그동안 우리 팀에서 사용하던 잉크젯 프린터가 잔고장이 심해서 팀 예산으로 하나 샀어. 후후.



근데 레이저 프린터가 아니라 잉크젯이네요? 왜 또 잉크젯을 샀어요?



사실 예전에 쓰던 잉크젯의 느려진 출력 속도에 질려버린 터라 이번에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리라 마음먹었는데... 얼마 전, 안나 씨가 편집 2팀 레이저 프린터 토너가 바닥났으며 꺼내서 쉐킷쉐킷 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대참사가 있었잖아.



네, 그 덕에 새로 산 흰 샌들이 검정 고무신이 됐죠.



그걸 보니까 아, 그냥 잉크젯으로 가야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잉크젯 프린터를 찾다가 발견해낸 게 바로 이 모델이었어. 심지어 레이저보다 빠르다니까?



오, 신기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알고 보니 일반 잉크젯처럼 헤드가 좌우로 움직이며 붓처럼 그림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종이가 지나가면 잉크를 분사하는 방식이더라고. 차가 자동세차기 안을 지나가듯이 말이야. 짹, 짹, 짹.



써보니까 어때세요?



빠른 것만 빠면 전부 다 단점이야. 잔고장이 워낙 심해서 A/S도 여러 번 받았어. 그때마다 서비스 기사님이 이건 프린터 문제가 아니라 회사 네트워크 문제라는 모호한 말만 늘어놓고 가시더라고, 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다른 팀 프린터기는 멀쩡한데 말이야.



잉크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응,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어지간한 프린터라면 꼬떡없는 갱지 프린팅에도 버벅거리고, 4색 잉크값이 무려 30만 원이나 한다니까? 한마디로 우리 팀 예산을 쪽쪽 빨아 먹는 모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 구입할 때 동봉된 잉크 용량도 대리점에서 파는 잉크에 반밖에 안 되더라고, 완전 치사해.

ACTTO 알무선 광 마우스 MSC-117
텐바이텐에서 28,000원에 구매



LG 프린터 마하젯 LPP6020N
11번가에서
33만 6천 100원에 구매

ACTTO 알무선 광 마우스 MSC-117 vs. iBUFFALO BSMBW03 BlueLED

어흥!

iBUFFALO BSMBW03
BlueLED
동교동 하이마트에서
30,000원에 구매



마우스 vs. 마우스



나도 마우스 샀는데, 웬재 씨도 하나 질렀구나?



내가 지난 달에 레노버 노트북을 샀잖아. 얼마 전, 그걸로 카페에서 된장질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치렁치렁한 유선 마우스선에 유리잔이 걸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프론트 사이드 180도 킥플립을 시전하며 쏟아지는 일이 있었지. 그 길로 동교동 하이마트에 가서 마우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이 녀석을 발견했어.



왜 이 마우스를 고른 건데?



iBUFFALO라는 브랜드가 다소 생소했지만 어쩐지 "내가 바로 인체공학이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 디자인에 끌렸다고나 할까? 안나 씨 마우스는 무슨 무당벌레 같이 생겼는데? 나라면 그런 건 쥐도 안 썼을 거야.



무당벌레라니... 딱정벌레라고, 폭스바겐 비를 같은! 처음에는 디자인에 끌려서 샀는데, 지금은 정말 갖다 버리고 싶어. 분명 '하루 8시간 연속 사용 시 3개월 간 사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배터리가 한 달도 채 안 가는 것 같아. 그 덕분에 집에 AAA 사이즈 배터리를 몇 통이나 사다 날랐는지... 건전지 가격이 하도 나가서 마우스를 새로 하나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니까?

Editor's Burning Cash



TISSOT PRC 200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50만 원에 저름

안 쓸 때는 배터리 절약 차원에서 리시버를 따로 빼두면 되지 않나?

건전지 뚜껑을 열면 리시버를 보관하는 공간이 따로 있긴 한데, 절대 쓰면 안 돼. 한 번 끼면 절대 빠지지 않는 마법 같은 구멍이거든. 지난 번에도 핀셋으로 겨우 빼냈어. 요샌 귀찮아서 그냥 본체에 꽂아둬. 그러다 보니 배터리라는 점점 더 빨리 닳고... 웅재 씨 마우스는 어때?

가끔 커서가 각기 춤을 추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어느 때는 화면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텔레포트를 하기도 하고, USB 포트의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아. 그래도 그림감은 훌륭해. 손에 착 감기는 것이 마치 꼭 찬 75-B 사이즈 습가를 쥐고 있는 느낌이랄까?

어? 이건 LED가 푸른색이네? 내겐 빨간색인데...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푸른색 LED가 기존의 빨간색보다 감도가 더 높다더라. DPI도 1,200으로 저가형 제품치고는 괜찮은 편이야.

흠, 그래도 내 것은 DPI도 500에서 1,750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의외로 이 딱정벌레 등짝도 그림감이 나쁘지 않아. 예너자이저를 산처럼 쌓아두고 사는 건전지 부자예겐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야.

내 마우스는 장시간 마우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아마 이 녀석을 쓰다가 다른 마우스로 갈아타면 살을 10kg 빼고 온 여자 친구의 습가를 잡는 것 같은 크나큰 상실감을 느끼고 말 거야.

넌 항상 모든 걸 여자 가슴에 비유하더라.

TISSOT PRC 200

승민 선배, 시계 샀네요? 어쩐지... 이거 보여주려고 요새 자주 셔츠를 걸쳐 입은 거였어요? 선배가 무슨 류시원도 아니고...

당연히 자랑해야지. '티쏘'는 남자의 허영과 현실적인 가격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브랜드야. 허영 쫓지만 비싸 보이는 '홍콩 명품 거스름 급 태그호이어' 같은 거 차면서 걸릴까 봐 마음 졸이느냐, 아니면 자기 취향에 맞는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트렌트한 시계를 샀다가 튼보잡 브랜드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마음 졸이느냐. 사실 남자들이 시계에서 시계를 고를 때 가장 큰 딜레마가 이거거든. 그 접점에서 양 쪽의 욕망을 절묘하게 실현해주는 브랜드가 딱 티쏘지. 말도 안 되게 비싼 브랜드는 어차피 내가 차고 다녀봤자 진짜도 짝퉁으로 보일 거고...

티쏘라... 맨 끝의 T는 목욕이군요. '티솿'이라고 읽을 뻔했어요. 일단대요?

50만 원. 웬지 시계 같은 건 인터넷으로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명동 롯데백화점에 가서 질렀지. 사실 한 달만 쓸만 안 달리고, 양다리 안 걸치면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니까 큰 부담은 없잖아?

그렇다고 선배가 한 달이나 술판과 양다리를 참아냈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기보다 저렴하네요!

원래 내 드림 시계는 아무 장식 없이 심플한 800만 원짜리 파넬라이 루미노 가죽 스트랩 시계지만 이걸 사고 나니 별로 그놈 생각이 안 나. 간지도 비슷한데 굳이 40배가 넘는 돈을 쓸 필요는 없잖아? 너라도 파넬라이를 손목에 차고, 한 쪽 각막이 없는 남자랑은 자고 싶지 않을걸?

그런 명품 시계는 대부분 오토매틱(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태엽이 감기는 시계)이죠? 응, 그래서 그때그때 죽어 있는 날짜랑 시간을 새로 맞춰야 하는 게 번거롭지. 차라리 티쏘

같이 몇 년씩 가는 퀵츠(배터리 타입)이 나아. 다이얼 디자인도 예쁘지? 블랙&화이트 조합에 초침이랑 크로노그래프 침만 확 튀는 노란색이야. 거의 1년째 쓰고 있는데 크리스털 글라스에도 스크래치 하나 생기지 않더라고.

에이, 칭찬만 하지 마시고 어서 단점도 불어요.

사실 스트랩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자기 손목 두께에 맞게 구멍 위치를 조절해서 끼운 다음, 차고 벗을 때 똑딱이 버클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나처럼 손은 왕뚜껑만 하고 손모가지는 맥스봉처럼 가는 남자예겐 영 불편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차고 풀 때마다 매번 스트랩 길이를 조절해야 해. 그러다 보니 벌써 스트랩 가죽이 까져서 흉하게 벗겨지고 있어. 제기랄.

어디 봐요. 흠... 이런 손을 보통 노가다 손이라고 하죠.

인마, 이런 게 부자 손이야!

SPEC CHECK

화소	1,610만 화소
크기/무게	68.9mm x 122.3mm 420g
메모리	SD(SDHC, SDXC, UHS-I 호환)
셔터 스피드	60초 - 1/8,000초
유형	착탈식 렌즈 시스템 카메라
화면 크기	17.3mm x 13.0mm
동영상	최대 30fps, 4608 x 3456 픽셀
기타	손 떨림 방지 라이브 뷰



← 모델명 PEN E-P5
제조사 올림푸스



제대로 먹히는 카메라 PEN E-P5

기쁨은 내가 카메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여자들이 존나 좋아하니까. BY 조용제



미러리스계의 고전미남

올림푸스의 PEN 시리즈는 무려 50년 전에 첫 모델을 출시한 클래식 라인이다. 필카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외관과 흑, 백, 베이지색으로 이루어진 보디는 심플함을 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레트로한 분위기의 브라운 컬러 체크 셔츠에 E-P5를 패션 아이템처럼 매치해 그녀를 만나러 가자. 고전 미남의 아이콘 로저 무어 같은 당신의 매력에 매료된 그녀는 시종일관 당신 팔뚝에 돼지표 본드 걸처럼 찰싹 붙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빠르고 멋지고 예쁘게

E-P5는 최대 6,000분의 1초이던 기존 셔터 스피드를 무려 8,000분의 1초까지 끌어올렸다. 이 정도 속도라면 당신 앞에서 재롱을 떨며 강충강충 출렁출렁(?)대는 그녀의 모습 하나하나까지 상세히 잡아낼 수 있다. 게다가 새롭게 추가한 ISO 로(Low) 모드를 사용하면 조리개가 큰 렌즈를 최대한 개방해도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부작용이 없다. 이를 이용해 멋진 아웃포커싱 샷으로 그녀의 블로그에 된장급 사진을 올려주자. “어느 날은 오후, 삼청동 바에서 에메랄드 마티니를 기울이며...”



집? 그게 어딤어?

귀가 필요 없는 즉석 무선 연동 기능

일전에 와이파이 원격조종으로 스마트폰을 리모콘 삼아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 신기해하던 그녀. 이번엔 머리에 귀엽게 꽃을 단 자기 사진을 보고 미친년처럼 좋아한다. “이따 집에 가서 꼭 보내 줘!” 라고 말하는 그녀를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이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와이파이를 통해 카메라 속 사진을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자. “오늘 내 일정에 귀가라는 단어는 없어.”



나 지금 떨고 있나?

후덜덜덜 손떨림 방지 시스템

눈에 공각지가 쓰인 당신 눈엔 그녀가 손예진보다 예뻐 보인다(일종의 정신착란이다). 하지만 예쁜 그녀를 찍다가 너무 긴장해 사진이 마구 흔들려버린다면? 그녀는 당신을 브라 끈과 하루 종일 씨름하고 있는 병신 동정남처럼 볼지도 모른다. E-P5는 그런 당신의 초보 티를 덜어주기 위해 ‘5축 손 떨림 보정 기능’을 도입했다. 렌즈 종류와 관계없이 수직, 회전, 흔들림 등 갖가지 떨림을 보정할 수 있어 뭘 짓을 하며 사진을 찍어도 관계없다. 물론 동영상도 말이다. 예헐! 📷

Stuff

Shaving Tools



1

1. 쉬크 쿼트로 티타늄
 테조 이방원을 차승원으로 만들어줄
 4단계 트리머와 강력한 티타늄
 4중 면도날을 양면에 배치한 가성비
 최강의 2 in 1 진동 면도기.
 가격 14,900원

2

2. 쉬크 하이드로 5
 5중날 사이마다 끼워 넣은 스킨
 가드로 밀착 면도와 동시에 피부
 관리 및 보습에 초점을 둔 제품.
 하이드로(수분)라는 이름답게 면도할
 때 매끄럽고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
 가격 9,400원

3

3. 필립스 센스터치 3D
 얼굴선을 따라 엑소시스트처럼 목이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3D 면도기.
 습식 면도도 지원하며,
 젯클린 시스템이 거치대와 클리너
 역할을 독특히 한다.
 가격 410,000원(젯클린 포함)

5

4. 파나소닉 람대쉬
 로봇 팔을 뽑아놓은 듯 멋진
 디자인의 완전 방수 면도기. 리니어
 모터를 강화해 절삭력이 타 모델보다
 강해졌다. 돼지털처럼 굵은 수염도
 푸경푸경!
 가격 199,000원

4

5. 질레트 퓨전 프로글라이드
 그 유명한 박지성의 "씨보세요!"
 면도기. 알다시피 면도날은 마치
 진반 41로 박지성의 날카로운
 크로스처럼 절삭력이 좋다.
 가격 12,900원

Shavers & Savers

날카로운 면도기와 부드러운 면도 크림은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서경석과 이운석처럼 말이다.



BY 조웅재 PHOTOGRAPH YuD



6

7

8

9

6. 폴라초이스

클로즈 컴포트 웨이브 젤

거품 없이도 부드러운 면도를 도와주는 마법 같은 알로에 성분의 세이브 젤. 마찰을 최소화해 자극을 줄이고 피부를 시원하게 유지해준다.
 가격 20,000원

8. 비알타씨 옴므 파워

아쿠아 젤

멘톨 성분을 함유해 얼굴에 포카리 스웨트를 처부은 것 같은 상쾌함을 선사하는 세이빙 젤. 질감이 부드러워 사용감이 좋다.
 가격 16,000원

7. 폴라초이스 레드니스

릴리프 트리트먼트

질식 면도 후 핼보이처럼 붉어진 민감한 피부를 위한 트리트먼트 제품. 아스피린 성분으로 뜨끈뜨끈하게 열빈은 피부를 진정시킨다.
 가격 27,000원

9. 스웨거 페이스 트리거

세이빙 용품은 역시 '폼(foam)'이라고 생각하는 리얼 수컷을 위한 FM 아이템. 클렌징과 세이빙을 한번에 할 수 있는 1타 쉐피 제품이다.
 가격 19,000원

올바른 면도법 배우기!



MAXIM 뽐뿌질

내게 내가 주는 선물 리스트,
힘내라! 내 영혼!

올림푸스, PEN E-P5 스페셜 패키지 출시

미러리스 카메라 PEN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 PEN E-P5 스페셜 패키지가 정식 발매된다. 미러리스 최초 1/8,000초 초고속 셔터 속도를 탑재한 PEN E-P5는 기존 모델의 세련된 느낌을 유지하면서 카메라와 렌즈 동시 구매 시에 스마트박스와 렌즈박스를 제공해 프리미엄 카메라의 가치를 높였다. 스마트박스는 상하단의 이중구조로 제작되어 카메라 바디와 렌즈의 보관이 용이하다. 가죽 케이스와 로우프로의 슬링 백팩 증정 행사도 함께하고 있다. WOW! 이렇게 혜택이 많아?!

올림푸스 한국(02-6002-3500, www.olympus.co.kr)



페라리 바이 로직3, T150출시

페라리 GT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페라리 바이 로직3 T150이 출시된다. 고급스러운 황갈색의 컬러와 심플한 블랙 컬러 2가지 디자인에 가을과 겨울에 어울릴 가죽 장식이 돋보인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T150모델은 100mm 스피커 드라이버를 탑재해 깊은 베이스와 풍부한 소리가 특징이다. 음악의 역동성을 완벽하게 재현해주기 위해 디자인된 소음 방지 이어폰이다. 페라리처럼 노래의 한음 한음이 고막까지 역동적으로 질주해 올 것이다. 페라리 바이 로직3(02-546-0203)



방수 프로젝터 핸드캠, 소니 HDR-GWP88

방수 캠코더가 진화를 했다. 소니의 HDR-GWP88은 방수 프로젝터 핸드캠으로 5미터 충격 방지 기능과 수심 10m의 방수에 프로젝터 기능을 장착했다. 프로젝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100인치 대형 화면으로 감상이 가능하다. 소니의 혁신적인 바운즈 이미지 프로세서 기능을 통해 빛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고감도의 풀 HD영상을 촬영 할 수 있다. 2040만 초고화소 스틸 이미지 촬영도 가능한 소니 HDR-GWP88로 추억을 간직하자.

소니코리아(www.sony.co.kr)

BAMBOO™

뽐뿌 태블릿 사은품 증정 이벤트
뽐뿌 펜 구매 고객에게★
'뽐뿌 스타일러스 솔로'를 드립니다.

- 행사기간 : 2013년 7월 15일 ~ 8월 31일
- 대상모델 : 뽐뿌 펜(CTL-470)
- 사은품 : 뽐뿌 스타일러스
- * 태블릿 PC 및 모바일 기기 용 터치펜



유의사항

- 본 행사는 일부 판매점에 한하여 진행되며, 뽐뿌 스타일러스 솔로는 구매 시 판매점에서 바로 증정합니다.
- 실제 사은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며, 색상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사은품은 현금 및 다른 제품으로 환불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와콤 twitter "뽐뿌 인증샷 이벤트"

제품 구매 후 사진을 찍어 와콤 트위터(@wacomkorea)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분께 파란버튼계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와콤 트위터 <http://twitter.com/wacomkorea>

와콤 뽐뿌 제품 사면 뽐뿌가 따라오네!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하는 아티스트에게 희소식이 있다. 뽐뿌 펜(CTL-470) 태블릿을 사는 고객에게 모바일 기기용 터치펜인 뽐뿌 스타일러스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그것. 뽐뿌 펜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에 이상적인 태블릿으로 디지털 스케치, 웹툰, 캘리그래프, 디자인에 적합한 제품. 함께 증정하는 뽐뿌 스타일러스 솔로는 ios 기반 모바일 기기와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PC에서 쓸 수 있는 터치펜 액세서리다. 8월 31일까지 한정 프로모션이니 놓치지 마자.

한국와콤(www.wacomkorea.com)

씨게이트, 고객 맞춤형 하드드라이브 NAS HDD 출시

씨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업계 최대 용량과 최고 성능의 맞춤형 하드 드라이브 씨게이트 NAS HDD를 출시했다. 성능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4TB의 업계 최대 용량을 자랑한다. 819,000장 이상의 사진, 100만곡 이상의 음악, 500시간 이상의 HD 동영상 저장 가능하다. 무소음과 드라이브 진동을 방지하며 데이터 오류 복구 관리 기능을 지원해 드라이브 신뢰성까지 크게 높였다. 씨게이트(www.seagate.com)



기막힌 콜라보!

심수봉이 에픽하이와 함께 구성진 트로트 힙합 '여자라서 웃어요'를 히트시키고, 돼지 족발이 한약재를 만나 달짝지근한 한방 족발이 탄생했다. 허를 찌르는 신박한 콜라보, 또 뭐가 있나 볼까? BY 이영비

꽃을든남자 맨즈밤
한 번에 집티와 칩칙한 피부색 커버,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멀티 기능 남성 화장품이다. 스개팅이나 면접을 앞두고 평소보다 관찮아 보이고 싶은데 이것저것 짚어 바르는게 귀찮은 남성자들도 부담없이 속속 바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안색이 화사해진다. 인상이 더 깔끔해지니 안 되던 일도 잘 되지 않겠어?




원빈, 보고 있나?



에너지 팩토리 싸이 맨즈밤
원빈, 현빈, 장동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미는 남성 화장품 광고계에 가수 싸이가 면상을 들이밀었다. 화장품 브랜드 '꽃을든남자'와, 꽃보단 돼지감자, 토란 같은 뿌리 식물이 연상되는 싸이가 함께 탄생시킨 프로젝트 브랜드 '에너지 팩토리'는 대히트를 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 그 중 하나인 '싸이 맨즈밤'은 기존 타깃인 20대 남성뿐 아니라 30~40대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어 출시 한 달 만에 20만 개가 팔렸다.



가수 싸이
본명 박재상. 37세. 겨뭇을 유난히 많이 흘리고, 군대를 두 번 갔음. 한때 '청담동 호루라기'와 함께 강남 선수 느낌으로 어필했으나 지금은 애 아빠. 그래도 여전히 아빠는 잘 간다. 파격적인 여장으로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줄 아는 진중한 엔터테이너이자 히트곡 제조기. 2012년 6집 수록곡 '강남스타일'로 일약 월드 스타 반열에 오른다. 턱시도 아래로 흐르는 육수는 여전히 팔팔팔.

아... 내 입으로 내 자랑하려니까 좀 부끄럽지만 MAXIM이아말로 진짜 남자를 위한, 진짜 잡지였다!

MAXIM
한국에 상륙한 지도 벌써 12년 차의 글로벌 매거진 브랜드 MAXIM. 한번 열면 멈출 수 없는 중독성 강한 콘텐츠와 정신 건강에 이로운, 아름다운 여성들의 은혜가 깃든 화보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일등 남성 잡지다.



더원 임팩트
한 입 빨면 폭풍처럼 밀려드는 강렬한 맛이 감각을 자극한다. 근데 1mg 저타르의 사기 유닛! 더원 임팩트는 그런 반전 매력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을 매료시켰다. 자질한 잔기술과 어디서 주워들은 연애의 법칙 따위로 서툴게 여자에게 치근대는 짓내 나는 녀석들은 결코 낼 수 없는 멋진 어른 남자의 매력처럼, 더원 임팩트 역시 잡다한 맛과 장식을 첨가하지 않고도 흡연자의 구미를 사로잡는 어른스러운 매력이 있다.

더원 임팩트 MAXIM 스페셜 에디션
MAXIM과 더원 임팩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지. 강하고 자신감 있는 솔직 담백한 남성상을 지향하는 젊은 MAXIM과, 강렬한 돌직구 '임팩트'를 짹짹 날리는 담배 더원 임팩트의 만남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둘의 만남으로 '아저씨 담배'라는 인식이 강했던 '더원'이라는 브랜드는 20~30대 남성에게 열렬한 지지를 끌어냈다.



너 또 얼굴 고쳤어?



최근 더원은 지난 MAXIM과의 콜라보레이션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 출시한 더원 임팩트의 리뉴얼 디자인은 전보다 더 신선하고 생생한 푸른 빛에, 가슴팍 한가운데 온 지구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원기옥으로 발사하는 듯한 빛나는 원형 장식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단한 필터의 매력은 여전히 그대로!

대한민국 축구, 개판 5분 전 - 기성용 SNS 파문 총정리

팀을 없고 개인들의 달선 '말만 남은 어른 축구팀의 어지러운 행보.

BY 김덕중(엑스포초)

축구 선수 기성용(스완지 시티)이 우리나라 축구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보수적인 국민 성향에 비추면 한국 사회 전체를 뒤집어놓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배우 한혜진을 신부로 맞이해 그 어느 때보다 신혼 생활의 달콤함에 젖어 있어야 할 이때, 기성용은 대한민국 대표 '비호감' 선수로 급부상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과연 기성용 혼자만의 잘못일까. 2013년 현재 대한민국 축구는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다.

정신 못 차리는 기성용

기성용의 SNS 파문이 충격적인 까닭은 이른바 '증견가 짜라시'로 전 국민이 한 번 쬐는 접했을 축구 국가 대표팀 내부의 세세한 얘기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렇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올림픽 대표 출신 선수들이 국가 대표팀 내에서 파벌을 만들었고 이들은 기존 국내파 선수들과 대립했다. 이를 보다 못한 일부 선수와 최강희 감독이 적극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이들은 이마저 저버린다.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올림픽 대표 출신 선수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런던 올림픽 세대와 대립하던 부류가 최강희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선배였기에 보수적인 한국 문화에선 충격이 더 컸다.

기성용은 SNS를 통해 "리더는 목직해야 한다"는 말로 누군가를 비꼬았다. 이것이 화제가 되자 기성용은 곧 "목사님 설교"라는 핑계를 댔으나 그가 지칭한 '리더'가 최 감독이었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계정의 개인 SNS를 이용해 기성용은 최 감독을 조롱하고 비난했으며 위협까지 했다. 여기에는 런던 올림픽 멤버 중심의 파벌이 연상되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최 감독에게는 "그러다 다친다"는 표현까지 썼다. 런던 올림픽 세대의 대장 격인 박주영과 '최강희 황태자'로 불리던 이동국의 갈등 관계, 일각에서 제기한 이청용과 기성용의 다툼 같은 에피소드 등은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사실로 보는 관계자가 많다.

한편에선 SNS에서 지인끼리 속삭이던 이야기에



퇴근하고 <힐링캠프> 보야징.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는 공인의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에는 소홀했다. 한마디로 철이 없다.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기성용은 이른바 '축구판 재벌 2세대'. 아버지는 축구인 출신의 기영옥 광주축구협회장으로 축구계에서 이름값이 높다. 기성용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유학을 떠났으며 나름 유럽에 가까운 선진 축구 시스템을 몸에 익혔다. 그의 에이전트가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날 기성용은 SNS에 또다시 아석희 시인의 '누가 그랬다'라는 시를 올렸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는 내용. 이쯤 되면 병이다.

정신 못 차리는 한국 축구

기성용의 '최강희 디스'가 사실로 밝혀지자

대한축구협회가 징계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성용은 그렇다 쳐도 다른 런던 올림픽 멤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실제로, 또 다른 런던 올림픽 멤버 중 하나인 윤석영(QPR) 선수는 최강희 감독이 인터뷰 중 언급한 '혈액형 O형 수비수들의 불안함'에 대한 농담에 죽자고 덤뻐다. 윤석영 역시 개인 SNS를 통해 "2002 월드컵 4강 - 이영표, 김태영, 최진철, 송중국. 2012 올림픽 동메달 - 윤석영, 김영권, 김창수 그리고 아쉽게 빠진 홍정호 이상 모두 혈액형 O형. 그 외 최고의 수비력 박지성 O형"이라는 글을 올렸다. 곧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최강희 감독을 대놓고 비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기성용을 비롯한 런던 올림픽 세대의 명백한 잘못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축구의 기성세대 또한 잘한 것은 없다. 최강희 감독은



기성용의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게시물(왼쪽)과 기성용, 윤석영의 트위터(오른쪽).

그래도 희망은 있다

기성용을 비롯한 일부 선수가 극심한 이기주의로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을 때 20세 이하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머나먼 타국 터키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7월 8일, U-20 월드컵 8강 이라크전. 이광훈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어린 태극 전사의 행보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보내는 박수는 끊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힘, 그 위대함을 느껴서다. 언제부턴가 한국 축구에 '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수단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이자, 이번 기성용 사태에서 각성의 의미로 계속 언급되는 이 '팀'이라는 한 글자의 의미가 어린 태극 전사들을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이광중 감독이 이끈 20세 이하(U-20) 대표팀은 8일 터키 카이세리 카디르 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국제축구연맹(FIFA) 터키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이라크에 3-3 무승부 뒤 승부차기에서 4-5로 패했다. 콜롬비아와 16강전에서도 120분 혈투와 승부차기 접전을 펼친 이들 대표팀은 나흘 만에 똑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보여줬다. 3번의 만회골과 기적 같은 버저 비터로 한국 축구의 힘을 보여준 이광중호는 비록 염원하던 30년 만의 4강 신화를 재현하지는 못했는지언정 아무도 그들을 향해 실패라는 성적표를 들이밀지 않는다.

대회 전 이광중호를 두고 '골짜기 세대'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출한 스타가 보이지 않은 대표팀'이라는 의미다. 그마저 문창진과 김승준, 서명원 등이 부상으로 승선하지 못했고 대회 도중에는 류승우가 다치면서 해결사는 갈수록 부족한 상황. 그런 대표팀을 지탱한 것은 바로 조직력이었다. 이 감독이 평소에도 강조하던 11명의 조직력은 투지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콜롬비아와 이라크전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대회 기간 내내 이광중호는 '형보다 나은 아우'로 불렸다. 선진 축구에 접근한 플레이 방식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로 뭉쳐 조직력을 과시한 팀 그리고 그 팀 안에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찬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



형들과 대조적인 U-20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

이번 일을 겪으면서 K리그 클래식 전복 현대를 이끌어 쌓은 명성을 1년 반 만에 모두 날려버렸다. 대표팀의 경기력 부재는 둘째 치고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닌지, 선배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복종만을 원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 유럽에서 경험을 쌓은 어린 선수들이 기존 한국 축구의 풍토에 회의를 느끼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강희 감독 역시 경솔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인터뷰가 와전됐다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선수와 감정싸움을 하는 인상이 짙었다. 이에 앞서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까지만", 다시 말해 우리나라 축구의 월드컵 본선까지만 책임지겠다는 '임기 제한 발언'은 진중하지 못했다.

애초에 '싫다'는 감독에게 지휘봉을 떠넘긴 대한축구협회의 태도는 더 무책임했다. 나아가 대표팀 내부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홍명보 감독에게 차기 대표팀 사령탑을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만약 홍명보 감독마저 실패한다면 다시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맡을 국내 지도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태를 단지 젊은 선수들의 '버릇없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완전 정복! 알아두면 그럴싸한 프로야구 용어



마음에 드는 그녀 앞에서 '나는 청보 핀토스가 있던 시절부터 프로야구 팬이었다'고 신나게 X품을 잡아왔다. 이제 프로야구의 열기가 절정을 향해 달릴 시점이다. 그녀는 야구박사인 당신을 자랑스럽게 달고 야구장 데이트를 하려고 안달이 나있다. 도중에 망산살 뺨치고 싶지 않다면 이 친절한 MAXIM의 야구 용어 레슨을 들어 봐.

BY 덕사마 MODEL 공서영 아나운서



재미있는 야구 기록1

최다패
우리나라 프로야구팀 중 최고(?)의 패자는 삼미 슈퍼스타즈다. 1985년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동안 18연패했다. 1982년엔 시즌 최저 승률(0.188), 어웨이 경기 최다 연패(21패) 기록도 달성했다. 슈퍼스타급이네!

그래, 사실 공서영 사진을 또 보고 싶어서 굳이 이 기사를 썼어. 야구 안 좋아해? 그럼 사진이라도 보고 가.



STEP 1 이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야빠 소릴 듣는다

타석? 타수?

타석은 타자가 공을 치기 위해 배트 박스에 들어선 횟수다. 삼진을 당하든, 홈런을 치든 상관없다. 타자가 배트 박스에 들어서면 1타석이 추가된다.

규정 타석은 뭐냐고? 소속팀이 치른 경기에 3을 곱하면 규정 타석이 된다. 한 게임에 최소한 3번은 타석을 들어서야 타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타수는 조금 다르다. 타석에서 볼넷(몸에 맞은 공 포함)과 희생타를 제외한다. 여기에 상대의 타격 방해로 강제 출루한 것도 제외한다. 즉 타수는 [타석-볼넷-희생타-타격 방해]다.

이닝? 아웃?

이닝은 공격과 수비의 단위다. 1이닝은 총 6개의 아웃카운트로 이뤄진다. 야구는 두 팀의 대결이므로 공격, 수비에서 3개의 아웃카운트를 나눠 갖는다. 따라서 '투수가 10이닝을 던졌다'는 말은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다는 뜻이다. 예컨대, 롯데 선발 투수 송승준이 8회 한 타지만 아웃시키고 내려갔다면 7과 1/3이닝을 던진 거다. 만약 8회 첫 타자가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루에 출루했다면 어떻게 될까? 송승준은 8회에 하나의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했기에 7이닝을 던진 것으로 기록된다. 그 대신 투수가 스트라이크 3개를 던진 것은 인정되기에 탈삼진은 1개가 추가된다. 투수가 억울할 일도 없단 얘기가.

뭐? 너무 쉽다고? 무슨 소리. 이것만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아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당장 네 옆에 있는 수컷을 붙들고 물어봐라. 애써 못 들은 척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거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 글에선 편의상 볼넷은 '몸에 맞은 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STEP 2

야구에 대해 모르는 게 생기면 당신을 찾게 된다

스트라이크 아웃과 타자의 타율

(((포수가 잡은 공이 세 번째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면 타자는 삼진 처리된다. 아,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겠지. 하지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포수가 공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때는 삼진이 아니라 포수 앞 땅볼이 된다. 타자가 1루 베이스로 전력 질주해서 밟는다면 당연히 주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포수의 실책으로 출루했기에 타자의 타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자책점? 평균자책점?

(((자책점은 투수가 실점 중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점수다. 한마디로 주자가 안타, 희생타, 볼넷, 폭투 등으로 홈에 들어오면 자책점이다. 이수의 실책으로 발생한 점수는 자책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자책점(ERA)은 투수가 9이닝을 던졌을 때 예상되는 자책점이다. 흔히 방어율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평균자책점이다.

세이브?

(((세이브란 투수가 팀이 동점 또는 리드하는 상황에서 등판해 팀을 승리를 이끌었을 때를 말한다.

투수의 세이브 달성 조건

- ▶ 팀이 이기고 있을 때 등판해 3이닝 이상을 던지며 승리를 지켜낸다.
- ▶ 팀이 1~2점 차로 이길 때 등판해 마지막 1이닝을 책임진다.
- ▶ 팀이 3점 차 이상 앞서고 있을 때 등판했지만 주자와 남은 아웃카운트의 타자가 모두 득점에 성공해 동점 혹은 역점이 될 때는 세이브로 인정된다.
- ▶ 9회 투아웃인 상황에 주자마저 없다면 3점 차로 이기더라도 세이브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웃카운트가 1개 남은 상황에서 다음 타자까지 홈으로 들어와도 동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지간한 야구 팬, 하물며 남자들도 의외로 이런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니 그녀와 가을 잔치를 보면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장 입을 털도록! 그녀의 눈빛이 존경심과 애정으로 불타오르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우리 오빠야는 진짜 아는 것도 많아!"

STEP 3

이제 당신 말을 알아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OBP? OPS?

(((OBP. 오빠의 약자가 아니고, 출루율이다. [(안타+볼넷)/타수+볼넷+희생플라이]로 계산한다. 재미있는 건 타율이 낮은 선수라도 볼넷이 많으면 출루율은 높아진다. 반대로 타율이 높아도 볼넷을 거의 얻지 못한 선수의 출루율은 타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일본 출신 최고의 타자 스즈키 이치로가 대표적이다). 그럼 희생플라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선행 주자를 진루시키지만 본인의 출루는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루율은 꺼먹게 된다.

(((OPS는 출루율(OBP)에 장타율(SLG)을 더한 값. 선수가 얼마나 자주 베이스에 진출하고, 한 타수에 몇 개의 베이스를 확보하는지를 보여준다. KBO 홈페이지에서도 OPS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선수의 주루 능력이나 작전 수행 능력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RC? WHIP?

(((RC(득점 공헌도)는 팀이 득점을 올리는 데 선수의 공헌도를 보는 기록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팀이 득점하려면 선수가 출루해 홈을 밟아야 한다. 즉 선수의 득점 공헌도는 본인의 OBP(출루율)에 진루타, 적시타 등으로 주자를 진루시킨 결과(총 누타수)를 곱하면 된다. OPS가 단순히 OBP와 SLG를 더해서 선수의 득점을 평가한다면, RC는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WHIP(휩)은 투수가 허용한 볼넷과 안타수를 더한 이닝으로 나눈 값이다. 왜 이런 귀찮은 짓을 하나냐면 투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운영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1이닝에 몇 명의 타자를 출루시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높을수록 상대팀의 출루를 많이 허용한 것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출루를 허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을 던졌다는 뜻이다. 은퇴한 박찬호가 '종종 야구'의 대명사라 불린 이유도 바로 휩이 높았던 데에 있다.

이쯤 되면 당신이 설명해줘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렇게 설명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당신의 야구 지식에 감탄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건 그녀는 그런 남성들의 시선을 받는 당신을 '천재 타입이지만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훈남 오빠'로 여기게 될 거란 사실이다. ☺

재미있는 야구 기록2

투수의 무덤

한 경기에서 두 팀 모두 미친듯이 방망이를 휘둘러 경기 최다 득점을 만들어낸 기록은 2009년 5월 15일 목동에서 LG와 히어로즈가 만난 날 탄생했다. 이 경기에서 LG가 22점, 히어로즈는 17점을 냈다. 합계가 무려 39득점이다!

황당 야구장 사고!



Smoke & Drink

1 Mellon Baller (멜론 발러)

달콤한 수박에 향기로운 코냑의 향이 어우러진 최고의 데이트 칵테일 멜론 발러. 그녀의 붉고 달콤한 입술에 달콤한 수박향이 더해지니 이보다 더 완벽한 키스 포인트가 있을까?

재료
레미마틴 VSOP, 설탕 시럽, 수박, 얼음

글라스 칵테일

가니시 수박 조각, 민트 잎

만드는 법

레미마틴 VSOP 2oz*, 신선한 수박즙 4oz, 설탕 시럽 3/4oz를 각얼음 3, 4개와 함께 шей커에 넣고 강하게 8~10번 흔든 뒤, 미리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해둔 칵테일 잔에 걸러 넣는다.

2 Black Iced Tea (블랙 아이스티)

상큼한 사과 맛과 향, 얼그레이의 풍부한 향이 시원하게 느껴진다. 술을 잘 못마시는 여성들도 가볍게 즐기기에 좋다. 일단 걸보기에도 상큼한 레몬과 얼음을 띄운 시원한 차 같으니 취하는 줄 모르고 계속 마시게 되는 마약 같은 술이다. 키스하고 입가심으로 마시기에도...

재료
레미마틴 VSOP, 얼그레이 티, 사과 주스, 설탕 시럽, 레몬 1/8조각

글라스 하이볼

가니시 레몬 쥬스, 민트 잎

만드는 법

글라스에 각얼음 8개 정도를 채운 뒤 레미마틴 2oz, 얼그레이 티 3oz, 사과 주스 2oz, 설탕 시럽 1/2oz, 레몬 1/8조각의 즙을 넣고 바스폰으로 2~3번 정도 휘젓는다.

3 Remy Soda (레미 소다)

만드는 법이 땅 짚고 헤엄치는 것보다 쉽다. 빨리 만들어서 후딱 마시고 본 게임에 들어갈 생각이라면 레미 소다를 추천한다. 아직 둘만 있으면 긴장과 서먹함이 감도는 사이라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바짝바짝 말라가는 입술을 축이기에 좋다. 달지 않고 상큼해서 질리지 않아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चु슴 चु슴 훌쩍이다가 입술을 चु름 चु름... 아아, 그 다음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재료
레미마틴 VSOP, 토닉워터, 각얼음

가니시 라임 쥬스, 민트 잎

글라스 하이볼

만드는 법

레미마틴 VSOP 1oz에 토닉워터 3oz, 즉 1대3의 비율로 섞은 뒤 얼음이 든 하이볼 잔에 부으면 끝!

*1oz = 약 30ml

Hot Place! Cool Drink!!

그녀와 한잔 후 헤어지기 싫을 때 한 마디.
“우리 집에 가서 칵테일 한 잔 더 할래?”

BY 장혜민 PHOTOGRAPH Oh!
COOPERATION 더방갈로(02-793-2344)
에드링턴 코리아(02-2140-4600)



이태원 the Bungalow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2-3



6호선 이태원역 2번 출구로 나와 해밀튼 호텔 뒤로 가면 이국적인 분위기의 트로피컬 라운지 더방갈로를 만날 수 있다. 저녁에 직접 가서 보니 남녀 쌍쌍이 구석구석 아늑한 공간에 자리를 잡고 붉은 불빛 아래 아주 서로 정답더라. 공간이 각각 구분되어 있어 더 은밀한 분위기를 주는데, 자리만 잘 잡으면 없던 연애 감정도 막 샘솟게 생겼다. 모래가 깔린 그네방에서는 맨발을 폼지락거리며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도 볼 수 있다. 바 안에는 작은 수영장이 있어서 마치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 든다. 지면에 등장한 칵테일을 포함해 100여 종의 칵테일과 주류를 만날 수 있으며, 영업 시간은 새벽 3시까지다. 문의 02-793-2344



1
멜론 발러



2
블랙 아이스티



3
레미 소다



Cusqueña Malta
5.6%, 330ml.
2,000원

쿠스케냐 몰타



콜리에 맥골을 섞어
맥주병에 담아 팔다니... **한 손안나**

MAXIM의
쿠스케냐
시음령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축구, 육감적인 몸매의 삼바 댄서, 피사로에 의해 멸망한 잉카문명. 당신은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남아메리카 맥주에 대해서는? 사브 밀러의 글로벌 정책으로 국내에 수입된 첫 페루 맥주 쿠스케냐 몰타. 대형 마트 세계 맥주 코너에서 접한 이 맥주는 첫인상부터 남달랐다. 미끈하게 빠진 블랙 보드에 황금색 라벨... 거기에 병의 밑동은 원산지 쿠스코 지방의 유적인 12각 돌이 양각으로 장식했다. 우리로 치면 맥주병에 불국사 삼층석탑을 양각으로 새긴 셈이지만, 지구 반대편 나라의 돌탑 무늬라니 아국적인 매력이 넘친다. 단돈 2,000원으로 꽤 괜찮은 브랜드 한 병을 득템한 기분으로 이 녀석을 업어왔다. 마추픽추 보러 가서 다들 술만 찾아 마시는 건지, 페루에 다녀온 이들이 하나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맥주가 바로 이 '쿠스케냐'다. 참고로

'쿠스케냐는 쿠스코 지방의 여자라는 뜻. 그년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난이길래 순진한 한국 남자들 허를 이렇게 꼬여내는 건지 내심 궁금했던 차였다. 그러나 실제로 먹어본 '쿠스코 여자'는 생각보다 싱거운 여자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싱거운 '콜라 맛'이다. 그것도 어젯밤 컵에 따라서 반쯤 마시고 그냥 둔 김빠진 콜라. 종류별로 다르긴 하나 흑맥주엔 구운 맥이 주는 특유의 캐러멜, 누룽지, 단맛, 고소함 등 풍미가 빠질 수 없다. 복합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녀석은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 엄청 달기만 하다. 국산 맥주 스타우트를 '달달하다'라고 표현할 수준이라면, 쿠스케냐는 그냥 대놓고 '달다'. 초콜릿처럼 부드러운 단맛은 아니고, 몸에 좋지 않은 불량식품 같은 달콤함이다. 어쩐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 성분표를 살펴본 에디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월 수가! 이 맥주에는 무려 백설탕이 함유돼있다. 아...!'설탕 맛'이 너무 본격적이라서

그렇지 다른 부분은 나쁘지 않다. 향은 고소하면서 밀맥주처럼 향긋하다. 힘들게 공수해 온 천연 빙하수에 백해무익하다는 백설탕을 솔솔 뿌린다는 게 어쩐지 모순되지만, 안데스 산맥의 빙하를 녹인 물로 만들었기 때문인지 확실히 뒷맛도 깔끔한 편. 아아... 그렇지만 역시 너무 달기 때문일까? 만약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케이크 한편을 다 먹어치우는 극강의 양키 입맛을 가지지 않은 이상, 이 맥주 한 병을 혼자서 다 마시기는 여간 쉽지 않을 거다. 이 맥주는 철저히 '쇼맨십'용으로 활용하자. 예를 들어 새벽에 여자 친구와 해외 축구를 시청하면서 한 모금씩 나눠 마실 맥주가 필요하다면 쿠스케냐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거다. 좀 있어 보이는 모양새의 페루 맥주라면 '너와의 시간을 위해 맥주 하나조차 공들여 준비'한 듯한 느낌을 그녀에게 딱딱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 무엇보다 달콤하다고 훌쩍훌쩍 들이키다 보면 어느새 쉽게 취해버리거든!

말이 씨가 된다.



1.5 Year Ago...

시작은 정말 장난이었다. 작년 초, 국내 A모 패션지에서 꽤 흥미로운 합작품을 만들었다.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그 잡지가 군인 연초로도 유명한 담배 THIS의 디자인에 참여한 것. 아방가르드한 A잡지의 영향으로 고풍스러워진 THIS를 에디터 중 한 명이 사왔다. 간만에 보는 THIS를 나눠 피우던 우리 또 장난기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아나, 담배 하면 우리가 진짜 꿀초대 마왕인데 이런 건 우리랑 해어지ㅋㅋ

너라면 하겠다? 우리 이미지가 마초 또라이라서 아무도 안 해. ㅋㅋㅋ

마초가 왜? 밤일도 잘하는 이미지고, 또... 밤일도 잘하는 이미지인데..

새끼 아직 모르네. 시대는 이제 메트로섹슈아. 우리도 이제 지드래곤 같이 화장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선배, 우리 맥심 커피랑 해보자. 맥심 커피 박스에 예빈 누나 얼굴 박고 안에 잡지도 들어있으면 즐라 팔릴 거 같지 않아? 맥심 커피 비키니 믹스 한정판 막 이렇게~

어? 그럼 예빈 담배 말고 수영복 만들어야지. 에스콰이어는 구두 만들고.

아 진짜 1차원적인 새끼 존나 창의력 없네. 그럼 레옹 잡지는 총잡이랑 청부업 콜라보하게? 그리고요 맥심 에디터냐?

담배가 딱인데 진짜, 담배 회사에도 딱 성향이 우리만큼 지니어스한 애들이 있으면 바로 연락 오지 않을까?

어쨌거나 난 이번 달 Smoke&Drink 섹션에 기사 쓸 거 득템했네. 맥심 담배 우리도 할 줄 안다고.

뭐 어렵나, 강 만들면 되지. 야 마분지 좀 가져와봐.

그래서 탄생한 기사 ▶ - 2012년 3월호 p.59

종이접기로 만든 가상의 MAXIM 담배 ▼



조잡하다, 조잡해.

애랑 좀 좋았었는데.

잊어버려.



그 뜨거웠던 원나잇 리포트

2013년 4월, 농담처럼 시작한 MAXIM과 한 담배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 합작품이 짧고 굵게 훑고 지나갔다. 그 뜨거운 한 달 밤(?)이 지나간 임팩트를 돌아봤다.

쿵팍이 맞다

하지만 담배 회사에도 MAXIM을 구독하는 교양있는 지니어스들이 있었으니, 이 장난질을 시작으로 MAXIM과 THE ONE Impact팀의 합동 공작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우리는 이거 나오기 한 달 전까지도 장난인 줄 알았다.)

하, 한달만 합시다 그럼. 안 팔려도 책임 못 져.



진짜였어...



두둥-

뒤끝 작업

뒤끝없이 헤어지기로 했지만 어디 사람 일이 그러하냐. 불타는 여름이 찾아오고 폭풍 합체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원나잇 썸녀 페이스북 뒤져보듯 더원 임팩트가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슬쩍 한 번 보기로 했다. 뭐? 특목 탈고 리뉴얼 했다고?

아~ 이거 먼저 궁금해 하면 지는 건데...



좋았지만 쿨하게 헤어져

MAXIM 스페셜 에디션 THE ONE Impact는 전국 MAXIM 독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흡연인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핫 이슈로 우뚝 서서 짧고 굵은 4월 한 달을 활활 불태웠다. 서수남과 하청일, 윤현숙과 이혜영, 칼 말론과 존 스타틴의 콤비 플레이보다도 친한 시너지를 일으킨 MAXIM과 THE ONE.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아무리 궁합이 잘 맞아도 애초에 딱 한 달만 서로 쿨하게 즐기고 뒤끝없이 헤어지기로 하고 만난

사이였으니. 마치 옥타곤 플로어에서 만난 웅녀와 이대근처럼 불꽃처럼 한 달을 불태우고는 미련없이 돌아섰다.

도플갱어 디자인

거의 변한 게 없잖아. 우리 만나기 전엔 이런 스타일 아니었어. 우릴 못 잊은 게 확실해.

붉은 입술

우리 로고가 있던 자리에 저렇게 입술을 찍어놨어. 색시하고 새빨간 게 딱 우리 거잖아...

완벽한 S라인

저 디자인은 호리병처럼 속 들어간 허리거나, 우리가 환장하는 궁디샷이 분명하잖아! 색시 코드를 패키지에 마구 뿌려놓다니 그냥 대놓고 우릴 부르네!



썸녀, 썸남 폐복 뒤져가며, 너는 날 얼마나 생각하니, 날 못 잊었구나, 벌써 애인이 생긴 게로구나 다행이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한동안 더원 임팩트의 새 패키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

ICON

우리 지금 장기하 만나

서울대 출신, 키 183, 음악적 재능... 있을 거
다 있는 화개장터 같은 남자 장기하가 나타났다.
이런 남자가 실존한다는 건 풍문으로 들었소만.

BY 조용재 PHOTOGRAPH Zho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뮤지션을 좀 꼽아 봐라.**

신울림, 송골매, 송창식
선배님, 신중현 선배님, 비틀스,
도어스, 토크헤즈 등등...

**응? 왜 너바나는 없나? 너바나는 안
좋아하나?**

아, 물론 록을 하는 사람이 너바나를
싫어할 리는 없잖은가? 그렇다고
특별히 즐겨 듣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니다.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눈뜨고 코베인'이나 '노루바나' 같은
밴드는 왜 한 거지?**

'눈뜨고 코베인'은 당시 그 그룹의
보컬 '깜악귀'라는 양반이 지은
이름이었고, 거기서 드림을 찾을
뿐이다. '노루바나'라는 역시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다. '불나방
스타 소세지 클럽'이 원래 하던
레퍼토리에 손가락만 얹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난 너바나 팬
아니다.

**뮤지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뭐였나?**

노래방. 아 다른 게 아니라,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게 재미있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기타
배우고 드림 배우고 그러다 보니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게 재미있더라.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록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차근차근 걸어
올라간 셈이지.

**교회가 당신을 록의 길로 이끌었군.
계속 교회 나가나?**

아니.

**교회를 버리고 록스타로 거듭났군.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록스타란?**
'진정한'이라는 말은 반드시 품위를
지켜야만 물을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음악적으로 품위를
지킨다는 건 아마도 쪽팔리지 않는
음악을 한다는 얘기겠지?



수트 커스텀멜로우



장기하

생년월일 1982년 2월 20일

신장 183cm

(네이버 프로필보다 1cm 컸다)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소속 두루두루amc

데뷔 2008년 장기하와 얼굴들

싱글 앨범 <싸구려 커피>

와일드
와일드
장기하



그루피들과 신나게 놀아나는 상상 같은 건 안 하나?
 상상 속에서야 쿨한 안 해 봤겠다. 뭐 어차피 역사적으로도 그런 기록들이 난무하니까, 지금은 시대가 좀 지나서 그런 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말이다.

아니라고 하기에 '여자 연예인 킬러'라는 소문이 꽤 많이 돌더라.

이적 형이 어딜 갈 때마다 집요하게 그걸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마치 본인의 과거를 보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말이다. 사실 그마저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얘기가.

그루피 말고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자.
 전에 <힐링캠프>에서 강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라 지금은 다르다. 사실 이상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만났을 때 매력이 있고 마음이 잘 통하면 장영 아닌가? 잘 통하면 호감이 되는 거고 말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외모는 보지 않나?
 당연히 보지. 근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이상형이 천차만별이라 과연 누가 예쁜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안 예쁜 사람 없단다니까.

서울대 졸업장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한 점이 있다면?
 솔직히 안 좋은 건 없었다. 서울대를 나와 보니까, 어딜 가나 메리트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 오묘하다. 내가 음악적으로 10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적어도 그 중에 1이나 2정도는 학벌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은 내가 웬지 더 똑똑할 것 같고, 더 깊이 있게 음악을 만들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지더라.

외모 얘기를 한 번 해 보자. 기적의 다이어트 얘기 좀 해 달라.
 군대에서 6주 만에 15kg이 빠졌다. 이후 3~4kg이 더 빠졌는데 살이 빠지고 나니 이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노력이라고 한 것이 BX에 안 가는 거였다. 공군이라서 우리는 PX가 아니라 BX(Base Exchange)라고 하는데, 여기만 안 가도 꿈의 다이어트를 위한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기'가 가능했다.

잡난 얼굴을 두고 굳이 수영과 안경을 고집했던 이유는 뭔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대학교 시절 학교 다니던 모습이다. 눈에 뭐 넣는 게 무서워서 렌즈는 못 끼고 다녔고 수영은 그냥 기른 거다. 내가 처음 데뷔했을 땐 그런 비주얼로 노래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다들 콘셉트인줄 일더라고. 그러다 굳이 멀쩡한 얼굴 공공 싸매고 다닐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 없애버렸다.

주변 사람들은 뭐가 더 낫다고 하던?
 수영은 확실히 없는 쪽이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안경은 호불호가 갈리더라. 워낙 천차만별이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다닌다. 렌즈 공포증이 사라져서 지금은 잘 끼고 다닌다.

지난 2월부터 자취를 시작했다고 들었다. 아직 깔끔하게 잘 유지하고 있나?
 먼지가 많아졌다. 청소하는 주기는 점점 길어지고... 하지만 뭔가를 제자리에 두는 건 아직도 잘 하고 있다. 설거지 안 밀리고, 방상고 깨끗하고 뭐 이런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 학벌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웬지 더 깊이 있게 음악을 만들 거란 편견을 갖는다 ”



노래할 때 말하는 특유의 말투는 당신의 원래 말투인가?
 원래 내 말투 맞다. '싸구려 커피'의 경우는 만든 지 벌써 6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사람 말투라는 게 원래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방송을 하면서 달라지기도 하잖나. 그것도 그렇지만 원래 사람이 항상 똑같은 말투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너랑나랑은~" 이거랑, "뭐 한 몇 년간..." 이런 확실하게 다르니까 말이다.

잘 운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 수도꼭지'라면서?
 라디오 1주년 되는 날 울었다. 왜 울었지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참, 사실 어렵을 땐 울보였는데 다 커서는 울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 날 제작진이 나를 울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던 것 같은데, 내 사연이 있는 곡들을 추천하며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폭발해서 울어버렸다. 시가상 힘든 때이기도 했고.

'달이 차오른다, 가자'로 당신과 함께 유명세를 탔던 미미 시스템즈가 실은 예쁘다는 얘기가 있다. 정말인가?
 그냥 역사 속에 묻는 쪽이 어떨까 싶다. 저마다 각자의 생활이 있는 거고,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 우리 그들의 얘기는 그냥 물어버리는 것으로, 응?

시상식에서 빅뱅 팬들과의 특이한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다.

때는 아마 2009년, 또 내 입으로 말하긴 조금 부끄럽지만, <싸구려 커피>로 데뷔했을 때 3개 부문을 수상했다. 당시 '네트즌이 뽑은 남자 음악인상' 수상 당시 있었던 일이다. 빅뱅의 태양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디씨와 웃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장기하로 빅뱅을 이겨 보자'라며 우리에게 표표를 찍었다. 완전히 박빙이었다. 실시간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다.

빅뱅을 꺾은 장기하리니,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
 누군가는 그런 분석을 했다. 당시 투표 마감 직전에 표 차이가 같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대가 TV에서 <꽃보다 남자>를 방영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여성 표가 한번에 훅 빠지는 바람에 이겼다는 슬픈 전설도 있다.

이제 곧 연기자로 데뷔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무려 <하이킥>의 김병욱 작가님과?
 작가님 측에서 연락이 와서 보러 갔었다. 나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 주인공 가족과 얽히는 음악 하는 청년이라더라.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아마 즐겁게 촬영할 것 같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 보자.
 올 하반기에 곧 나올 3집 음반 작업도 있고, 연기도 할 거라서... 아마 그것만으로도 엄청 바빠질 것 같다.

요새 무슨 낙으로 사나?
 3집 만드는 작업, 지금 하는 일 중 가장 재미있다.

이번에 나올 3집에 대해 스포일러 좀 부탁해도 되겠나?
 아무래도 라디오를 일 년 넘게 하다 보니까 청취자들 중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언제 끝나죠?'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3집에 들어갈 곡들을 꼭 써놓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에서 모티브를 따 온 노래들이 많더라. 아마 라디오를 하지 않았다면 아예 쓰지도 못했을 그런 곡들 말이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아근 송>이라니 무척 기대가 된다.
 장일 3집이 곧 나올 거다. 개인이 아닌 팀워크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외 경험도 쌓았고 이래저래 여러 측면에서 밴드로서의 성장을 이룩했으니, 좀 더 짙 한 사운드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기대하시라!



성우 출신으로 연기자, MC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며 못남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는 서유리가
드디어 MAXIM을 찾아왔다!

이날 촬영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은 요즘도 그녀 얘기를
하며 '마성의 서유리'라고 부른다.

BY 김희성 • WORDS 조용재

→
'에이지 오브 스톰' 게임 내
유리아 캐릭터 코스프레

Fairy Voice & Fatal Attraction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느낌의 촬영을 진행했다. 만족스러웠나?

즐거웠다. 화보 촬영은 익숙하지 않아 좀 걱정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심한 노출을 하지 않아서 편했다.

펼쳐 입어도 색시한 이런 비주얼을 왜 굳이 감추고 있었나?

나는 아직도 내가 색시하다는 걸 모르겠다. 주변에서도 '니가 글래머라는 걸 뉴스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

스물셋에 핫팬츠를 처음 입어봤더니, 겁이 좀 얹힌 편이었나?

그렇기도 했고, 꾸미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스무 살 넘어서까지도 엄마가 사주신 옷만 입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옷 입는 데에도 센스가 없었다. 독립한 지금도 내 옷을 잘 못 고른다. 누가 좀 골라줬으면 좋겠다!

내가 전속 코디가 되어 주마! '19금 코스프레녀'라는 말이 불쾌하진 않나? 불쾌하다기보다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아무리 봐도 19금까지는 아닌데, 기자님들이 일어서 그렇게 써 주신다. 나야 뭐 감사할 뿐이지.(웃음)

어쩌다 본업인 성우를 하게 됐나?

원래부터 꿈이었다. 아르바이트로 청소년 대상 행사 MC 일을 하던 중, 게스트로 오셨던 성우 선배님과 친해져 본격적으로 성우를 꿈꾸게 되었다.

그 선배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성우 강수진이라고 일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분이다. 원피스 루피, 명탐정 코난 남도일 등등... 이 분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당신이 출연한 작품은 얼마나 되나?

2008년에 대원방송 1기 성우로 데뷔해 정말 많은 작품을 더빙했다. 아마 편수로만 따지면 30분짜리

“

내 매력을 굳이 꼽자면
반전 매력이 아닐까?

”



‘에이지 오브 스톰’ 게임 내
유니스 캐릭터 코스프레



팔찌 심라주얼리
구두 슈즈원

애니메이션으로 1,500편 정도 될 거다.

그렇게 많은 작품에 출연한 줄은 몰랐다!

출연한 작품 중에서도 정말 유명하고 화제가 되는 작품이 많은데도 성우 일은 티가 잘 안 난다. 아마 <SNL 코리아>가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그 인기에 힘입어 나까지 이슈가 된 거지.(웃음)

만능 엔터테이너로 다양하게 활동 중인데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다시 태어나도 성우를 하겠다.

디자이너사이드 갤러리에 인증글을 남겼다. 눈팅하다가 멘붕이 왔다고?

거기 형들이 좀 거칠다(웃음). 알고 보면 좋은 형들이지만 촌데라... 거친 글만 보다 보면 멘붕이 온다. 좀 살살 해줬으면 좋겠다(웃음).

<SNL 코리아>에서 섹시녀로 화제가 되었다. 당시 느낌은 어땠나?

처음엔 좀 얼떨떨했다. 그때까지도 SNL에서 나 혼자만 두렵한 캐릭터

없이 걸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초조했고 불안한 와중에 캐릭터가 잡혔나 싶어 너무 기뻐다. 검색 순위에 오른 것보다 더 기뻐다(웃음).

성우인 당신이 SNL 크루엔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

예능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을 많이 하는 선배님께서 오디션 정보를 주셨다.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오디션을 봤다.

당시 오디션 분위기는 어땠나?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풀세팅하고 오디션을 보더라고 나는 녹음 끝나고 급하게 시간에 맞춰 오느라 머리로 산발인 채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갔다(웃음). 떨어질 걸 예상하고 여행가려고 비행기표도 예약했다니깐!

그런데도 합격했다! 대단하다!

아마 큰 기대나 부담 없이 본 게 비결이었을까. 게다가 그 전 시즈에 성우 출신 크루들이 대활약을 해 줘서 나를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닐까 싶다.

앞으로 공중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다. 감회가 새로운 것 같은데?

딱히 공중파와 케이블을 구분지어 생각한 적은 없다. 워낙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나보다 주변에서 더 들떠있더라. 아무래도 기대에 부응하려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아, 이선균씨를 인터뷰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많이 기쁘다(웃음).

웬지 어렸을 때 아이돌 팬심 좀 부렸을 것 같은데?

팬클럽 활동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H.O.T 오빠들을 좋아했다. 특히 강타 오빠. 일다시피 그뻘 H.O.T나 젝스키스를 좋아하지 않으면 간첩 취급 받을 정도였으니까(웃음). 작년에 SNL에서 토니 오빠와 우혁 오빠를 만났는데 감회가 새롭더라.

SNL의 또 다른 아이콘인 김슬기와 당신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나?

슬기는 아무래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좀 더 풋풋하고 귀엽지 않나 싶다. 내 매력을 굳이 꼽자면 반전 매력?(웃음) 은근히 섹시하다고들 하더라고. 원래

너무 대놓고 섹시한 것보다는 은근히 섹시한 게... 아, 모르겠다(웃음)

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동안 당신을 페인으로 만든 게임들을 꼽아 본다면?

<리니지>, <KOF> 시리즈, <삼국지> 시리즈, <대항해시대> 시리즈, <마비노기>,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온> 등등... 진짜 열심히 했다.

앞으로 당신이 신작 게임 <에이지 오브 스톤(이하 AOS)>의 공식 모델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소감이 어떤가?

일단 국산 대작 게임의 공식 모델이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늘 그렇듯이 나는 내가 홍보를 맡은 게임에 꼭 빠져들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웃음).

<AOS>는 어떤 게임일 것 같나?

아직은 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만 본다면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일 것 같다. 큰일이다. 손맛?(?)이 있는 게임이구나!



시계 베카앤벨
팔찌 심라쥬얼리
구두 슈즈원

팔찌 심라쥬얼리
구두 슈즈원

“
게임을 하다가도
내가 전화하면 받을 수 있는
남자가 좋다
”

오늘은 <AOS>에 나온 캐릭터를 코스프레해 봤는데 괜찮았나?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면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든다. 아직까지 난 섹시한 드레스보다는 코스프레 의상이 더 친숙한 것 같다.

'유리아'라는 캐릭터는 당신과의 싱크로율이 상당한 것 같은데?
제작사에서 애초에 나를 모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캐릭터 이름도 '유리아'대 아무래도 좀 더 애정이 갈 수 밖에 없겠지?

애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신의 이상형은 어떤 남자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좋겠고, 내가 존경할 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런지 따뜻하게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몇몇 인터뷰에서는 '게임 중에도 내가 전화하면 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맞는 얘기가. 너무 이기적인가?(웃음)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좋다. 밤새 게임만 하는 사람 이미지가 아닌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피부다. 어머니께서 피부가 무척 좋으시거든. 물론 관리도 열심히 한다.

게임과 여행 중 하나만 고르라면?
아, "짜장면과 찜뽕 중에 뭐가 더 좋냐", "아빠랑 엄마 중에 누가 더 좋냐"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다.

쉬는 날에는 주로 뭘 하나?
잔다. 그리고 일어나면 게임을 한다 (웃음). 아, 이렇게 대답하고 보니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당신에게 섭외 요청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
진짜 MAXIM에서 섭외가 들어올 줄은 몰랐다! 게다가 표지일 줄이야. 무척

영광이다. 나도 내심 MAXIM의 연락을 기다렸거든(웃음).

이번 달 MAXIM 판매량이 꽤 치솟을 것 같다. 당신도 기대 중인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노출 혹은 섹시 콘셉트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지만 MAXIM이기에 믿고 맡긴다. 내 사진이 독자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사랑해요 여러분! 



구두 슈즈원



서유리

데뷔

2008년 대원방송 성우 1기

대표작

〈강철의 연금술사〉, 〈유유백서〉,
 〈페어리 테일〉 등 다수

방송 출연작

〈SNL 코리아〉, 〈섹션TV 연예통신〉

팔찌 심라쥬얼리
 구두 슈즈원

이렇게 예쁜
 성우 봤어?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자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래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시길!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공서영 / 류현진 122호 2013. 07

Summer Special 10

Horror 10 #1.
무서운 이야기의
10가지 단골 소재 / July 2013

Horror 10 #2.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는 10가지 이유

MAXIM 납량 특집 그 두 번째 시리즈.
섬뜩하고 잔인한 살인마들의 살인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혹시 내가 그 괴물들의
살해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밤, 집에 갈 때 뒤를 조심하라.

2013
Summer Special

horror 10

BY 손안나  LAYOUT 서유정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1 살인의 이유



이름: 박한상
국적: 대한민국
살해 동기: 유산을 좀 더 빨리 상속 받고자
살해 대상: 부모

“유산을 상속받아야
도박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1994년, 강남 백억 원대 자산가 부모 집에 불이 났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부모의 시신은 이미 40여 군데 난자된 상태. 부모의 외아들 박한상은 전형적인 90년대 오렌지족이었다. 군 제대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유흥가를 들락거리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억지로 미국에 유학 보내버렸고, 도피성 유학으로 그의 방랑한 생활은 더 심해졌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룻밤에 5,000달러를 잃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졸라 1만 8,000달러를 받아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도박에 탐닉하기도 했다. 그렇게 슬과 도박에 빠져 살며 3,7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박한상. 영원한 물줄라 여겼던 아버지가 빚을 갚아주지 않고 ‘호적에서 파겠다’라며 꾸짖자 한국으로 돌아가 부모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부모만 죽으면 모든 유산이 자신에게 오면 빚을 빨리 청산할 수 있을 테니까. 먼저 그는 부모가 잠든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피가 될까 봐 옷을 모두 벗고 나체인 상태로 안방에 들신, 부모를 무참히 찢러 살해했다. 살해 후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를 한 그는 머리에 피가 튀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하고 감지 없었다가 경찰에 발미를 잡혔다. 훗날 영화 <공공의 적>에서 양친을 칼로 찢러 살해한 ‘조규환 역(이상재)의 모티브가 된 희대의 패륜아가 바로 이 박한상이다.

2 살인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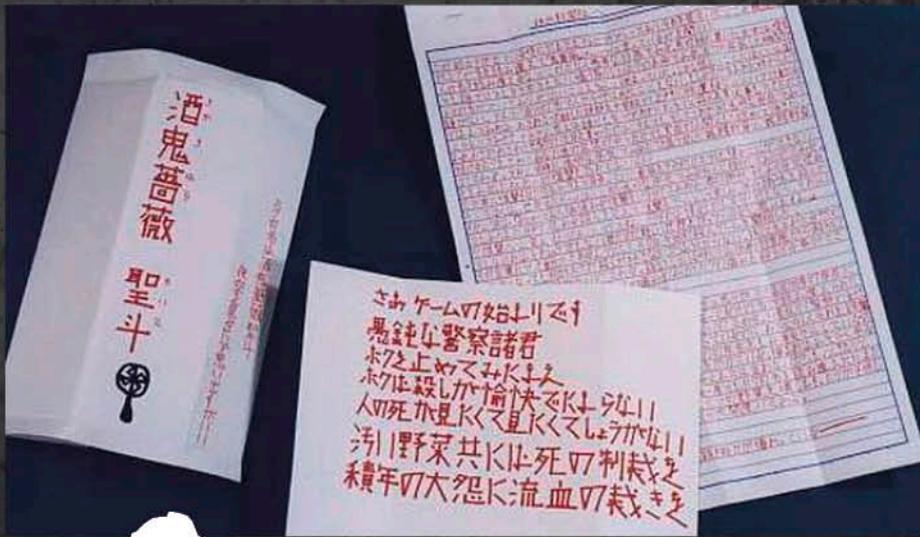
이름: 정남규
국적: 대한민국
살해 동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해 대상: 불특정 다수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우울하고 답답하다.
빨리 사형을 집행해 달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3명이 사망한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정남규. 현장 검증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달려들었는데, 다른 범죄자처럼 피하는 게 아니라 돌 날아온 곳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카메라를 향해 씨익 웃기까지 했다. 그는 KCSI(한국과학수사대) 요원 사이에서 역대 최악의 흉악성을 지닌 살인마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즐거운 살인 놀이를 더 많이, 더 쉽게 하기 위해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챙겨보면서 식단을 관리했고 꾸준히 마라톤도 했다. 완전 범죄를 위해 과학수사 관련 집자를 탐독하고,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는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시청했다. 또한, 족적이 나오지 않게 모든 신발 밑창을 도려냈으며, 지문이 쉽게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발집 무늬 장갑’을 애용했다. 그는 감방에서 살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비닐봉투를 꼬아 만든 끈에 목을 매 자살했다. 죽기 전까지 반성은커녕 “담배를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라는 말을 남기며 흉악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이름: 아즈마 신이치로
국적: 일본
살해 동기: 인간의 죽음에 대한 호기심
살해 대상: 동네 꼬마

살인의 이유
중2병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생각하면 좋겠지”

1997년 5월 27일, 일본 후코현 고베시 스마구 도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앞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속에서 절단된 초등학생의 머리가 발견됐다. 피의자는 만 14세의 아즈마 신이치로. '홍물 해부'를 한다며 동네 길고양이의 씨를 말려 죽인 바 있는 중2병 환자였다. 그렇게 잡아 죽인 고양이들의 허를 스금에 걸여 유리병에 담가 두고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주기도 했다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즈마는 '죽음'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역시 '죽여 봐야 한다' 라는 정신나간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어리고 작은 초등학교 6학년생 하세 준에게 접근했다. “자쪽으로 가면 무늬색 거북이가 있다”라며 인적이 드문 풀숲으로 아이를 끌고 가서 구두끈으로 교살하고는 아이가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아서 눈을 나이프로 찌르고 양 입을 귀까지 찢었다. 순수한 아이의 피를 마시면 자신의 더러운

피가 깨끗해진다는 법 가지 같은 이유로 피를 한 모금 받아 마시고는 쇠통으로 목을 절단해 검은 비닐봉지에 머리를 담아 중학교 정문에 두고 사라졌다. 아이의 입안에는 쪽지를 물려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미련한 경찰 여러분, 나를 좀 멈춰줘.
나는 살인의 즐거워서 걸릴 수가 없어.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죽겠어.
(...중략...)

SHOOLL KILLER
学校殺死(학교살인)의
酒鬼薔薇(술, 도깨비, 장미)

SHOOLL KILLER라니 SCHOOL의 스펠링도 제대로 모르는 병신이 무슨,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는 겨우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년 1월에 소년원에서 출소했다고 한다.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POLICE LINE DO NOT CROSS



Monster vs. Monster

유영철과 정남규의 차이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불우한 가정 환경과 여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이코패스라면, 정남규는 사람을 죽일 때의 충격, 혹은 공포를 몸이 '깨달음'으로 잘못 받아들여 이를 다시금 느끼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부유층 노인파 출장마사지사 여성 등 총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패릭 살인마다. 때문에 살해 도구도 다르다. 유영철은 오펜마의 손잡이를 개조한 든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대개 갈로 살해된 시체는 손, 팔 등에 방어흔이 많이 보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남규는 뽀족하고 날카로운 흉기로 사람을 죽였다. 그는 “찌르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감과 자이든취감’을 느꼈다.”

4 살인의 이유 종교



“신도들이여, 우리에게 더는 희망이 없다. 죽음으로 우리의 뜻을 증명하자”



살인마: 제임스 워렌 짐 존스
국적: 미국
살해 동기: 우리 X됨. 강 죽자.
살해 대상: 신도

1978년, 남미 가이아나 공화국의 정글에서 900명이 넘는 미국인 광신도들이 집단 자살했다. 이들은 인디애나 주 출신의 사이버 교주 짐 존스가 이끄는 인민사원 신도였다. 백인 우월 단체 KKK 단원 아버지를 둔 짐

존스는 자신을 예수로 간주하고 만시쯤에 입각한 '인민사원(People's Temple)'이라는 종교 단체를 만들어 1천여 명의 신도를 모았다. 이곳에서 구타와 노동 착취, 신도 박해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자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레오 라이언 미국 하원 의원과 NBC 방송 기자 등 5명이 인민사원 광신도의 총에 맞아 숨졌다. 몇 시간 후, 짐 존스는 “미국 하원 의원을 죽인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며 신도들에게 집단 자살을 명령했다. 청산가리를 탄 글에이드(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300여 명의 아이들이 먼저 희생당했고, 어른들도 차례차례 자살했다. 일부 저항하는 신도에게는 강제로 음료수를 마시게 하거나 주사를 놓았다. 당시 살아남은 이의 증언으로는, 짐 존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딸과 아내가 서로의 목을 찢러 자살했다고, 이를 후, 인민사원으로 가이아나의 군대가 침투했으나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909구의 시체들뿐이었다. 9.11테러 전까지 가장 많은 미국 시민이 죽어 나간 단일 사건이었다.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최단 시간에 최대 인명을 살해한 전직 경찰관”

5 살인의 이유 파리로



살인마: 우범곤
국적: 대한민국
살해 동기: 동거녀가 몸에 붙은 파리를 잡아주기 위해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린 게 화가 나서
살해 대상: 동네 사람들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6 살인의 이유 인종주의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없었던 데 대해 모든 투쟁적 민족주의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POLICE LINE DO NOT CROSS

대한민국 아니 세계 역사상 거의 최단 시간 최대 희생자를 만든 최대의 살인마, 그가 지저른 살인 사건은 세계적인 스캔일이었으나 시작은 고작 파리 한 마리 때문이었다. 해병대 출신으로 사격 실력이 출중했던 우범곤은 체제 후 경찰관이 되었으며 서울 101경비단에 선발되어 청와대 경호에 근무하였으나 성격이 거칠어 근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경상남도 의령군 공류면 경찰지서로 좌천되었다. 후에도 행패가 심해 별명이 '미친 호랑이'였다고, 1982년 어느 날, 저녁 근무를 위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던 우범곤은 동거녀가 몸에 붙은 파리를 잡아주기 위해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자 이를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코피가 날 정도로 동거녀를 폭행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동거녀를 두둔하자 화가 난 그는 집을 나가 지서 예비고 무기고에서 카빈소총 2개, 실탄 180발, 수류탄 7개 등을 탈취했다.

우범곤은 무장하고 나오면서 일을 지나던 20대 남자에게 총을 쏘고 시장으로 달려가 총을 난사하여 장을 보러온 마을주민 3명을 살해했다. 마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가서 교환원 2명과 숙식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살해, 매실부락으로 가서 10여 분간 총기를 마구 난사, 주민 6명을 살해했다. 이어 또 다른 시장으로 달려가 주민 7명을

살해했다. 상갓집에 난입하여 "바상이 걸렸다"고 말하고 문상객들과 어울려 10여 분간 술을 마신 뒤 갑자기 총을 난사, 12명을 살해하고 이후 불 켜진 집을 찾아다니며 총을 난사, 밤 9시에 시작한 이 총질은 새벽 5시까지 계속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는 마을에 다시 나타나 한 민가에 침입,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갖고 있던 수류탄 2발을 한꺼번에 터뜨려 함께 자폭했다.

이 사건으로 마을 주민 6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33명이나 발생했다. 일가친척이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의 특상상 의령군 일대 7개 마을엔 쫓초상이 났고, 지금도 범행이 일어났던 4월 26~27일 즈음에 제사 지내는 집이 많다. 당시 온천 집대를 받고 술 취해 돌아오던 지서장은 우범곤이 무기를 탈취해 총격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듣자 총격 현장에 자기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도망갔고, 서에서 신고를 받고 도착한 전경 30명은 총에 맞을까 두려워하여 다리 밑에 숨어 있었다. 후에 경찰은 이를 '매복'이었다고 변명했다가 더 많은 욕을 먹었다. 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 동네 사람을 다 죽여 가는데 다리 밑에서 매복을 한단 말인가?



살인마: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국적: 노르웨이
살해 동기: '다문화주의'에 맞서는 극우주의
살해 대상: 불특정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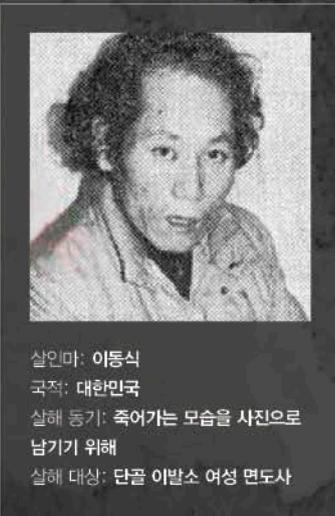
2011년 7월, 노르웨이 동부 극우단체의 회원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어느 날,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인용해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은 관심만을 두는 10만 명의 합과 맞먹는다"라는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긴다. 그리고 6일 후, 자신의 신념을 실행시키고자, 경찰복으로 위장하고 노르웨이 오슬로 북서쪽 30km에 있는 한 섬에 도착해 캠프에 참석한 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한다. 다리가 없고 배로만 이동할 수 있는 고립된 장소에서 범인은 학생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고 '예쁜 여학생'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지금껏 살면서 여자를 사귀어보지 못한 분노가 터진 것. 브레이비크는 미국에 건너가 이마와 코, 턱에 성형수술까지 받고 돌아왔지만, 여자들은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다.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아댔고, 그 와중에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확인사살까지 했다. 1차 총격을 피한 학생들이 건물 안에 숨어있자 그는 "보트가 구조하러 왔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유도한 후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한 명씩 쏘아 죽였다. 사용한 총탄은 사람의 몸 안에서 터져 2차 총격을 주는 덩달탄. 총알에는 니코틴이 포함돼있었다. 참고로, 니코틴이 피를 통해 직접 인체에 들어가면 극소량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테러 전, 인터넷에 올린 '2083 유럽 독립 선언'에서 브레이비크는 한국을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진 본받아야 할 국가"로 묘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냥... 그렇다고...



살인의 이유 예술

“죽어가는 순간은
송고하다.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예술 중 예술이다”

특수절도 전과 3번의 이동식은 홀스 후 사진을 접하게 되면서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게 된다. 님이 죽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 한 사진전에서 은상을 받자 점점 더 사진 창작에 열정을 불태우게 된 그, 아내에게 음모를 다 밀고 괴상한 상관계 포즈를 취하게 하는 등 변태적인 누드 촬영을 감행하다가 더 강한 자극을 위해 시신을 찍어대기 시작했다. 자연사는 취급하지 않고, 목을 매 허를 때우고 자살한 모습, 가슴에 과도가 꽂힌 채 피범벅이 된 시체만 찾아다녔다고, 나중엔 여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자신이 직접 살인을 계획한다. 1982년 12월, 불륜 관계이던 단골 이발소 여성 면도사에게 캡슐에 담긴 청신가리를 감기약이라고 속여 건네고, 그 약을 받아먹은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태연하게 지켜보며 21장의 사진에 담았다. 이동식은 자신의 집 지하 보일러실 벽 속에서 필름과 노트를 숨겨두었고, 이를 경찰이 발견하여 결국 그는 사형을 당했다. 그리고 문제의 사진 21장의 원판은 수천만 원을 내고 프랑스와 일본의 유명 사진집지사에서 사갔다. 사진을 찍어 즐기고자 했던 그의 비열어진 예술혼이 어떤 의미에선 제대로 실현된 셈.



살인마: 이동식
국적: 대한민국
살해 동기: 죽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살해 대상: 단골 이발소 여성 면도사

1988년 11월 25일, 친구 사이이던 세 명의 소년은 아르바이트에서 귀가 중인 한 여고생에게 접근하여 '야쿠자가 너희 가족을 몰살할 것'이라고 위협, 자신들의 아지트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마 입에 달기도 힘든 무자비한 성적 고문을 자행했다. 소녀의 성기에 성냥을 삽입하고 손과 발, 정강이, 무릎에 라이터 기름을 발라 불을 질러 일어서지 못하게 했다. 향문과 성기에 불꽃놀이용 폭약을 꽂아 놓고 터뜨렸으며, 상처가 깊고 피가 멈추지 않아 더럽다며 자신들의 손발에는 비닐봉지를 쓰고 소녀를 구타했다. 1989년 1월 4일, 결국 소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근처의 공장에서 훔친 드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굳혀서 도쿄의

한 풀숲에 버렸다. 후에 발견된 소녀의 시체를 부검해보니 체중이 36kg으로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위에서는 바퀴벌레와 다량의 정액, 소변이 발견됐고, 가슴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박혀 있었고, 성기에는 드링크 병 2개가 삽입돼 있었다. 왼쪽 유두는 펀치 같은 것으로 집혀 있었으며, 뇌 또한 축소되고 약간 녹아 있는 상태였다. 고막 역시 심하게 손상되어 죽기 직전에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김금 초반에는 범인들에게 '살려 달라'고 빌던 소녀도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제발 죽여 달라'고 애원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미상년자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4명의 인간쓰레기는 아직도 멀쩡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살인의 이유 강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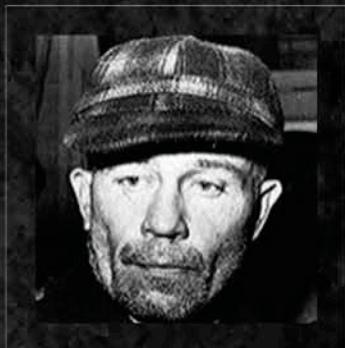
“난 야쿠자의 간부다.
야쿠자가 너를
죽이기로 되어 있지만,
넌 내 여자 친구와
뒹뒹하니 살려 주겠다”

살인마: 미야노 히로시,
오구라 유즈루, 미나토 노부하루,
와타나베 야스시
국적: 일본
살해 대상: 김 가던 여고생

9 살인의 이유 시체 수집

“여성의 피부로
만들어진 옷 한 벌이
필요하다”

에드 게인의 어머니는 열렬한 개신교 신자였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모든 여자는 창녀이고 악마의 노래'라고 가르쳤다. 유일한 친구이자 사실상 애인이었던 엄마가 죽은 후부터, 그는 '진짜 여자(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다. 엄마와 닮은 철물점 가게 여주인을 총으로 쏘죽이고 시체의 가족을 벗겨 내기도 했다. 공동묘지에도 수십 번이나 찾아가 그중에 엄마와 닮은 여자의 시체를 꺼내 살가죽으로 일종의 외피를 만들어 얼굴, 성기를 포함한 신체 대부분을 여자 사체 가죽으로 두르고 밤에 집주변을 산책했다.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엄마 같은 여성이 되고 싶어서"라고.



살인마: 에드 게인
국적: 미국
살해 동기: 여자가 되고 싶어서
살해 대상: 중년 여성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10 살인의 이유 식인 욕구

“나에게 먹힐 열여덟 살
에서 서른 살 사이
건장한 남성 구함”

2001년, 천산 기술자로 일하던 평범한 독일 남성이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린다.

“안녕, 난 독일의 프랭키라고 해. 난 지금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나에게 살해당할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 만약에 당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나에게로 와 주길 바라. 그럼 난 당신을 죽여서 신선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먹을 테니까.”



살인마: 아르민 마이베스
국적: 독일
살인 동기: 식욕
살인 대상: 자신을 먹여달라고
찾아온 남자

POLICE LINE DO NOT CROSS POLICE LINE DO NOT CROSS

그리고 정말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프랭키, 42세의 인지니어 베르트 유르겐 아르민도 브린데스. 아르민 마이베스는 캠퍼더로 전 과정을 녹화했는데, 그 내용이 참 병신 같다. 브린데스가 자신의 거시기를 먹고 싶어 해 거기를 칼로 도려냈다. 너무 질겨서 못 먹겠다고 하자 친히 거시기를 요리했는데 실수로 태워먹는 바람에 그 생기 요리는 결국 잘게 다져서 개 먹이가 됐다. 마이베스는 기다 출혈로 죽어가는 브린데스에게 독한 술과 진통제를 잔뜩 먹인 뒤 콩고 가서 목을 찢러 죽였다. 남은 시체는 이후 약 10개월 동안에 냉장고의 피자 상자 밑에 숨겨두고 아껴먹었다. 시체를 다 먹여치운 마이베스는 두 번째 구인 광고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게 꼬리를 밟혔다. 

MISS MAXIM

MISS MAXIM Marine Party

최종 8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네 명의 미녀와
서울 인근 숲 속에 위치한 산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드레스 코드는 섹시 마린 비키니!
전날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하늘이 흐렸지만
그녀들이 산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눈 앞에 에메랄드빛 지중해가 펼쳐졌다!

BY 김희성 PHOTOGRAPH Zho





시계 제로원

수영복만 입은 새끈한 남자들을 볼 때 가장 시선이 가는 곳은 어디가?

갑바.귀골.

여름철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것과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술은?

냉면!! 물은 무니무니하도
도주요!

휴가지에서 가장 섹시한 분위기가 풍기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나?

이유는? 거기서 뭘 하길래!
뎀션 버란다? 음. 음...?

여름에 노출을 하며 가장 신경쓰게 되는 신체 부분은? 관리법도 있나?

무니무니하도 기쁨과 버저!
꼭장한 버저로션!

여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는 뭔가?

UV의 바다.
왠지 신난다규!!!

갑바 찌는 남자, 식스팩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중 하나만 택해라.

선택다 택하면 안되나...
기.기 도저히...

뭐고리벳당...!!! ~ ㅁ

2013
MISS MAXIM
CONTEST

첫 번째 8강 진출자

김소희



속옷 게스언더웨어



침대에서
핑글핑글





시계 제로원

2013 MISS MAXIM CONTEST

두 번째 8강 진출자

정예진



제일 좋아하는 비키니 룩은 어떤 스타일인가?

흰색 손바닥 만한 탭에 연형 마이크로 미니진!!

휴가 중 저지른 일 중 기억에 남는 미친 짓이 있나?

휴가내내 매일 다림 "ㅋㅋ
알마한 사람들 다 아는데
남자배우들과 아주 끝나게
놀았지용 ㅋㅋ

수영복만 입은 새끈한 남자들을 볼 때 가장 시선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

복근하고 가슴이여 ~
하악하악 ㅎ

휴가지에서 가장 섹시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나? 거기서 뭐 하게?

휴가지인 끝은 내 뽕 ~
뽕!! 게임할때 "응 ㅋㅋㅋㅋ"

MISS MAXIM 우승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라이벌은 누군가?

김고희 "애는 사진찍이
너무 잘받아 ㄷ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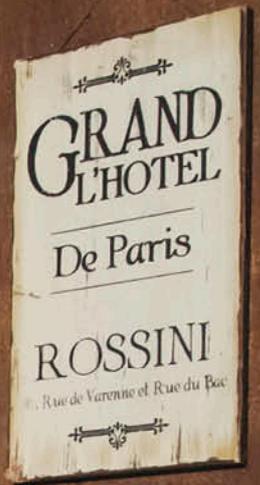
갑빠 찌는 남자, 식스팩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중 하나만 택해라.

갑빠가 찌는 남자가
좋다!! 근데 썩 다역야
이해용.ㄷ

구두 슈즈원

더칠기
일보
직전이었던
비키니





“

태닝을 위해
틈 날 때마다 헐벗고
낮잠을 잔다!

”

속옷 게스언더웨어
구두 슈즈윌

흘러 넘치는
섹시함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비키니는 어떤
스타일인가?

상품과 스타일! 몸매가 잘 드러나는!

살면서 휴가철에 저지른 짓들 중 가장
미친 짓을 꼽자면?

휴가는 항상 계획하거 않고
반 마저서 간다! 귀 이미 미쳐서
개니가 썩썩!

수영복만 입은 새끈한 남자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어깨! 피부사!

휴가지 중에서 가장 섹시한 분위기가
감도는 장소는?

남탕 수영장! (유저리만큼 곱해서만...)
뜰때마다 태양을 위해 땀과
날갯을 건다.

올 여름 페스티벌 중 가장 기대중인
행사는 뭔가?

수영장 파티. 여름에 물이
곳따면 다 좋다!

갑빠 찌는 남자, 식스팩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중 하나만 택해라.

식스팩이 있는 남자

2013 MISS MAXIM CONTEST

세 번째 8강진출자

박주비

구두 슈즈원

MISS MAXIM

2013
MISS MAXIM
CONTEST

네 번째 8강 진출자

박수선님께



제일 좋아하는 비키니 스타일은?
색은 박수선! 최대한 작고,
덜 가려지는? ㅎㅎ

수영복만 입은 새끈한 남자들을 볼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은?
어깨! 그리고 >.<

이번 여름을 즐겁게 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건 세 가지를 꼽자면?
맥주, 소주, 양주 휴가 때는
무리하게 마셔주는 모자

갑빠 찌는 남자, 식스팩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중 하나만 택해라.

갑빠 찌는 남자?
이왕이면 찌는 갑빠만
찌는 마음씨도 있었으면 ♡

부엌에 몰래
들어왔다가
.avi



WORDS 조영재 HAIR&MAKEUP 김혜민 ASSISTANT 김세영 김소영 FILM 김상수 LAYOUT 서윤정
COOPERATIONS 개스앤더웨어(02-514-9006) 슈즈원(02-518-4190) 제로원(02-3397-7100)



시계 제로원
구두 슈즈원

Motor

READER'S CAR

THIS IS MY CAR

자고로 남자는 자식 자랑보다 차 자랑이 더 하고 싶은 법. 그래서 마련된 MAXIM 독자들의 대국민내 차 자랑 프로젝트 그 세 번째 달이다. 모터쇼 부럽지 않을 화보를 위해 LG트윈스 치어리더로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는 MISS MAXIM 김지예가 오랫동안 컴백했다.

BY 유승민 PHOTOGRAPH YuD

MODEL 2011 MISS MAXIM 준우승자 김지예

TUNING TIP

유리막 코팅 제정

"차 간의지 기분은 역시 광택이다. 특히 검정 차는 숲길을 지난 때 차체 위로 선명하게 반사되는 나무 실루엣이 압권이다. 어제 세차했는데 오늘 오다가 다 타러워졌다. 천장. 단순 광택과 유리막은 정말 다르다. 광택은 차 도장면을 깎아서 한꺼번에 박피시키는 거지만 유리막 코팅은 차를 감싸서 보호하는 거다. 유리막엔 발수 기능이 있어서 요즘같은 장마철에 비를 맞으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차체가 마치 연꽃잎처럼 빗물을 도르르 뽐겨내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세차할 때 물세차만 하면 되니 편하다."

예상 비용 40만 원 이내

돌이온
김지예
포텐 터져



KIA K3

1.6 GDI Nobless

Motor

This is My Car

TUNING TIP

열차단 튜닝

"여친을 태우기 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바로 튜닝(선팅)이라는 건 굳이 말 안해도 알 테지?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루마썬팅으로 했는데, 그 중에도 하이클래스 라인인 루마 '로이드'로 진면, 즉 후면 색 다 받았다. 안에서 된 것 힐려고 그러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잘된 튜닝은 열을 잘 차단해서 여름에 에어컨을 덜 혹사시키고, 자외선도 많이 막아주거든. 그리고 코 빠다가 옆 차랑 눈 마주칠 일도 없지."

가격 50만 원대



열핏 봐도 튜닝은 안 한 것 같다. 순정파나?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 모르나?

다 헛짓이다. 난 헛돈 들일 것 없이 바로 순정 풀옵션으로 갔지. 17인치 휠/타이어에 공기압 경보 시스템, 패들 시프트, 크롬 머플러, 전동 메모리 시트 등등 최상위 트림(노블레스)에만 있는 아이템이다. K3라고 다 같은 K3가 아니다.

튜닝 빼고는 추가로 돈 들인 게 없는 건가?

노블레스라도 옵션이 모두 포함된 건 아니다. 난 풀옵으로 질렀는데 섀시루프 45만 원,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주차 보조 시스템이 또 45만 원, 통풍 시트에 아이보리색 가죽까지 씌우기 위해 60만 원을 더 투자했다. 진정한 풀옵션이지.

2천만 원 남짓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군. 검정 차에 이 하얀 가죽 시트는 상당히 파격적이나.

맞다. 안에 들어오면 특히 여자들이 이 시트에 흑한다. 순정 옵션에 이런 시트는 흔치 않다. 미스맥심이란 실내에서도 한 컷 찍자.

타 보니 어떨까? 옵션 말고 엔진 자랑 좀 해봐라.

준중형을 많이 타봤지만 K3가 제일 정숙하다. 연비도 차 무게에 비해 질나오는 편이다. 14.5km/L면 경쟁 차 이번때보다 기름을 덜 먹는 거다.

살살 모는 타입인가? 남자가 좀 뽐을 줄도 알아야지.

가끔 인천공항 가는 길에 밟는데 200km/h 이상 되면 차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 이상은 잘 안 밟는다.

200? 형이라고 부르겠다. 난 180 넘어가면 다리가 떨려서 못한다. 상남자라서 검정을 택했나?

K3가 준중형이지만 검정으로 뽑으니 무게감이

K5 못지않다. 남자는 블랙 아닌가?

그리고 보니 나와 같은 유씨군. 유씨들이 원래

상남자다.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도 대빵이고, 항우도 유방한테 따지니까. 이 K3는 뽑은 지 얼마나 됐나?

나오자마자 뽑았다. 전에 타던 차도 한 1년 남짓

물었는데 요 녀석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라디오에 그릴 좀 봐라. 수입차에도 이런 멋진 그릴은 흔치 않다.

1년 타고 차를 바꿔? 능력자가 여기 있었군.

전에 타던 차는 뭐였길래?

나이에 맞게 커피색 레이를 몰았었다. 예쁘긴 한데 남자가 물기엔 영 품이 안 나더라.

기아차 마니아로군. 박스가 레이는 귀엽게 나와서

여자 에디터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물론이지. 하지만 기자 양반, 여자는 레이 타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레이 주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말소사. 그 얘기 안 해줬으면 나 핑크 레이 뽑을**

뻥 했다. K3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나?

여자도 은근히 K3를 많이 뽑는다. 5, 7, 9는 주로 남자 타기였는데 K3가 나오니 여자들도 뽐뿌가 오는 듯.

빨간색 K3 뽑은 여자 봤는데 죽이더라.

이게 빨간색이면 정말 스포츠카 같겠다. 나라도 맛있는 SM3보다는 K3를 살 것 같은데? 🍷

Reader's Car

화보 촬영 프로젝트 #3



K3 주인	유제림 독자
직업	기아자동차 근무
다음 번에 지를 차	K5 신형 나오면 또 산다!
드림카	실현 가능한... 빨간 머스탱
추천 드라이브 코스	인천공항 가는 길!



“타 본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무엇이었나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Motor / Event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MAXIM Motor의 메가톤급 이벤트! 당신의 자동차를 사진으로 찍어 MAXIM 편집부로 보내라. 한 명(또는 한 팀)의 독자를 선정하여 당신의 자동차를 주인공으로 한 MAXIM 화보를 촬영하겠다! 당신의 애마에게 지상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여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쉴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MISS MAXIM을 만나다!

집지로만 만났던 미스맥시를 양팔에 끼고 잇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다.”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영원히 남기다!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당신 자동차 인생의 한 페이지를 MAXIM에 영원히 남겨주자.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열심히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SNS 외엔 마땅히 자랑할 데가 없었나? MAXIMI 대신 전국에 자랑해주겠다!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영팀, 에디터가 당신의 자동차를 멋진 화보로 남기기 위해 총 출동한다!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당신의 차가 꿈꾸 구독 혜택도 안겨줄 거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MAXIM 다음호가 정기 구독 첫 호!

응모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 차에 얽힌 재미진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뽑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자동차 2대면 미스맥시도 2명 데리고 나갈테니!



미스맥시와 만나려고 남의 차를 찍어서 보내면 큰 화를 입을 것야!

Motor

Test Drive

MAXIM
시승기
#33

MINI JCW

BMW 하면 M, 벤츠 하면 AMG, 미니 쿠퍼 하면 JCW! 6월 14일, '2013 미니 트랙데이'에서 새롭게 라인업한 미니 JCW, 미니 JCW 쿠페 모델이 공개된다는 소식에 MAXIMI이 산 넘고 물 건너 강원도 인제까지 달려갔다.

BY 장혜민, 김상수

MOVE RIGHT
MINI TRACK DAY 2013.

4,500만원



4,710만원 (Coupe)



MINI 트랙데이 2013

BMW 그룹에서 미니 JCW, 미니 쿠페 JCW 그리고 지난 3월 서울 모터쇼에서 출시된 컨트리맨까지 전 라인업을 소개하기 위해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미니 트랙데이 2013'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JCW 라인을 소개할 뿐 아니라 미니 전 라인을 실제 레이싱 트랙에서 시승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이어, 택시 드라이빙(현직 레이서들이 빠른 속도로 트랙을 운전해주는 코스)으로 심장을 쫓기하게 만들더니 운전면허 기능시험 추억 돌는 짐카나(짐카나가 뭔지 모르겠다고? 궁금하면 MAXIM 6월호를 참고하시라)도 체험할 수 있었다. 식사 후, 미니의 역사와 기술에 대한 강의로 꿀잠을 재워주는 알찬 시간까지 마련했다. 이밖에 행사장 안에서는 베이비 레이서 경주(아기 차 타고 노는 어른 많이 볼), 여자 앞에서 가요 잡다 본전도 못 찾는 로데오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다. 하지만 이 떠들썩한 행사 속에서 내내 눈길을 땔 수 없었던 것은 늘씬한 레이싱 모델도, 레이서 형님도 아닌, 바로 미니의 JCW 라인이었다.



쿠퍼와과는 관계없다.

레이싱계의 선구자 존 쿠퍼

이번에 공개된 미니의 고성능 브랜드 JCW(존 쿠퍼 워크스: John Cooper Works)는 '존 쿠퍼'라는 제작자가 만들었다. 존 쿠퍼는 1946년부터 f1이나 f3 같은 경주용 차량을 제작해온 능력 있는 레이싱카 전문 제작자이다. 그는 레이싱계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미노로 우승을 이끌어냈고, 1960년대 스트리트 서킷 레이싱에서도 수 차례 우승을 거머쥐며 미니의 우수성을 증명해온 장본인이다. 그러니 이 JCW 마크가 달린 미니는 레이싱계의 혈통을 제대로 전수받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MAXIM 에디터의 로데오 도전

내려



MINI의 고성능 라인, JCW

JCW를 보고 늘 보던 미니에 줄만 그어 나왔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JCW 출시는 일반 신차 출시와는 다른 개념으로 미니 쿠퍼의 외관과 내관을 튜닝하여 새로운 라인을 만든 것이다. 이미 시중에 여러 옵션으로 미니를 꾸밀 수 있는 스페셜 에디션이 많이 나와 있지만, JCW에 맞춤 개발된 특별한 장비와 액세서리는 JCW가 가진 액티브한 특성을 더욱 부각시켜주며 그만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차체 색상과 림, 도어, 엔트리, 플레이트까지 JCW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부여했으며 전후방 외관과 보닛 안에 부착된 존 쿠퍼 워크스 배지가 그 매력을 더한다. 내부에는 블랙&레드 조합으로 특색을 표현했는데 검은 바탕에 빨간 스티치로 시트에 박음질한 부분 또한 JCW만의 특색이다. 청바지에도 그냥 청바지가 있고 고급 셀비지로 만든 청바지가 따로 있는데, 셀비지로 제작한 데님에는 꼭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으로 스티치를 준다. JCW는 바로 그런 간지를 풍기고 있었다.

향한 레이싱 모델 보러 고고!



튜닝계의 혁신

직접 몰아보니 확실히 달랐다. 액셀을 풀로 밟았다 뿔 때, '피웅~' 하고 공기총 바람 빠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이는 JCW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엔진을 장착해서 나는 소리다. 길 가다가 우렁찬 배기음과 함께 마지막에 '피웅피웅' 소리를 내는 스포츠카가 지나간다면 이런 엔진 튜닝을 했다고 보면 된다. 이 튜닝 덕분인지 JCW로는 기존 미니보다 한층 더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즐길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피스톤, 배기 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해 강력한 심장을 받쳐주었고, 클러치 또한 빠르게 반응해 제로백을 쿠퍼보다는 4초 가량, 쿠퍼S보다는 0.5초 단축하는 혁신을 보여줬다.

미니가 귀여운 외관 덕에 워낙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 혹자는 미니를 보고 '쇼피 좋아하는 강남 언니들 차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니는 결코 쇼피백만을 나르기 위해 태어난 차가 아니다. 2013년 새롭게 개조한 JCW는 미니의 액티브한 감성을 100% 표현한다. 액셀을 밟을 때는 '톡톡' 나가고 밟을 땐 때는 '피웅피웅' 나가고, 생긴 것 같지 않게 단단한 서스펜션, 묵직한 핸들링, 그 덕에 실제 속도보다 훨씬 더 큰 박진감을 느낄 수 있었다. JCW는 진정한 운전하는 맛을 아는 남자의 차다.

뽕뽕한 오디오 시스템

특히 JCW에는 프리미엄 차에만 들어간다는 하만카돈 오디오를 더해서 최적의 음향 시스템을 자랑하는데, '바운스 바운스'한 음악이 사방에서 들리니 당장 해변으로 달리고 싶어졌다. 게다가 빠르게 달릴 때는 그 소음에 비례해 음악 소리도 커지니 이 얼마나 똑똑한 시스템인가?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미니에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폼 나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2, 30대 남성들의 로망이 아니던가.



상남자에게 권한다!

2013 미니 쿠퍼 JCW는 쿠퍼S보다 500만 원 비싼 4,500만 원이다(미니 JCW 쿠페는 4,710만 원). 값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엔진 튜닝에 걸맞는 제동력의 고성능 브레이크가 탑재되었고, 서스펜션도 1cm 낮아져 고속 주행이 훨씬 수월해졌다. 힘도 쿠퍼S보다 27마력 더 높고 쿠퍼와는 89마력까지 차이가 난다. 미니의 귀여운 외관과 폭발적인 레이싱 기능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투자할 만하지 않은가? 완벽한 고성능 튜닝에 익스트림한 감성을 더한 미니 쿠퍼 JCW는 자신만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남성의 마음을 뺏기에 충분했다. 🏎️

미니 JCW 살래? 이거 살래?

미니 JCW의 입을 바싹바싹 타들어 가게 할 해외 경쟁 차들



- 1 소시 윤아 차로 유명한 폭스바겐 시로코 R 4,890만 원



- 2 운동 가장 아닙니다 아우디 A3 스포트백 4,250만 원



- 3 올해 말 국내 출시 예정 벤츠 A클래스 AMG 가격 미정



- 4 1억 이하의 포르쉐 포르쉐 박스터 7,630만 원



MAXIM
시승기
#34

‘7차 개정 교과서’
폭스바겐 7세대 골프

MAXIM이 지난 7월, 새롭게 출시된 폭스바겐 7세대 신형 골프를 시승하기 위해 1박 2일간 거제도에 다녀왔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 거제도의 구불구불한 와인딩 코스라니, 확 달라진 골프를 체험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1980년대 ‘포니’와 ‘프라이드’의 해치백 전쟁이 전설로 남은 이래로 해치백의 무덤이 된 국내 소형차 시장이 최근 부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골프는 항상 선두에 있었고, 많은 해치백 자동차들은 골프를 벤치마킹했다. 그래서일까? 7세대 골프를 만든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한목소리로 “완벽한 차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든 점이었다.”라며 자랑 섞인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행사에서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7세대 골프를 두고 ‘완전히 개정된 교과서’라고 말했다. ‘해치백의 교과서’로 불려 온 골프가 또 다시 해치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일단 확연히 달라진 점은 몸집은 커졌는데 무게가 줄었다는 것이다. 사람 체중을 1kg 감량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든 일이 자동차 중량을 1kg 줄이는 일이다. 하물며 7세대 골프는 강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100kg 경량화에 성공했다. 그 덕일까? 6세대를 운전했을 때는 디젤차답지 않게 급가속 반응 속도가 더디다는 느낌이 들었던 반면, 7세대는 낮은 RPM에서도 큰 무리 없이 속도계가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핸들링은 여전히 명불허전 골프다웠다. 휠베이스는 길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운전자의 의도에 거의 근접하게 움직여주니 거제의 비 오는 와인딩 도로도 문제 없었다.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올해 남은 기간 내에 7세대 골프를 5,000대 이상은 충분히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전히 개정된 7차 개정 교과서’ 폭스바겐 골프 7세대가 국내 소형차 시장에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기대된다.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7세대 골프
시승기 더
자세히



MAXIM
시승기
#35

‘후렌치 레볼루션’
시트로엥 DS5

시트로엥 공식 수입원 한불모터스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PDI 센터를 전격 공개하고, DS 시리즈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 PDI는 Pre-Delivery Inspection의 약자로 수입차가 평택항에 도착한 뒤 차량을 점검 및 보관하는 곳이다. 프랑스에서 평택항에 도착한 시트로엥과 푸조의 모든 차량은 이곳 PDI 센터에서 워싱, 세차와 건조 과정을 거친 뒤, 기능 점검·인테리어 점검·외관 점검과 차량 외부에 광을 내는 폴리싱 과정을 거쳐 최종 점검을 통과한 다음 전국의 각 전시장으로 배송된다. 이날 MAXIM은 프랑스 대통령의 의전 차로 유명세를 치른 DS5를 시승했다. ‘고급 차 = 대형 세단’이라는 공식에 익숙한 우리나라 운전자 중 한 명으로서 “과연 이 차가 대통령 의전 차량으로 가당키나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평범한 중형 크로스오버가 대통령 의전 차량이라니! 박근혜 대통령이 i40을 타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내 DS5가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의 고장인 프랑스 출신답게 든직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물론, 디젤차 특유의 그르렁거림조차 거의 없는 정숙함은 운전하는 내내 고급 세단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길게 뻗은 화성의 화옹 방조제 코스를 고속으로 달리자 가속이 매우 더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확실히 패속 주행보다는 안정 주행을 신경 쓴 듯했다. 뭐 나쁜진 않다. 연인 사이도 그렇잖아? 패속으로 진도를 빼기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권태기가 천천히 찾아오는 법이라고!



DS5
시승기 더
자세히



MAXIM
시승기
#36

PEUGEOT 208 1.6 e-Hdi

경차보다 낮은 마력, 말도 안 되게 높은 연비, 그럼에도 마치 소형 스포츠카처럼 생갈있게 튀어나가는 주행 성능. 이번 달 MAXIM이 수입 소형차 중 단연코 가장 미스터리한 녀석을 소개하겠다. 208과 함께한 나흘간의 탐색전에 편집장을 비롯한 5명의 기자가 동참했고, 에디터 한 명은 모델까지 자칭하며 난리 법석을 떠 이유가 궁금한가?

MODEL 김희성 WORDS 이영비 유승민 김희성 손안나



간만에 희성씨 뒤에 보니 반갑다.



오늘 모델할 차는 친환경 푸조 차인데 의상은 완전 F-1그랑프리네?



이 날 MAXIM 요트 파티 때문에 유니폼 입을 김에 모델도 섰죠. 콘셉트는 '파티하려고 히치하이킹 하는 중' 이에요. 히히.



그런 상황이면 난 길에서 푸조를 세울 것 같진 않아요. 푸조는 웬지 클럽, 파티랑은 거리가 멀고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이 몰 것 같거든.



그래? 3008, 508이면 몰라도 208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젊고 굉장히 돌풍한 남자가 탈 것 같은데?



208이 울드해 보이진 않지만... 전 유독 푸조 끌고 나타나는 남자 보면 "으흠 그래 너 외제차 타고 싶었구나 (용 썼네)"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산 타긴 싫고 아우디나 BMW 살 능력은 안 돼서 차선책으로 푸조를 산 것 같아요.



그래? 난 오히려 반대야. 나이도 젊은데 너무 비싼 차 타면 엄마가 사준 것 같던데. 오히려 푸조 208정도 타는 남자는 열심히 자기 힘으로 벌어서 할부금 내는 남자로 보여. 그러니까 연비도 중요한 선택 기준일테고. 엄마가 차 사 준 남자는 기름도 엄마 카드로 넣을테니 연비 같은 거 신경 안 쓰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철딱서니도 싫긴 한데, 쪼들리면서 굳이 외제차를 골겠다고 푸조를 택하는 허세남도 별로임.



하지만 푸조 208이 그런 외제차는 아닌 것 같아. 수입차가 2천만 원 대라는 것부터가 완전 개념있잖아. 그리고 과연 허세 부리려고 모닝보다 마력이 낮은 차를 타고 다니겠어?



모닝보다 출력이 낮다고? 이게 몇 마력인데? 모닝은 80마력밖에 안 돼잖아.



지금 물고 계산 1,600cc 말고요. 그 아래 1,400cc도 있는데 그게 68마력이라요. 편집장님은 직접 운전해보니 어떠세요?



흐흐 난 '208을 타는 남자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고, 진지하게 이거 사고 싶어지려 한다. 어떻게 100마력도 안 되는 차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디젤이니까 당연히 저속에서 치고 나가는 힘은 휘발유 차보다 훨씬 좋겠죠.



그거 감안했는데도 그 이상이어서 하는 소리야. 대충 어디쯤이 한계인지 알아보고 있는데 100km/h 넘어서 120km/h까지도 쪽쪽 나가는데?



에디터의
히트하이크
영상



혹시 맥심 파티
가시는 길이면..



2,990 만 원

**초심자를 위한
자동차 읽는 법**

“배기량이 뭐죠?”

여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도 모르냐며 면박을 줄 건가? 하지만 막상 배기량이 뭐더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차가 머플러를 통해 뿜는 배기가스의 양인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다. 엔진에서 원통 모양의 실린더 안에 있는 피스톤은 위 아래로 움직이며 원통 안으로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했다가, 연료와 함께 폭발시키는 일을 반복한다. 배기량이란, 이 때 원통 모양 실린더의 체적, 즉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기의 부피를 말한다. 이 안에 들어가는 연료가스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폭발력이 더 커지니까, 배기량(cc)이 높을수록 차의 힘도 세지는 거다. 물론 그럴수록 기름도 많이 먹기 때문에 자동차 세울도 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배기량이 높으면 세금도 높고, 낮으면 세금도 덜 낸다고 설명해주면 잘 와 닿겠지? 자,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은 자동차 박사 훈남으로 각인됐다.

집.. 집장님 그래도 우리 조금만 살살 가요, 달달달...
 M 뭐야 이거... 아침에 읽고 나온 다른 매체 기사 시승기에선 '100km/h 넘어가면 차가 힘들어 한다'고 적어놨던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M 푸조 208이랑 비슷한 등급 국산차는 어떤 게 있어요?
 M '현대 액센트'가 같은 1,600cc 디젤 소형차지. 푸조 208이랑 차 값은 딱 천만 원 차이.
 M 당연히 천만 원 더 주고 이거 사겠다. 연비가 극강인데 기름값 생각하면 천만 원 금방 뺏지.
 M 연비 아니라도 이걸 액센트랑 비교하면 이 녀석한테 미안하지. 안나 너도 액센트 끄는 남자랑 푸조 208 끄는 남자랑 누가 좋아?
 M 크.. 사람을 어찌 차로 판단합니까만은... 액센트는 뭔가 힘겨워보이는 이미지라... 208이 걸은 그냥 그랬는데 인테리어가 괜찮네요. 뭐랄까, 모터쇼에 있는 친환경 콘셉트가 안에 들어 온 느낌이에요. 밝고, 심플하고, 다 투명하고 둘러싸고 계기판 둘레에 파란색 LED라인 완전 예쁘지?
 M 로봇 눈갈 같아. 무엇보다 자봉이 거의 전체가 투명하게 둘러 있어서 깜짝 놀랐어. 자연광만으로 차 안이 이렇게 밝을 수 있구나! 아예 같아.
 M 안나는 외부 디자인은 별론가 보네? 난 차체도 맘에 들거든. 전체가 동글동글 귀여운데 헤드 램프, 리어 램프 눈매가 독특해. 매서운 눈매의 풍영이 같이. 푸조 208 디자인에 신용욱이라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함께 했다.
 M 푸조가 프랑스 차 아녜요? 프랑스에서 자동차 디자인하는 남자라니 좀 멋있다. 퇴근할 때 바게트 빵을 종이 봉투에 담아 들고 파리를 거닐겠네. 그러게. 패션 디자인하는 남자는 멋은 있어도 웬지 성격도 엄청 까다로울 것 같고 게이스러운 것 같아서 별로였거든. 하지만 자동차 디자이너라니 완전 남자답고 좋다. 파리 출장은 내가 가야겠다.
 M 대중 견어울린 흰 셔츠 소매에, 팔뚝엔 혈관이 죽죽 튀어 나와 있겠지? 아흑, 그리고 보니 이 차도 아까 봤을 때보다 훨씬 멋져 보인다.
 M 우와, 이 큰 선루프 가장자리에 푸른색 무드 조명이 내장돼 있어! 어떻게 열지? 음... 음... 열리지 않는 선루프구나.
 M 남자랑 드라이브하다 시트 젖히고 별구경하면 로맨스가 막 솟구치겠네.
 M 앗, 안나씨, 뒷 좌석은? 뒷 좌석도 넓어?
 M 내가 너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넌 시승차만 타면 왜 꼭 뒷 좌석을 확인하냐. 까져갔고.
 M 별로 안 넓어요. 구 모델인 207보다 레그룸을 5cm 늘렸다고 하는데, 회성 선배가 만족할지는... 선배, 시트 젖혀져야 되죠?
 M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저 동승자가 편안할지 궁금했던 것 뿐이에요! 어머, 그런데 이 차는 기어 레버가 왜 이렇게 심플하죠? P(파킹)이 없네요? D(주행)도 A라고 적혀 있어요.

M 흐흐 왜 갑자기 편소리아? 하지만 중요한 걸 짐었으니 넘어가 주지. 맞아. 208은 N(중립)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서 정차하는 방식이야.

A는 AUTO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편집장님은 왜 오토로 운전 안 하시고 M에 놓고 수동 변속하시는 거예요? 왓 저건 실마... 패들 시프트?

M 이거 보여? 기어 레버에 P도 없는 2천만 원대 수입차에 패들 시프트가 있다니 정말 별종이다.

A 저거 알아요. F1 머신에 있는 변속기잖아요. 승민 선배 시승차 타보면 정말 비싼 차에만 있던데. 편집장님도 쓸 아세요? 멋있대!

A 멋은 있는데 과연 92마력짜리 소형차에 그게 꼭 필요할까요? 난 저것도 좀 허세 같아요.

M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회심씨, 내가 어제 푸조의 MCP 변속기에 대해 조사해 오라고 했지? 한번 물어봐.

A 넌, 아시다시피 모든 차는 수동(스틱)변속일 때의 연비가 AUTO일 때보다 훨씬 좋은데요. 푸조의 MCP 변속기도 구조적으로 수동 변속기라서 연료 절감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운전자가 그 수동조작(클러치&스틱 조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MCP가 대신 해주죠.

M 오 좋았어. 유승민이 밑에서 3년 넘게 굴렀더니 너도 이제 선수 다 됐구나. 그래 맞아. 모순되게 들리겠지만 '수동 조작이 필요없는 수동 변속기'라는 개념 파괴적인 기술을 만들어 낸 거지. 안나 이해 돼? 스틱 조작이랑 클러치를 안 쓰는데도 수동의 연비가 나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먹으면 살 빠지는 피자? 원고를 안 내도 월급이 나온다?

A 천재네.

A 짱개만 시켜 먹어도 중국어가 된다? 키스만 해도 양치가 된다?

M 그만해라 이제 여튼 애네만이 가진 이 기술이 푸조를 '연비 지존'으로 만드는 거야.

A 그런데 이거 공인연비 18.8km/L 아니예요? 지금 우리 평균 연비 23km/L 넘겼어요!

M 208에게 공인 연비는 무의미해. 고속도로에서 30km/L 찍는 사람 많아. 재작년인가 푸조에서 연비 대회했는데 1등한 아저씨가 37km/L로 우승했어.

A 응? 그럼 이 경유차가 웬만한 하이브리드 차들을 연비로 이긴다는 얘기네요?

M 그런 셈이지. 요즘은 세계 자동차의 판도는 연비 기술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니야. 인터넷 보면 분기나 반기마다 국산, 수입 등 모든 차종을 망라해서 연비로 순위를 매기는 차트가 아마 있을 걸? 안나 한 번 찾아봐.

A 네 잠시만요. 있네요. 4위 BMW 3시리즈, 3위 시트로엥 DS3, 2위가 토요타 프리우스, 1위가 푸조...208? 이거잖아!

A 정말이야? 당연히 아직도 토요타 프리우스가 세계 연비 1등인 줄 알았는데? 프리우스가 나오고 한 15년 동안 아마 한 번도 연비 순위에서 1등을 뺏긴 적 없지 않나요? 충격인데?

M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하이브리드카도 이 경유차를 연비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군.

A 아하하... 이거, 평범한 차가 아니었군요. 아까 제가 한 말 취소.

A 우왕! 영국의 푸조 운전자가 이 엔진으로 역대 최고의 연비 기록을 세웠대요. 무려... 월, 44.8km/L? 44.8을 찍었대요.

M 뭐라고? 44.8이라고?

A 그 양반 시동 끄고 달렸나... 🚗



SPEC CHECK

배기량
1,560cc

엔진
1.6 e-Hdi

연료 다절

공인 연비
18.8km/L

최대 출력
92마력

승차 인원
5인승

구동 방식
앞바퀴 굴림

변속
MCP자동 6단

최대 토크
23.5kg.m

최고 속도
183km/h

차체 길이
3.96m

Motor news

폭스바겐코리아, 7세대 신형 골프 출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디자인 감성에 혁신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골프가 7세대로 재탄생해 국내에 출시된다. 폭스바겐의 첫 MQB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모델로 군더더기 없는 혁신적인 설계 디자인으로 100kg이나 감량했다. 세 가지 모델인 골프 1.6 TDI 블루모션과 2.0 TDI 블루모션, 프리미엄 모델로 구성되었다. 4가지 주행 모드로 운전의 재미까지 극대화한 7세대 골프는 2.0 TDI 블루모션 기준 최고 출력 150마력과 제로백 8.6초를 자랑한다. 폭스바겐의 전설, 골프의 7세대 모델. 이번 모델도 환승 욕구를 마구 자극하네!
폭스바겐코리아(www.volkswagen.co.kr)



가격이 가벼워진 재규어 XF

고품격 럭셔리 스포츠 세단 재규어 XF의 일부 모델의 가격이 낮아졌다. 브리티시 럭셔리리카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전략적인 가격 정책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링 모델 XF 2.2 디젤은 450만 원을 낮추고 2.0 가솔린 모델은 600만 원이나 가격을 인하했다. 엔트리 모델인 XF의 가격 인하 전략으로 신규 고객을 늘리려는 재규어, 착해진 가격으로 더 멋져진 재규어 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질주하자!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02-2071-7000)



마세라티, 신차 교환 특별 프로모션

이탈리안 명품 자동차 마세라티가 2013년 여름 맞이 신차 교환 특별 프로모션 Maserati Assurance Program을 진행한다. 그란투리스모 모델을 구입 후 1년 내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적으로 수리나 보상 대신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다. 또한 저금리의 최대 36개월 할부와 금융 리스 프로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금전적 걱정을 덜었다. 프로모션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역시 마세라티다운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프로모션이다.
마세라티 공식 전시장(02-3433-0888)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Cool 프로모션 실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B-Cool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B-Class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휴가 기간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Summer B-Cool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성품은 총 세 가지로 콜맨의 쿨러 제품, BBQ 용품, 접이식 수납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 24개월 무이자 금융 프로그램도 준비해 구매 고객의 금전적 부담까지 줄였다. 올 여름은 B-Class 타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원한 바캉스를 떠나보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www.mercedes-benz.co.kr)



한불모터스(주),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공식 협찬

프랑스 감성과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 제조사 시트로엥의 공식 수입원 한불모터스가 제17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공식 후원한다. 푸조의 컨버터블 차량인 308CC와 프리미엄 세단 508, 시트로엥 DS5 등 총 10대의 차량이 국내의 영화계 인사들을 레드카펫으로 예스코트할 예정이다. 영화제 기간 동안 차량을 라운지에 전시하여 영화 관람객이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부천 영화제는 오는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
한불모터스(주) (02-545-5665)

Style

Show Your Stripes

스트라이프 폴로셔츠가 빈약한 몸을 한층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있나?

1. 노티카

사이키델릭 조명을 연상시키는 형형색색 스트라이프 컬러 조합이 당신을 잘 노는 오빠처럼 보이게 해준다. 레인보우 스트라이프 폴로셔츠, \$70

2. 램스

지적이고 차분하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 친절한 대학 선배의 이미지란 이런 것! 스트라이프 폴로셔츠, \$45

3. 아이조드

따뜻한 색상의 스트라이프가 여성의 모성 본능을 일깨운다. 누나에게 사랑받고픈 연하남에게 추천한다. 단델리온 폴로셔츠, \$44

4. 라코스테

빨간 비대칭 포인트가 돋보인다. 당신에게 깔끔한 인상과 신뢰감을 심어줄 필살 아이템. 슬림 핏 변형 줄무늬 폴로셔츠, \$110

5. 타이힐피거

흰색, 파란색, 빨간색 스트라이프가 경쾌하다. 잘어 보이고 싶지만 어려 보이고 싶지는 않은 직장인에게 추천. 뱅크스 스트라이프 폴로셔츠, \$78



PHOTOGRAPH: JEFFREY WESTBROOK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소녀



Style

Watch



LOOK OUT! WATCH OUT!

손목 위 스타일 익사 방지를 위해 준비한
여름용 스포츠 시계 퍼레이드

BY 조용재 PHOTOGRAPH YuD

1. GUESS Rigor

아름답지만 남성기가 활활
흐르는 핑크 로즈 골드
컬러의 메탈 소재와 시원한
블루 컬러의 우레탄 소재를
접목한 게스 워치의 신상 라인.
곱상하게 생긴 것과 달리
100m 방수 기능을 자랑한다.
가격 238,000원

2. LUMINOX SCOTT CASSELL SPECIAL

미군이 실제 작전에 투입될
때 차고 다니던 내구성 갑
루미녹스의 아웃도어 라인.
일반 야광보다 100배 밝은
자체 발광형 야광과 단단하기로
소문난 카본 소재를 사용한
(워치 오브 스틸). 200m 방수.
가격 520,000원

3. AVIO MILANO SUPER CHRONOGRAPH

'밀라노'라는 스파게티스러운
이름답게 디자인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아웃도어 시계.
강렬한 컬러의 베젤은 총 여섯
가지로 취향에 따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념을
상실한 가격은 구매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 50m 방수.
가격 100만 원대(미정)

4. TACS TS1201

카메라 렌즈처럼 생긴 디자인이
인상적인 시계. 가벼운
프레임과 블랙&화이트 조합이
깔끔하지만, 유명 디자이너의
벽질이 시계처럼 숫자를 모조리
지워버려 시인성은 떨어진다.
원래 예쁜 것들이 다루기가
힘든 법이니까. 50m 방수.
가격 미정

5. ALBA ACTIVE GENTS AU2097X

무난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 세이코 알바의 신형
아날로그 모델.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블랙 컬러의 프레임과
가죽 스트랩에 초록색 포인트를
줘 마치 '후레시맨' 2호가 된
느낌을 준다. 100m 방수.
가격 320,000원

ASSOCIATE: 김세형, 김소윤, FILM: 김상수
 COOPERATION: 개우원(02-551-7045), 컬러마이클(02-3284-1800), 미팅시계(02-757-0666), 에이코(02-551-3182), 라퍼그로리(02-3149-9649), 에버스트(02-518-0771)



6. SUUNTO QUEST

아웃도어 브랜드 순도에서 출시한 아웃도어 활동용 라인. 패션 시계 같은 외관과는 달리 실시간 심박수, 실시간 속도 등을 알려주고 스톱워치 기능도 탑재했다. 30m 방수. **가격 350,000원**

7. ALBA AQ2017X

제시카 알바도, 옆 동네 편의점 여자 알바도 그렇듯 알바는 대체로 예쁘다. 기능성을 중시하면서도 컬러풀한 포인트로 디자인적 요소를 놓치지 않은 알바 디지털 시계의 최신작.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시각 표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100m 방수. **가격 260,000원**

8. TIMEX T49922

타이맥스의 T499XX 라인 중 가장 장난감스러운 컬러를 자랑하는 디지털시계. 칙칙한 컬러에서 벗어나 신뜻한 여름 느낌이 나는 블루와 그린 컬러 우레탄을 도입했다. 50m 방수. **가격 118,000원**

9. TIMEX IRON MAN

백색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타이맥스의 장수 모델. 아웃도어라기보다는 하드코어라고 하는 편이 맞겠다. 맘이 차도 끈적이지 않는 착용감과 강한 내구성이 일품이다. 아, 이름은 '아이언 맨'인데 토니 스타크가 차고 다니지는 않는다. 100m 방수. **가격 126,000원**

10. SWATCH POLAR WIND

손목시계로서는 세계 최초로 100%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용한 모델이다. 알람, 듀얼타임, 스톱워치, 타이머 등 기능을 액정 조작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아기자기한 장난감 같은 느낌이라 남성미 따윈 안드로메다로. 30m 방수. **가격 167,000원**

에디터 제작
초소형
시냇가!



Style news

크록스, 레트로 스니커즈 출시

크록스가 80년대 빈티지 스타일의 레트로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클래식한 스웨이드와 우수한 통기성의 마이크로 메시 소재를 활용하여 우수한 착용감과 경쾌함이 돋보인다. 또한 크록스가 개발한 크로슬라이트 소재를 적용해 장시간 활동에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중 고무 밑창으로 내구성을 높였고 미끄러짐을 방지해 비오는 날에 신어도 안전하다.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어 여름철 야외활동에 커플룩을 연출하는데 안성맞춤이다.

59,900원, 크록스 코리아(1661-0677, www.crocs.co.kr)



톰포드 선글라스로 바캉스룩 종결자가 되자.

톰포드에서 바캉스룩의 마침표를 찍을 선글라스 TF9313을 선보였다. 톰포드 특유의 T자 로고가 돋보이는 오버사이즈 스퀘어 프레임은 시크한 차도남의 이미지를 어필한다. 또한 투명 아세테이트 소재를 사용하여 트렌디한 멋과 청량감을 더했다. 핑크, 그레이, 레오파드, 블랙 총 4가지 색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했다. 톰포드 TF9313 선글라스를 낀 당신이 올 여름 바캉스룩의 종결자가 된다.

세원. T.C(02-3218-8310)



라틴 감성의 가죽 가방 베라베라, 한국 공식 런칭

테일러 스위트의 사철백으로 유명세를 탄 영국의 핸드메이드 가죽 가방 브랜드 BearaBeara를 드디어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BearaBeara는 질 좋은 가죽을 사용하여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견고한 가죽 가방으로, 코디에 지나치지 않은 포인트로 사용하기 적당하다. 특히 이번 El Dorado 사철백은 수납 공간도 넓고 남성의 각종 코디에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다. 클래식한 가죽 가방으로 센스 있는 남자에게 추천한다.

411,200원, 베라베라 (www.nonsenseandcompany.com)



퀵실버, 호크스모어 앰피비안 보드숏 출시

세계 1위의 액션스포츠 캐주얼 브랜드 퀵실버가 심플한 컬러가 돋보이는 보드숏 호크스모어 앰피비안을 출시한다. 활동시의 마찰을 최소화한 디자인을 통해 피부 트러블을 방지한다. 뛰어난 속건성 기능은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날씨에도 남자의 하체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유지시켜준다. 심플한 컬러의 조화와 뛰어난 신축성은 일상생활에서도 멋진 스타일을 선사하며 기능적이기까지 하다. 멋과 실용성을 잡은 호크스모어 앰피비안 보드숏을 입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자.

69,000원, 퀵실버(www.quiksilver.kr)



파리게이트 캐주얼의 피케 셔츠로 나이스 가이!

무더위에 습한 여름이지만 후줄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멋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인 파리게이트 캐주얼에서 선보인 피케 셔츠를 입어보자. 다채로운 색감과 유니크한 패턴의 조화로 감각적인 멋을 살리고 원색을 사용한 플라워, 스트라이프 패턴을 넣어 강렬한 연출이 가능하다. 이글거리는 태양만큼이나 핫한 멋스러움을 뽐내고 싶다면 파리게이트 캐주얼의 피케 셔츠를 추천한다.

파리게이트 캐주얼(www.pearlygates.co.kr)

**Watch
out!**



더위까지 책임질 청량감. 헬다이버 SB2C-1002M

한눈에 봐도 시원한 실버 메탈과 블루 코팅 글라스로 시선을 끄는 헬다이버 SB2C-1002M 메탈 모델이 인기다. 빅사이즈에 오픈 스타일 용두와 회전 베젤을 더하여 단조로운 모델과는 차별을 뒀다. 또 JAPAN 무브먼트를 장착하여 요일과 시간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여 실용성까지 갖췄다. 블랙, 로즈 골드, 실버의 3가지 색상이 대기 중이라 입맛에 맞게 고르기만 하면 시원한 여름 준비 끝! 지금 헬다이버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자.
335,000원, 헬다이버(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모던한 커플 시계, 자스페로 ESTREMO 라인

커플룩은 촌스러워서 싫지만 연인이라는 자랑질을 꼭(?)하고 싶다면 자스페로의 ESTREMO(에스트레모) 커플 시계를 추천한다. 튀지 않는 모던한 가죽 스트랩에 고급스러운 길로셰 패턴 다이얼과 피라미드 패턴의 베젤에 로즈 골드 색상을 넣어 세련미를 살렸다. 또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세팅된 크라운이 더해져 튀지 않으면서도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커플! 자스페로에 그 방법이 있다.
432,000원(남녀 각각),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루미노스, 모험을 위한 8831.KM 모델 선보여

루미노스가 산행이 많아지는 여름철, 익스트림한 환경에서 제 빛을 발하는 New Luminox 8831.KM 모델을 출시한다. 직경 46 밀리미터의 견고한 PC 파이버글라스 케이스를 코팅 처리하여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위스 멀티주얼 쿼츠 무브먼트를 넣어 정교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모델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나침반을 채택하여 아웃도어 활용성을 높였다. 물론 어둠 속에서 별도의 동력 없이 밝은 빛을 25년 간 유지하는 루미노스 발광 테크놀로지는 기본이다.
미림시계(02-757-9866, www.milimwatch.co.kr)

ALBA, 시그나(Signa) AF3F17X 출시

ALBA에서 세계 최초로 비행기 조종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를 기리는 리미티드 에디션 AF3F17X를 출시한다. 라이트 형제의 열정에 대한 오마주인 레드 컬러가 베젤과 용두에 적용되어 강렬한 포인트로 시선을 모은다. 기능도 충실해서 비행에 필요한 회전형 계산 기능, 1/20초 크로노그래프를 담았다. 국내 단 100점만 한정 출시한다. ALBA는 명성의 시계 브랜드 SEIKO의 패션 시계 라인 SEIKO 위치의 정확성과 고급스러움에 실용성을 더했다. 실용적인 위치는 ALBA에서 럭셔리 위치는 SEIKO에서 만나볼 수 있다.

36만 원, 삼정시계(02-511-3182)



잉거솔, 더글라스 메탈 시계 7월로 출시 앞당겨

미국 명품 브랜드 잉거솔(ingersoll)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위해 단독 개발하여 화제가 된 더글라스 메탈 버전. 올 가을에 전 세계로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고객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국내에서는 7월로 앞당겨 출시되었다. 120년 전통의 기계식 시계답게 더글라스 메탈 버전은 블루 포인트 크라운과 글라스 백 케이스 등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독일 디자인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심플한 디자인의 스틸 케이스와 밴드로 시원함을 주며 세련된 남성의 품격을 돋보이게 한다.

거노 코퍼레이션 (02-3397-7100)

Fight

강한 남자 #2. 로드FC 밴텀급 챔피언 이길우

 MAXIM과 강한 남자가 조우하는
인터뷰 시리즈 '강한 남자'.
그 두 번째 주인공은 그냥도 힘든
종합 격투 선수의 길을, 선천적 난치병
이겨내고 묵묵히 걸어온 이길우 선수다.

BY 이영비

경기는
영상으로



축하한다. 챔피언! 우리나라 밴텀급에서 제일 센 남자가 되었다!

꼭 되고 싶었다. 이를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보니 이런 영광을 얻었다. 너무 기쁘다. 그날 사진도 많이 찍고, 축하 인사도 정말 많이 들어서 행복했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응원해준 팀 동료들에게 진짜 감사하다.

거 시합 끝나고 멍치 산만한 남자들끼리 부둥켜안고 막 울던데?

이재선 감독님, 유우성 관장님이 시합 끝나자마자 링 위로 올라와서 보듬어주고 눈물을 흘리셨다.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파이터 중엔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두어 명 죽을 때까지 마시는 케이스도 있다. 당신의 승리 뒤풀이는 어땠나?

경기가 열린 원주에선 간단히 밥 먹고 차 마시고 새벽에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서울에서 축하주를 일주일 동안 마셨다.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닌데,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마신다. 마시면 소주 3병 정도는 들어간다. 시합이 잡히면 입에 대지 않는다. 담배는 피워본 적도 없다. 목소리 때문에 피울 생각도 안 했다.

그 목소리는 '선천적 후두유두종'이라는 병 때문이라고 들었다.

기도나 성대 후두에 자꾸 사마귀 같은 것이 생겨서 어렸을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수술을 했다.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 제일 힘든 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점이다. 항상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목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데, 짜증나고 화날 때도 많다. 이제 그만 좀 물어보라고~(웃음) 그리고 수술을 하면 3개월 동안은 말이 잘 안 나온다. 어릴 땐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엔 일도 해야하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 혼자서 택시 타기도 힘들고, 그럴 땐 글로 써서 보여주곤 한다.(웃음)

어릴 때부터 운동 신경이 좋았으니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았겠지?

무슨 운동이든 조금만 배우면 다 잘했다. 축구부에 들어오라. 복싱부에 들어오라... 권유도 많이 받았다. 어릴 때도 체구는 작았지만 강대구가 있었다. 나보다 큰 사람일지라도 시비가 붙으면 그냥 싸웠다. 코피도 나고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건들더라.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자면?

나도 어렸을 때는 목소리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다. 누가 내 목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 더 말을 많이 하곤 했다. 아주 질리게 듣도록 말이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맞서 싸워라. 공부도 좋지만 나는 학생들이 운동 한 가지 정도는 배우길 권한다. 나도 운동을 하면서 많이 밝아졌다.

당신은 어떻게 처음 격투를 접하게 되었나?

광주에서 육고를 지나가던 중 '특공무술'이라고 쓰인 체육관 간판을 보게 됐다. '오~ 저거 배우면 강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입관을 하게 됐다.

본인이 프로에 데뷔할 만큼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은 언제인가?

두 달 동안 시합을 준비하고 선발전에서 우승을 했다. 광주에 특공무술 체육관만 30개 이상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당당히 우승을 한 거다.

실전 훈련이나 링 위에서 어떤 때 가장 약이 오르나?

나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처럼 붙으면 약이 오른다. 당연히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밀에 깔려서

로드FC 밴텀급 챔피언 이길우

생년월일 1983년 2월 19일
태어난 곳 전라남도 고흥군
소속 팀 파시
키 174cm
체중 평소엔 70kg이나
시합 때는 62kg
본인의 주특기 "타격.
남들보다 레프트훅이 좋은 편이고, 펀치 속도도 빠르다.
보는 눈도 좋은 것 같다."



못 나올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약이 오른다. 살이 찌서 복수해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난 살이 안 찌는 체질이다!!

5년 뒤, 당신은 뭘 하고 있을까?

이래봐도 한식 자격증이 있는 남자다. 5년 뒤에는 나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다. 당장은 부족한 점을 빨리 채워서 빨리 방어전을 하고 싶을 뿐이다.

프로 선수가 안 되었다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있겠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장어집을 하신다. 사실 서울 올라오기 전에 2년 동안은 어머니 일을 도와드렸다. 지금도 어머니는 내려와서 뒤편을 이으시라고 하신다.

병을 이기고 챔피언 자리에 오른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본인 이야기를 뉴스로 보면 기분이 어떤가? 막 부끄럽고 그러나?

당당히 병과 싸워서 이기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기쁘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방송 나오는 걸 싫어하신다. 자신이 아프게 낳은 아들 모습을 보실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

당신 활약에 영감을 받아 무엇엔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응원 한 마디 하자면?

실제로 연락해오는 분들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승자다. 지금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면 끝이다. 아무 것도 아니다. 원하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잡념을 버려라. 간절히 그것을 원하면 이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길우 선수가 MAXIM 표지에서 만나고 싶은 여자는 누구인가?

신수지. 이번에 시구하는 모습에 반했다!



충격! 격투 신 실신 KO패, 짜놓은 각본이다?



앤더슨 실바가 졌다. 10연속 챔피언 방어전을 치른 탈인간 급 현존하는 최강 투신(鬪神)이 뜻내기 신인에게 굴욕적인 TKO로, 대체 그날 경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7월 7일 일요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벌어진 UFC 162의 메인이벤트, 도전자 크리스 화이트맨의 레프트 훅을 허용하고 다운당한 앤더슨 실바는 화이트맨의 후속 파운딩에 정통으로 걸리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MMA 17연승, UFC 16연승, 6년 9개월간의 10연속 타이틀 방어라는 대기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경기 영상
다시 보기





1 SIGN

프로들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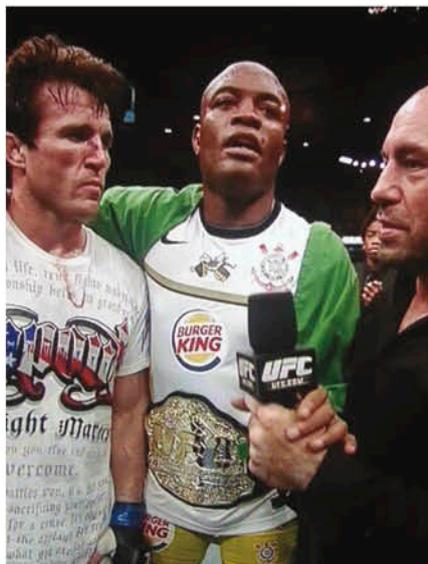
와이드맨전의 패배는 많은 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미 그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경기 전, 프로 파이터와 지도자들은 의외로 와이드맨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55명의 전·현직 유명 파이터가 실바-와이드맨전을 예상했는데, 그중 29명이 실바를, 20명이 와이드맨을 승자로 전망했고, 6명은 예상을 포기했다. 즉 실바의 지지율은 52.7%, 와이드맨은 36.3%였던 것.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선수가 와이드맨의 승리를 예견했다.

라스베이거스는 알고 있었다?

격투 스포츠업계에는 “Vegas Knows”라는 말이 있다. 라스베이거스 도박판의 ‘판세’가 가장 유효한 승부 예상 지표라는 의미다. 자신의 돈을 걸고 배팅을 하는 이들만큼 승부 자체에 냉철한 관점을 지닌 집단은 없으며, 그들 중 최고의 도박사가 세계 제일의 격투기 이벤트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빅 매치를 앞두고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실바-와이드맨전을 7:3으로 실바가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와이드맨이 이길 확률이 30%는 된다고 본 셈이다. 실바의 가장 최근 경기인 스테판 보너전은 9:1, 소넨 1차전은 8:2, 소넨 2차전은 7:3이었다. 대부분 실바의 경기 배당은 8:2~9:1을 넘나들었다. 그런데 겨우 9전짜리 신예가 38전의 P4P 1위이자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는 실바를 상대로 30%의 승리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였다.

실바도 알고 있었다?

경기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UFC 공식 행사에서 실바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고 더



이상 이기고 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모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경기 직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와이드맨을 상대로 한 완벽한 경기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실바: 크리스 와이드맨, 와야야야(관중석 함성 연출) 크리스 와이드맨, 크리스 와이드맨이 세계 최고야! 크리스 와이드맨이 UFC의 새 챔피언이다!

기자: 리매치가 바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가요?

실바: 아니요. 전 지쳤어요. 리매치는 없습니다. 지난 경기를 돌아보면 저는 이기고 이기고 또 이겼어요. 제발...

마치 자신의 패배를 예견하는 것 같은 말이다. 경기 전에 선수들은 대개 자신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어떻게 승리를 차지할 것인지 말하기 바쁘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차엘 소넨과의 2차전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 소넨을 1라운드에 KO시킬 것”이라고 말했던 실바였기에 기자도 그런 말을 예상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런데 실바의 대답은 달랐다.

2 THE FIGHT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예상대로

평소처럼 실바는 빠르게 움직이며 와이드맨의 반쯤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와이드맨이 테이크다운에 성공했고 파운딩을 몇 대 꽃아 넣은 후 서브미션을 시도했지만 실바가 탈출해 다시 스탠딩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예상한 전개, 바로 그대로였다. 와이드맨의 그라운드에는 위협적일 테고, 실바가 경기 초반에 몇 번 테이크다운을 당하리라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개였다. 실바의 ‘쇼’ 역시 마찬가지였다. 1라운드 후반 다시 스탠딩으로 돌아간 실바는 가드를 내린 상태에서 얼굴을 내밀고 손짓을 하면서 와이드맨을 도발했다. 이것은 그라운드로 가기 피곤한 상대를 만났을 때 실바가 흔히 사용하는 패턴이다. 탈레스 레이테스, 데미안 마이아전에 이어 세 번째 나오는 실바의 ‘극도발’ 모드였는데 레이테스, 마이아, 와이드맨의 공통점은 모두 주짓수가 강하고 힘이 좋은 선수라는 점이다. 실바의 도발 역시 모두가 예측한 바였다.

결과는 예상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나 결과는 실바의 KO패, 와이드맨의 승리 시나리오는 레슬링 주짓수 능력을 이용해 그라운드에서 테이크다운을 계속 성공시키고 파운딩을 치면서 서브미션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누구도 와이드맨의 KO승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왜였을까?

와이드맨의 그래플링은 강했다. 실바로서는 와이드맨이 테이크다운 생각을 잊고 스탠딩으로 싸울 마음이 들게끔 프리미엄을 주어야 했다. 방어하지 않은 채

Fight / MMA

얼굴을 내미는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중간중간 죽보 없는 춤이나 과이한 동작을 취하는 것 역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카드. 그런 미끼를 던져 와이드맨이 스탠딩에 머물게끔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와이드맨은 타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미 1라운드부터 와이드맨의 펀치가 실바의 안면에 꽂혔고, 반면에 실바의 강력한 카운터 펀치는 좀처럼 적중하지 못했다. 실바는 와이드맨의 타격이 만만치 않음을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극도발' 모드를 유지한 것이 패인이었다.

3 AFTERMATH

죽음을 받아들이는 4단계

의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현대인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듣기도 한다. "6개월 시한부입니다"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X 같을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일반적 태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1단계 쇼크, 2단계 부정, 3단계 저항 그리고 4단계 순응.

실바라는 전설이 사망 위기에 몰렸다. 그 전설을 추종하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 대략 죽음을 앞둔 인간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1단계는 쇼크였고, 2단계는 부정이다. 즉 '투신' 앤더슨 실바의 패배를 부정하는 것. 어떤 방법이나고? "조작 경기였다!"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경기 직후 해외의 주요 격투기 포럼에서 조작설을 제기했고, 이는 상당한 이목을 끌었다. 앞서 소개한 실바의 이상한 태도와 도박판의 배당률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현 UFC 체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드물다. 첫째는 실바가 이기는 편이 흥행에 더 낫기 때문이다. 실바가 승리했을 때 존 존스, 조르주 생 피에르와의 슈퍼파이트, 로이 존스와 복싱 매치가 벌어질 수 있었고 그 경기의 흥행은 실로 대단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와이드맨이 이기도록 판을 짜야 했을까? 둘째는 UFC의 소유주인 퍼티타 형제의 상황 때문이다. 그들은 라스베이거스에 카지노 체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포커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이미 매우 간간한 정부의 감시망 아래 놓여 있는 그들이 굳이 사업 전체에 부담을 끼칠 수 있는 부도덕한 작전을 이 경기에 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는 추론이다. 셋째는 조작 경기를 한다고 쳐도 1라운드 서브미션 위기에서 나바나 힐룩에 걸렸으면 간단하고 안전했다. 그러나 레프트 훅도 세계 맞았고 이어진 파운딩에서는 실바의 머리가 정말 농구공 튀듯 했을 정도였다. 연기로 그렇게 맞을 수 있을까? UFC의 CEO 데이나 화이트는 향간의 조작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X 병신들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2011년 8월 9차 방어전에서 오카미 유산을 내내 가지고 놀다 7분 4초 만에 넘어뜨린 앤더슨 실바.

실바의 마음이 바뀌는 3단계

경기 직후, 실바는 UFC 아나운서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리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건: 크리스 와이드맨과 리매치하기를 원하니까?

실바: 아니오, 그가 새 챔피언입니다. 저는 이제 벨트를 위해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벌써 인생을 바꾸었고 오랫동안 타이틀을 방어해왔어요.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쉬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와이드맨이 새 챔피언입니다.

로건: 은퇴한다는 얘기입니까?

실바: 아니오, 저는 10경기 계약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벨트를 위해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쳤어요.

그렇지만 화이트는 실바-와이드맨 리매치를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UFC 역사상 최대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펴프질하면서, 며칠 후, 실바의 한 측근을 통해 "실바가 내년 2월경에 와이드맨과 리매치를 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화이트는 "실바-와이드맨 2차전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세계 최대의 LCD 스크린이 달려 있는 델러스 카우보이 스타디움에서 열 것"이라 말하며 판을 키웠다. 그 다음 날 기사에는 실바가 올해 말 리매치를 원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리고 7월 15일, 앤더슨 실바와 크리스 와이드맨 2차전이 성사되었다. 오는 12월 28일 UFC 168에서 두 선수는 리턴매치를 벌인다.

줄을 서시오

사실 그동안 '투신' 실바라는 봉인은 미들급이라는 체급의 성장 가능성을 잔인하게 짓눌렀다. 그 봉인이 뜯겨나가자 미들급 상위 랭커들의 야심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선봉에 선 인물은 비토 벨포트. 그는 지금 화이트에게 매일 수백 통의 폭풍 문자를 보내고, 트위터에서 열변을 토하며 자신의 매력을 있는 힘껏 발산하고 있다. 마크 무노즈도 실바가 리매치에 관심이 없다면 자신이 가까이 타이틀을 샀을 뻔했다고 자칭했고, 마이클 비스핑도 입이 귀에 걸렸다. 아마도 UFC 미들급의 상위 랭커들은 모두 와이드맨과 싸우고 싶을 것이다. 실바 이후의 후계 체제가 대두하는 분위기에서 차세대 일파가 되기 위해 다들 빨과 이빨을 날카롭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경쟁이 불만할 것이다. 게다가 만약 리매치에서도 실바가 진다면, 라이트 헤비급에서 존 존스의 압력에 밀린 전 챔피언급 로토 마치다나 라사드 에반스 그리고 이미 한 체급 내려가기로 한 제가드 무사시까지 모두 미들급에 합류하면서 피바람이 몰아칠 확률도 크다.

리매치에 대한 현지 도박판의 선택은?

라스베이거스는 여전히 리매치급의 승률을 7:3~6:4로 앤더슨 실바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도박사들만큼은 지난 경기의 패배를 앤더슨 실바의 단순한 실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



2011년 5월, 8차 방어전, 실바는 3분 25초 만에 비토 벨포트를 앞치기 일발로 쓰러뜨렸다.

실바의 KO패에 가려진 사소한 사실들

와이드맨

와이드맨은 이로서 10연승을 기록했다. 4KO 3서브미션 승이다. 겨우 10전짜리 신인이 투신을 이긴 것이다.



앤더슨 실바

앤더슨 실바는 MMA 38전 만에 처음으로 KO패했다. 그의 전적은 33승 5패 20KO 6서브미션이다. 5패 중에는 판정패가 한 번, 서브미션 패가 두 번, 반칙패가 한 번이었다.



대전료

실바는 기본 대전료 60만 달러를 받았고, 와이드맨은 대전료 2만 4,000달러에 승리 수당 2만 4,000달러 그리고 '녹아웃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5만 달러를 합해 9만 8,000달러를 챙겼다. 실바는 PPV 보너스까지 포함해 좀 더 많은 액수를 손에 쥘 것이다.



존 존스

존 존스는 앤더슨 실바와 벌일 슈퍼파이트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실바의 패배에 매우 실망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인터뷰에서는 "절대 실바처럼 경기 중에 손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와이드맨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며 꿈의 파괴자(Dream Crusher)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덜덜덜..



Shake her heart with cool desserts

뜨거운 태양 빛을 피해
여자 친구를 당신의 집으로
몰려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오빠가 집에서 맛있는 칵테일
만들어 줄게!” 특별한 도구도,
전기술도 필요 없다. MAXIM
이 알려주는 5가지 레시피만
활용하면, 모든 건 당신 뜻대로
될지니...

BY 손안나
MODEL 2012 MISS MAXIM TOP4 김수아

구두 스타일렛 애쉬

Soy Milk Highball

브라 캄블클라인 언더웨어

난이도: ★★★★★

준비: 두유 150cc, 위스키 50cc, 각얼음, 모나카

1. 두유 150cc, 위스키 50cc를 셰이커에 넣고 잘 흔들어 섞는다.
2. 1에 각얼음을 넣고, 모나카를 곁들여 먹는다.

VVIC Ice Dessert

난이도: ★★☆☆☆

준비: 설레임 아이스크림,
비비빅 아이스크림,
빙수 떡 20g,
후르츠 카테일 20g

1. 비빅을 냄비에 넣고 약불에서 녹인 뒤, 꺼내어 냉장고에서 식힌다.
2. 빙수 그릇에 설레임을 끝까지 짜낸다. 쪽쪽!
3. 아이스크림 위에 식힌 비비빅을 올리고 빙수 떡과 후르츠 카테일로 장식한다.

서초 룩시
برا 미싱 도로서
아이스크림 잔 커먼키친
냄비 스타우브

취향에 따라 참쌀 경단이나
독차 아이스크림을 곁들여
먹어도 맛있어요!



Melon Iced Tea Punch

난이도: ★★★★★

준비: 멜론 반 통, 따뜻한 실랑발 3~4큰술, 분말 아이스티 한 봉지

1. 멜론 속을 파내 한입 크기로 잘라낸다.
2. 실랑발에 분말 아이스티를 캐어 내고, 속을 파낸 멜론에 붓는다.
3. 1의 멜론 속과 각얼음을 속을 파낸 멜론에 담아낸다.

Flowerpot Parfait

난이도: ★★★★★

준비: 화분, 꽃, 빨대, 카스텔라 1개,
아이스크림 300mL, 오레오 쿠키 5개

1. 카스텔라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화분 안을 채운다.
2. 빵 위에 아이스크림을 차곡차곡 담는다.
3. 오레오 쿠키를 믹서로 갈아 아이스크림 위를 덮어준다.
4. 가운뎃대 빨대를 꽂고 꽃으로 장식하면 완성.

물빠짐 구멍으로
아이스크림이 셀 수 있으니 꼭
화분 받침을 마련하세요!



서초 록시
브라 칼라짚



Editor's Tip

스파클링 와인은 차게 마셔야
신맛이 덜 나고 상쾌한 맛이
도드라져요. 제일 맛있는 온도는
잔에 따를 때 7~8℃, 입속에
들어갈 때는 10℃랍니다. 정확한
온도를 모르겠다면, 얼음통에
와인병을 30분 정도 담가주세요.
그때가 딱 적당한 온도예요!

난이도: ★★★★★

준비: 레드 스파클링 와인, 환타, 체리, 레몬 즙

1. 레드 와인과 환타를 1:1의 비율로 혼합한다.
2. 장미 꽃잎을 띄우고 30분가량 숙성시킨다.
3. 레몬 즙을 첨가하고 체리로 장식한다.



Rose Wine Cocktail

PHOTOGRAPH YUD HAIR&MAKEUP 장혜민 FILM 김상수 ASSISTANT 박정욱 이효진 LAYOUT 서윤정
COOPERATION 북시(02-546-7764) 미싱 드로써(1544-6101) 스타우브(02-2192-9643) 스텔렉 예씨(02-3443-1703) 칼라포인트(1544-6101) 커먼키친(070-4212-7650) 캘빈클라인 언더웨어(02-540-4723) 페르노리키 코리미(02-3466-5705)

레드 와인 제이콥스 크릭
칵테일 잔 커먼키친

전장의 로드러너 특수작전 차량

잘 뜯어 고친 레토나 하나 열 람보르기니 안 부럽다. 처한 환경에 따라 이런저런 개조를 거친 각 나라의 특수작전 차량은 마치 영화 속 슈퍼카들처럼 적진을 종횡무진한다. 이번 호에서는 전장의 적토마, 특수작전 차량의 역사와 대표적인 차량 네 가지를 꼽아 소개해 본다.



BY 군사전문가 김대영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세계 특수작전 차량의 발전사

1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탄생한 특수작전 차량

특수작전 차량을 최근에 개발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막이 대부분이던 북아프리카 전선, 1940년 이곳을 주무대로 창설된 영국 육군의 LRDG(Long Range Desert Group)는 사막을 넘나들며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찰을 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사막이란 드넓은 바다를 향해해야만 했던 LRDG 대원들에게 행군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결국 이들은 기동성 높은 차량을 이용한 작전에 관심을 기울인다. 부대원들은 당시 영국군의 군용 트럭을 본인들의 임무에 맞게 마개조(?)하기 시작했다. 차량에는 주변에서 긁어모은 온갖 무장을 장착했으며, 항법 장비와 무전기 그리고 작전 기간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적재했다.



사막에서의 기동성을 위해 탄생한 최초의 특수작전 차량

→ 일당백의 전사들로 적진 깊숙이 잠입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거나 적을 교란하는 부대를 특수부대라고 한다. 특수부대라 하면 흔히 공중 혹은 해상으로 침투하거나, 혹은 수백km의 거리를 행군하는 것을 상상하게 될 거다. 하지만 오늘날 특수부대는 이러한 방법 외에도 그들만의 유니크한 차량을 이용해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 차량은 영화 <매드 맥스>에 등장하는 차량처럼 독특한 튜닝을 거쳐, 일반 군용 차량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외관과 성능을 자랑한다.



영화 <매드맥스>의 주인공 포드 XB 펄콘

Military



그저 데자뷰
현상일 뿐일세.

지난 2월호 '세계의 특수부대' 편에 등장한 전설의 부대 SAS.

2 사막의 여우를 놀라게 한 LRDG

당시 일반 군인들의 눈에는 다소 과기스러운 차량이었지만, 병력이라고는 300여 명에 불과한 LRDG는 이들 차량을 가지고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을 상대로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즉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오늘날 전 세계 특수부대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SAS(Special Air Service)도 LRDG의 작전에 동참하게 된다. 1942년 7월에는 윌리스 지프를 개조한 새로운 차량이 등장했고, LRDG와 SAS는 이 차량을 사용해 독일군의 공군기지를 씩씩(?)하는 데 성공한다. 작전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작전에서는 독일 공군 전투기 30여 대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독일군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사막의 여우'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독일군 아프리카 군단의 에르빈 롬멜 장군은, 당시 LRDG가 북아프리카에 주둔한 영국군의 그 어떤 부대보다 독일군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3 특수작전 차량 도입에 소극적이던 미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특수작전 차량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SAS는 196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영국군의 군용 지프인 랜드로버를 개조한 특수작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용했다. 몇몇 차량은 사막에서 위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핑크색으로 도색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랜드로버 핑크 팬더라 부른다. 반면 미군은 영국군과 달리 특수작전 차량을 이용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미군은 영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헬기를 비롯한 각종 특수전 항공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걸프전과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전투를 거치며 미군 특수부대들은 특수작전 차량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차량을 개발해 아전에 배치한다.



오프로드 버그카를 개조한 미군의 특수작전 차량. 범퍼카 타는 기분이려나?

4 놀라운 전과를 기록한 미군의 특수작전 차량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할 당시, 미군 특수부대들은 험비를 개조한 특수작전 차량인 GMV(Ground Mobility Vehicle)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그린베레로 알려진 미 육군 특전단은 GMV를 이용해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이라크 서부 사막에 침투한 100여 명의 제5특전단 대원은 GMV에 탑승해 이라크 서부 사막을 누비며 이라크군의 공군기지를 점령했고 5만 5,000여

명의 인구가 사는 도시를 사실상 무혈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화력과 기동성을 겸비한 특수작전 차량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들은 특수작전 차량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우리 군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2012년 영국제 특수작전 차량 폭스 6대를 도입해 아랍에미리트의 아크 부대에서 운용 중이다.



사막에서의 효율적인 위장을 위해 귀여운 핑크로 도색한 '핑크 팬더'.

세계 각국의 특수작전 차량



1

랜드로버 울프 WMK(영국)

랜드로버사의 장수 모델인 디펜더는 오프로드 마니아와 험지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1996년 영국군은 디펜더XD 모델을 기반으로 신형 군용차량을 개발한다. 랜드로버 울프로 알려진 이 차량은 8,000여 대가 생산되어 영국군에 배치됐다. 이들 차량 가운데 일부는 무장 장착 키트 위믹(WMK)을 장착하고 특수작전 차량으로 사용 중이다. 랜드로버 울프 WMK는 차량 전복 시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차체에 롤바를 설치했으며, 운전석 뒤에 12.7mm 중기관총이나 40mm 고속유탄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다. 조수석에는 7.62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임무에 따라 대전차미사일이나 로켓포를 운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 미 육군 제75레인저연대는 디펜더 110 모델을 개조한 RSOV(Ranger Special Operations Vehicle) 특수작전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3

울프 LIV(독일)

'워빈 차'로 뜬 벤츠 G바겐을 개조한 특수작전 차량으로, 독일의 대표적 방위산업체인 라인메탈사가 개발했다. 2003년 21대를 제작해 독일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KSK가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육군의 일부 정찰 부대에도 배치되었다. 콤팩트한 크기와 험지 주파 능력이 좋은 벤츠 G바겐은 독일군이 운용 중인 대표적인 군용 차량이며, 미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미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인 델타포스에서도 특수작전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특수부대용 험비 GMV(미국)

미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험비를 개조한 특수작전 차량으로, 1997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998년에 시제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GMV는 6.5L 터보차저 디젤엔진을 탑재한 M113 험비를 바탕으로, 각종 무장과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차대를 2.5톤 사양으로 개조했다. 12.7mm 중기관총이나 40mm 고속유탄기관총으로 무장했고, 조수석과 후방에는 각각 7.62mm 기관총을 장착했으며, 연막탄발사기도 갖췄다. 특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GMV는 무려 10일 동안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의 특수작전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차폭이 넓어 일부 수송 헬기의 기내에 탑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4

페가수스 SOV(미국/영국)

크라이슬러사에서 나온 랭글러 언리미티드의 군용 모델인 J8을 개조한 특수작전 차량이다. 2008년 등장한 J8은 오리지널 지프의 혈통을 이은 군용차량으로, 각종 정부와 군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2도어 픽업 버전 또는 4도어 다목적 차량으로 생산하는 J8은 험지 주파 능력과 적재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체 프레임에 보강했고, 2.8L 4기통 터보 디젤엔진을 장착해 최대 158마력의 최고 출력을 자랑한다. 특히 작은 크기 덕분에 대표적 수송 헬기인 CH-47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실을 초월한 슈퍼카들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텀블러

최고 속도 350km/h

전면 2개, 후방부 한 쌍씩 2개의 총 6개 타이어나 육중한 장갑으로 벽과 차량을 마음껏 부수고 다니는 무적의 차량. 전면부에 로켓 런처와 기관총 등을 무장하고 있어 순식간에 적의 차량을 종이짜가리로 만들 수 있다.



<전격 Z 작전>의 키트

최고 속도 480km/h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 터보 부스트를 이용한 점프, 분자결합 물체로 둔기나 총알따위 씹어버리는 방탄 능력 등을 지닌 사기급 슈퍼카. 일단 주인과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킹 오브 슈퍼카가 아닐까.



<백 투더 퓨처>의 드로리안

최고 속도 220km/h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었던 타임머신 카. 동력원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데 시속 140km를 넘겨야만 타임 워프를 할 수 있다. 이래저래 목숨 걸고 타야 하는 슈퍼카.

슈퍼카
구경하러
가기!





KIRIN



복고 가수라고 놀리지 마라. 이게 바로 진정한 뉴 잭 스윙 간지다!

BY 손안나



당신의 1990년대는 어땠나? 가격표를 떼지 않은 힙합 바지를 입고 동네를 쓸고 다니던 패셔니스타? 브레이크 댄스를 어설프게 따라 추던 댄스 신동? 그것도 아니면 친구와 마이마이 이어폰을 나눠 끼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짱인지, 듀스가 짱인지 다투던 열혈 리스너? 어느덧 마이마이에서 구글 글래스로 음악을 듣게 된 시대. 그런 21세기에도 여전히 촌스러운 청재킷을 입고 곳곳이 뉴 잭 스윙(고고 계열의 뒤는 리듬 패턴을 접목한 힙합 음악)을 추구하는 청년이 있다. 기린. 이 남자의 뮤직비디오를 보노라면 너무나 진지해서 어느새 낄낄 웃음이 새어나온다.

앨범이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자연스레 듀스가 떠오른다.

이현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현도 솔로 앨범이 나왔다. 그때부터 청소년기를 이현도 음악을 들으며 보냈다. 듀스 음악도 리바이벌하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좋아하던 음악이 뉴 잭 스윙이라는 장르고 흑인음악에서 왔다는 걸 알았지.

로큰롤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일렉트로니카도 있는데 굳이 뉴 잭 스윙에 꽂힌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멋있잖아? 뉴 잭 스윙은 무드가 있다. 그게 좋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 '무드'란 게 대체 뭔가? 힙합 비트 위에 그루브한 리듬이 얹어지고 R&B의 화성이 쌓인다. 그래서 신이 나면서도 가벼움보다 깊이가 느껴진다.

어렸을 때부터 취향이 평범하지 않았군.
모든 사람들이 듀스, 지누션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김경호 음악을 들려줬다. 재미없어서 듣다가 이어폰을 뺐더니 그 친구가 "넌 어떻게 맨날 그런 것만 듣느냐"라며 엄청나게 화를 냈다. 음악적 취향 차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당신의 음악을 들으면 1990년대 추억이 저절로 떠오른다. 당시 기린은 어떤 어린이었나?



히위고 나우



Kirin's Discography

1 <넌 외로움은 싫어> 2011.11.29



2 <성스러운 크리스마스> 2011.12.06



3 <히위고 나우> 2011.12.14



4 <그대여 이제> 2011.12.21



5 <뉴잭스웜> 2012.08.01



6 <우주 리믹스> 2012.08.27



7 <인기가이 메가믹스> 2012.09.06



일단, 영화 <쥐라기 공원>을 좋아하던 아이였다. 극장에서 보고 공룡의 엄청난 스케일에 충격을 받았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경양식집도 기억난다. 동생과 나란히 포경수술을 한 날, 부모님이 경양식집에 데리고 갔다. 고기를 썰다가 마취가 풀려서 무지 아팠었는데... 그리고 대전 엑스포 한빛탑을 사랑했다. 지금도 가끔 그림으로 그려 본다.

자주 가던 경양식집이라니... 엄청 있어 보인다.

어렸을 때 꽤 살았군.

초등학교 댄 풍족한 편이었다. 학교에도 귀공자처럼 하고 다녔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무스로 머리 만져주고, 흰색 반스타킹 신기고 그랬다. 그러다가 1997년 IMF 경제 위기로 힘들어졌지. 뭐, 그때 다들 그랬지.





기린

본명: 이대희
 생년월일: 1985년 8월 22일
 직업: 음악인&미술인

매력 포인트:

충명하고 단단한 느낌
 좋아하는 아티스트:
 테드 라일리, 마크 볼슨,
 뉴 에디션
 친한 아티스트:
 자이언티, 45RPM

유튜브에서 '전자살롱 떡국 잔치'라는 공연 영상을 봤다. 춤을 상당히 대중대중 추천데? 듀스는 춤도 뽀짝하게 추지 않았나?

그 무대는 돈 얼마 안 내고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도 돈 얼마 안 받고 하는 공연이라 괜찮다.(웃음) 돈 얘기는 농담이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날이 있는 것 같다. 관객과 공감이 잘 맞는 날엔 또 엄청 열심히 한다고 그럴 땐 '아,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와서 될 해도 신나게 놀 준비가 돼 있구나! (웃음)'라고 생각한다. 농담이다.

다니던 미대도 졸업했겠다... 이제 본격적인 생계형 아티스트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관심을 줄 거면 돈으로 달라"라고 하던데?(MAXIM 6월호 참조)

다음 달쯤 2집 앨범이 나온다. 1집이 그냥 커피라면 2집은 티오피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시디를 사도 아깝지 않을 거란 얘기다. 데이트할 때 밥 한 끼만 먹어도 1만 원이 넘지 않나. 아... 근데 사실 시디 사달라고 굶심굶심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럼 대체 뭘 원하나?

언제나 돈보다는 관심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찾아주면 고마운 거지. 난 언제나 이 자리에서 내 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

UV, 형돈이와 대준이도 있고 리듬파워도 있고...

비슷한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들 중 기린의 음악이 가장 진지해 보인다.

뮤직비디오에서는 호뭇하게 볼 만한 장면을 연출해서 집어넣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웃기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는 않는다. 리듬파워와도 차이가 있지. 내가 듀스라면 리듬파워는 티보의 느낌이랄까?

'슈퍼컬러수퍼'라는 곳과는 대체 어떤 사이길래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다루는 건가?

거기서 내 게시물을 신고하는 거다. 외국인이 만든 공연 브랜드인데, 해외 인디 밴드들의 내한 공연을



기획하는 곳이다. 그곳의 투어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던 불편한 진실을 많이 알게 됐다. 이에 대해 항의하고 난리 쳐도 사과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인터넷에 까발리겠다"라고 했더니, 대표가 우리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냈다.

지난 일을 사과하던가?

아니, "I Know Everyone in the Global in the Business"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손해라는 거지. 너무 열 받아서 우리도 저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다. 그랬더니 그동안 슈퍼컬러수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나오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SNS에서 개네 욕을 하면 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 신고하는 거다. 사과는 안 하고 지를 욕할 때만 연락이 빠르다.(웃음) 웃긴 놈들이라니까?

또 어떤 점이 그렇게 화가 나던가?

거기 대표 이름이 선 말론인데, 난 선 워터멜론이라고 부른다. 그놈은 한국에 와도 한국어를 안 쓴다. 지금도 "내 관심을 몇 초라도 끈 한국 밴드는 여태껏 없었다"라는 말이나 지껄이면서 이태원에서 타고나 먹고 앉아 있겠지.

한국에 왔으면, 한국 말을 써야지!

오늘 흥대 앞의 한 쿠키 집에 갔는데, 매장에

'외국인들이 극찬한 맛'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 아니, 외국인들이 극찬해서 뭐 어찌라는 건가. 난 그렇게 진짜 싫다.

'선 워터멜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 음악 중에 구린 것도 많으니까 욕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입견을 품고 전체를 싸잡아선 안 되지. 우리가 타이 가요를 안 듣긴 하지만, 타이 가요 전체가 별로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타이틀 예로 들어서 좀 그렇지만...

트위터에서 '아임 피킹 김치맨'이라는 말을 남겼다. 흑인음악을 하는 김치맨으로서 양키맨에 비해 확실한 음악적 한계를 느끼나?

그렇다. 게다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박자 감각이 부족하게 태어났다. 이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잘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사실 그루브나 리듬감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걸 내 경우고, 한국인이라는 종의 한계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미 전 세계에 흑인음악을 하는 다양한 유색인종이 있잖아?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흑형으로 태어나고 싶지?

하지만 음치에 돼지 같은 흑형으로 태어나면 큰일이잖나. 다음 생에는 테드 라일리 같은 술 필 충만하고 리듬감 타고난 흑형으로!

기린이 추천하는 뉴 잭 스윙 국내 가요 3선



1 양준일의

'Dance with me, 아가씨'
"듀스가 뉴 잭 스윙을 한국 댄스와 접목했다면, 양준일 씨는 1990년대 초반 정통 뉴 잭 스윙을 들고 나왔다. 지금 들어도 엄청 신난다."



2 영턱스클럽의 '흠쳐보기'

"영턱스클럽 1집 수록곡. 1996년 당시 미국에서 뉴 잭 스윙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국내 가수 앨범에도 이런 풍의 곡이 한두 곡은 꼭 실렸다."



3 기린의 '지겨워'

"자이언티와 공동으로 작사·작곡한 곡으로, 내 노래 중에 굳이 한 곡을 꼽자면 이곡이 뉴 잭 스윙에 가장 정통하다."



기린 추천곡
김상하기



Party

@Puffins Bay: 2013. 07. 13. sat

*The

MAXIM SEXY MARINE Party*

지구 최후의 날 파티를 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신나진 않았을 걸? BY 김희성



반안트리 호텔 수영장 물에 발을 담고
삼페인을 마시던 작년 여름의 MAXIM
PARTY를 기억하고 있다면 올 여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다. 그뿐인가.
대전 해수욕장에서는 원더걸스, 손담비,
AKON도 보고 MISS MAXIM들에게
보디페인팅을 받는 호사도 누렸더라지.

올해는 청평에 위치한 호화 럭셔리 리조트인
마리나 클럽&리조트 퍼핀스베이를 통째로
빌려 놀기로 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그런데 파티 전날인 7월 12일, 올 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고 급기야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섹시 마린 비키니도 이미 사냈는데, 현대 자고 일어나니 마법처럼 비가 그쳤대! 태양이 작렬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놀기엔 좋았다. 가끔 비가 떨어지는 듯도 했지만 이미 물장난에 젖을대로 젖어버린 티라 빗방울인지 원지 옆에서 튀겨대는 풀장 물인지 원... 어차피 제대로 적시고 놀 생각이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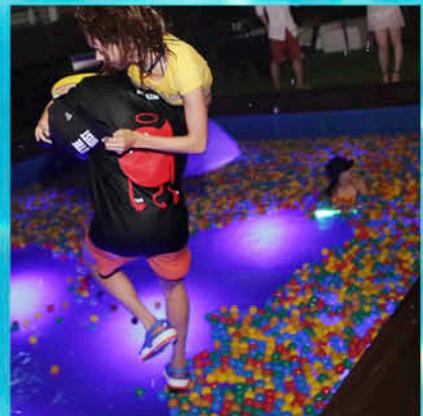


Party



청평으로 가는 길은 꽤나 고요하고 한적했다. 이런 곳에 호화 리조트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도로에 차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게 보였다. 직감으로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임을 알 수 있었다. 퍼핀스베이는 청평호를 낀 야외 풀장에 요트 선착장까지 있었다. 물론 요트도 있었다! 섹시 마린 파티가 열리기에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야외풀은 이미 비키니녀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다. 음악도 술도 비키니녀도 후수도

요트도 다 있었다. 거품이 가득한 풀장에선 선남선녀들이 서로의 몸에 거품을 바르고 미끄러지며 살을 부비고 있었다. <피라냐 3DD>에서나 봤던 출렁이는 광경이 에디터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피라냐 3DD>보다 더 끝내줬다. 이날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졌으니까. 밤이 되는 주변은 은통 캄캄한데 우리가 있는 이곳의 조명만 현란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세상이 멀망하고 우리들만 남아 최후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에 빠지고 빠뜨리기를 쉴 새 없이 반복했다. 놀다가 더우면 수영장 물에 풍덩 뛰어들면 그만이었다. 누군가 우리를 봤다면 진짜로 지구 최후의 날을 맞이한 사람들인 줄 알았을 거다. 🍷

공극의
출렁임
감상!




Party DJ of the Month #4



DJ ARIKAMA

장르: Deep House

*딥하우스: 시카고 하우스 기반의 1980년대 소울 및 재즈-펑크와 디트로이트 테크노가 결합한 하우스 음악의 하위 장르. 재즈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며, 보컬과 가사를 중요시하는 게 특징이다.

DJ ARIKAMA



어느덧 이 생활도 10년 차라는 베테랑 디제이 아리카마를 만나 보자. BY 손한나



5월호
DJ KOO



6월호
SHUT DA MOUTH



7월호
MAZESTIK&SIONZ



8월호
ARIKAMA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다. 아리카마는 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만든 합성어다. 아리는 '아리아'에서 따왔고 카마는 힌두어로 쾌락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음악의 신(樂神)이라는 뜻이지.

디제이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항상 미친 듯이 열심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디제이를 시작하면서 이슈가 되고 여기저기 이름을 알리면 나태해지고 자만하게 된다. 그게 보통 3년 차쯤에 온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 철이 없었다. 디제이는 취미지 정말 내 직업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5년쯤 지나고 뒤돌아보니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때부터 다른 건 집어치우고 목숨 걸고 디제이만 하고 있다.

목숨 걸고 한다니 대체 얼마나 연습하길래?

매일 2시간씩은 꼭 연습한다. 사람들은 디제이라고 하면 평일엔 놀고 주말에 한두 시간 공연하고 환호나 받는 게 다인 줄 안다. 사실은 음악도 일일이 찾아들어야 하고, 개인 작업도 꾸준히 해야 하고,

무대에도 서고, 가끔은 MAXIM과 이런 인터뷰도 해야 하고 아무튼, 보이는 것보다 훨씬 바쁜 직업이다.

디제이의 필수 조건 세 가지를 꼽아 본다면?

열정, 상상함 그리고 센스. 특히 시각, 청각적인 면에서 센스가 있어야 한다.

술 마시고 무대에 오르기도 하나?

상식적으로 프로 가수나 연주자가 술에 찼어서 무대에 오르는 게 상상이 되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필요에 따라 한두 샷 마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면서 무대에서의 여흥을 즐기는 편이다.

모델을 할 뻔한 경험도 있다면서? 클럽에선 어떻게 입는 게 간지나는 패션인지 알려 달라.

일단 투머치는 안 된다. 클럽은 기본적으로 댄스뮤직이 나오는 곳 아닌가. 그걸 즐기러 오는 곳이니깐 가벼우면서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복장이 좋겠지.

가벼우면서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복장이 도대체 뭔가?

사실 정해진 건 없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지 않나? (웃음)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우리 그냥 MAXIM에 STYLE 코너를 참고하자.

여성 독자들에게도 조언해 달라. 어떻게 입는 게 가장 예뻐 보일까?

섹시하게 입는 게 아무래도... 클럽에서 섹시한 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놀이 위한 준비를 마치고 왔다는 느낌도 들고, 친구랑 고기 먹다가 즉흥적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꽃단장하고 신나게 놀 마음으로 오는 친구가 더 좋다. "오늘 클럽에 가서 무슨 일을 저질러야지" 뭐 이런 뻥센 마음가지는 아니더라도 마인드 자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훨씬 더 즐겁게 놀 수 있거든.

트위터에서 스스로를 '원로 디제이'라고 한탄하던데... 클럽 문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즐길 수 있는 장소 하면 나이트클럽이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클럽이 더 익숙하다. 나이트클럽은 음악보다 즉석만남이 더 중요하지 않나. 클럽은 음악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이성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손목 잡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어필한다는 게 다르지. 그런데도 미디어에선 자극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클럽이 매우 퇴폐적인 장소인 것처럼 묘사하더라.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클럽이라고 

ARIKAMA



당하우스의 친구를 들려주마



DJ ARIKAMA가 추천하는 EDM 장르별 핫트랙 3

① Progressive House

Merk&Kremont, Paris&Simo의 'Tundra(Original Mix)'

Avicii, Hardwell, Fedde la grand 등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장르에서 세계 탑 랭킹 디제이들의 공연 셋 리스트와 팟캐스트에 반드시 포함되는 핫한 트랙.

② Deep House

Ben Pearce, Le Youth의 'Cool(Ben Pearce Remix)'

릴리즈 된지 얼마 안 된 최신곡으로, 요즘 같은 한여름에 흥겹게 듣고 즐기기에 좋은 트랙이다.

③ Drum&Bass

Drumsound&Bassline Smith, Fleur의 'One In A Million(Tony Anthem& Axl Ender Drumstep Remix)'

드럼&베이스에 덤스텝 사운드, 그리고 보컬이 적절히 융화된 나이스한 곡. 결코 마이너하지 않다.



음악 감상하기



Who's Next?



DJ KINGMCK

Coming in September

Governors Ball Music Festival

영화에서 본 광활한 뮤직 페스티벌의 전경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BY 김희성



페스티벌을 찾는 횡수가 많아질수록 해외 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환상은 커져만 갔다.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뉴욕에서 열리는 '거버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에 가는 길, 유난히 설레고 흥분됐던 건 그 환상 때문이었을 거다. 할렘가를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니 영화 <태이킹 우드스탁>에서 본 광활한 대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간이 부스에서 파는 핫도그를 사 먹으며 험란한 페스티벌 복장을 한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 내가 드디어 미국 뮤직 페스티벌에 왔구나!



일기예보에선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하늘이 맑았다. 하지만 전날 내린 비 때문인지 바닥이 엄청나게 질퍽거렸다. 그간의 페스티벌 경험을 토대로 흙탕물에 빠져도 상관없는 썬타를 여분으로 들고 갔지만, 발이 푹푹 빠져 한걸음도 떼기 힘든 진흙 바닥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에디터는 결국 썬타 따윈 과감히 포기하고 맨발로 페스티벌장을 돌아다니기로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말뚝이 진흙과 섞여 있는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베이루트 골드 워 키즈, 에이빗 브라더스 그리고 카니에 웨스트 등 국내에서는 절대 한번에 만날 수 없는 짙은 라인업 때문에 냄새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특히 얼마 전, 버릴 곡이 하나도 없는 새 앨범을 발표하며 '간예수'로 등극한 카니에 웨스트의 무대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에디터의 심장과 뇌는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어 있었다.



COOPERATION 사브컴퍼니 본필드 코리아 유행회사(02-3019-6020, www.miller.co.kr)



카니에 웨스트의 무대가 시작되는 9시가 다가오자 페스티벌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좀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카니에 웨스트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 드디어 카니에 웨스트의 등장. 한국에서는 좀체 보기 힘든 퀄리티의 무대 효과와 미발표 신곡을 감상하는 호사도 누릴 수 있었다. 카니에 웨스트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뉴욕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



Party

Miller
GENUINE DRAFT

Miller Music Tour in Seoul : 2013. 06. 28

술과 음악 그리고 훈남훈녀, 금요일 밤에 아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

영상은 더
뜨겁다!



비빔면은 왼손, 오른손 번갈아가며 비벼야 제맛이고, 음악과 춤은 술로 버무려야 제맛이다. 전 세계에서 '좀 논다' 하는 200명을 뉴욕에 모아놓고 장렬한 스케일의 뮤직 투어를 한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Miller Genuine Draft)가 이번에는 서울에서 그 판을 벌인다는 소식이 들렸다. 6월 28일 저녁 7시, 에디팅은 금요일을 활활 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각오로 강남구 논현동 '플래툰 쿤스트할레'로 출격했다.

플래툰 쿤스트할레는 이미 건물 전체가 밀러 로고로 래핑돼 있었다. '밀러 뮤직 투어 인 서울'은 티켓 판매가 아닌, 밀러에서 배포한 스크래칭 카드를 긁어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핀코드 이벤트와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VIP를 초대했다. 그래서인지 입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들떠 보였다. 쿤스트할레 안에 들어서니 노란 조명이 미러볼에 반사돼 마치 밀러병 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벽에 구멍이 뚫린 '바들왈(Bottle Wall)'에 빈병을 꽂으니 형형색색의 불빛이 들어왔다. 아직 술도 안 마셨는데 벌써 취한 기분이었다.



크라잉넛의 공연을 시작으로 파티가 시작되었다. 한 손에 밀러를 든 사람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때창의 정수를 보여주더니, 뒤이는 슈프림팀과 다이내믹 듀오의 무대에서는 힙합 소울에 취해 그루브를 타기 시작했다.



공연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곧바로 신나는 디제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플로어 한편에서는 '할렘 셰이크'를 추는 남녀들이 후끈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음악에 맞춰 할렘 셰이크를 추면 상품을 준다는 소리에 에디터도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흔들었다. 곰돌이 모양의 휴대용 스피커를 세 개나 받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건, 뜨거워진 플로어의 온도에 취하는 줄도 모르고 마신 밀러 탓이었겠지... 



MAXIM BUYER'S EDGE



존 바바토스, 플래티늄 한정판 에디션 출시

자신만의 독특한 고급 시그니처 향수를 원한다면 존 바바토스의 플래티늄 에디션을 추천한다. 500개 한정판으로 제작된 플래티늄 한정판 에디션은 오리엔탈 우디 계열의 남성적이며 럭셔리한 향이 인상적이다. 또한 기존의 바틀을 플래티늄 재질로 제작하여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단연컨대 플래티늄은 가장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남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일맞은 향수다. 가까운 백화점에 방문해 존 바바토스 플래티늄 에디션을 만나보자. 119,000원, (주)씨이오인터내셔널(02-3443-5050)



ZINI S-SOLUTION, 사랑의 해결사 출시

지니의 S-SOLUTION은 피부에 부드러운 약산성, 저자극 수용성 성분을 사용하여 민감한 부분은 물론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 로션이다. 부드러운 매끄러움과 촉촉한 보습효과로 스킨십의 감흥을 높여준다. 저점도 리퀴드 타입의 사라사라, 중점도 눈위시 타입의 앰솔루트 클린, 고점도 젤타입의 누루누루, 스크럽 타입의 익사이팅의 4가지 구성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용도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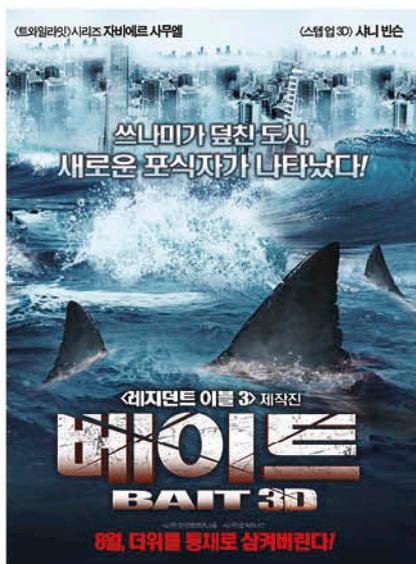
부르르닷컴(1661-7725, www.bururu.com)



볼스원, 새로운 모델로 이병헌 선정.

자동차 관리를 위한 토털 솔루션 기업 볼스원에서 새로운 모델로 이병헌을 선정하고 더욱 강력해진 제품으로 돌아왔다. 이병헌이 처음 광고하는 국내 1위의 연료시스템크리너 볼스원샷은 강력한 세정력으로 엔진 내부의 카본때를 깨끗하게 제거함으로써 오랫동안 새 차처럼 생생하게 유지시켜 주는 엔진 관리의 필수품. 새로워진 TV 광고와 더불어 30,000km 미만의 새 차에 최적화된 볼스원샷 New Car을 출시하고 기존의 볼스원샷 패키지도 새롭게 리뉴얼하였다. 신뢰의 아이콘 이병헌과 믿음의 볼스원샷이 만났으니 기대되는데?!

볼스원(www.bullson.com)



재난 공포 블록버스터 영화 <베이트> 커밍순!

8월 8일 무더위를 날릴 재난 공포 블록버스터 <베이트>가 국내 개봉한다. 쓰나미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의 대형마트에서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13명이 그들을 노리는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그리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미끼로 던져야 하는 상황. 재난 영화에 공포를 섞어 색다른 재미를 준다. 중국, 러시아에서 박스 오피스 1위의 기염을 토한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흥행 돌풍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비앤아이(02-3445-7357)



서울우유의 착즙 생과일 주스, 착한 과일 시리즈!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국산 과일을 그대로 갈아 만든 프리미엄 착즙 주스인 착한사과이야기와 착한감귤이야기 2종을 출시한다. 농축 과즙을 활용하지 않고 실제 국산 생과일을 통째로 갈아 만들어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것이 특징. 착한사과이야기는 2~3개의 사과를 통째로, 착한감귤이야기는 제주산 감귤 4~5개를 넣었다. 맛에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진정한 생과일 주스를 슈퍼마켓에서 지금 만나보자. 2,900원(사과), 2,700원(감귤), 서울우유협동조합(www.seoulmilk.co.kr)



UFC 페더급 세계 챔피언전! <UFC 163>

오는 8월 4일 브라질 HSBC 아레나에서 코리안 쏘비 정찬성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UFC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한다. 페더급이 개설된 이래 단 한번도 왕좌를 빼앗기지 않은 절대 강자 조제 알도와, 매경기마다 이슈를 일으킨 정찬성 선수가 펼칠 명경기에 대해 팬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정찬성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아시아인 최초 UFC 챔피언 등극과 UFC 4연승을 기록하게 된다. <UFC 163>은 8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액션전문채널 수퍼액션을 통해 HD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수퍼액션 (080-080-0780)



남성을 위한 그루밍 액스, 드디어 한국에 상륙!

세계 남성 그루밍 브랜드 1위 액스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한다. 이번에 선보일 액스의 딥 스페이스 라인인 액스 딥 스페이스 바디 스프레이는 시원한 향으로 깔끔한 남자의 모습을 강조한다. 함께 출시될 액스 딥 스페이스 칩 아웃 샤워젤은 멘솔과 같은 시원한 사용감과 향이 특징이며 쉽게 헹구어져 사용이 간편하다. 액스를 통해 강하고 쿨한 남자로 변신하자. 무더운 여름철에 필요한 아이템이다.

유니레버코리아(080-041-7100)



하이트진로 d, 5L 정보캔 출시

이제 집에서든 신선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이트진로의 맥주브랜드 d가 5L의 정보캔을 신규 출시했다. 밀폐형 CO2 시스템을 갖춰 개봉 후에도 30일간 신선함을 유지한다. 국내 최초 일체형 휴대용 용기로 편의성과 탄산 투입을 외부로 전환하는 기능이 좋다. 또한, 상단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운반이 편리하며 바캉스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330ml 병맥주 15개의 용량으로 부족함 없이 신선한 맥주를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 놀러 갈 때 맥주 페트병을 강강대며 옮길 필요가 없다. 하이트진로(www.hitejinro.com)



쁘띠첼, 워터젤리 아이스로 변신!

푹푹 찌는 여름, 시원하고 탱탱한 뿌티첼 워터젤리 아이스를 맛보자. CJ제일제당이 프리미엄 디저트 뿌티첼 워터젤리 아이스 오렌지맛과 포도 맛을 출시한다. 새콤달콤한 워터젤리를 시원한 얼음 컵에 담는 순간 젤리프라페로 변신! 젤리가 가진 특유의 탱탱한 식감과 시원한 얼음이 어우러져 입안을 즐겁게 한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도 풍부해 피로해지기 쉬운 여름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뿌티첼 워터젤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1,500원, CJ제일제당(www.cj.co.kr)



자외선으로 지친 피부, 뉴 스웨덴 에그팩으로 관리하자.

강렬한 태양과 높은 기온은 피부의 원만한 배출을 방해해 피부를 공격한다. 달걀 흰자팩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모공, 리프팅, 피지관리에 효과적이다. 보습과 피부진정에도 효과가 좋아 시뻘겋게 탄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아침에는 비누로 저녁에는 스페셜 팩으로 피부를 관리하면 효과는 두 배! 백옥 같은 피부로 주위의 사람들을 오징어로 만들어 버리는 건 시간문제! 이제 고품격 스킨케어브랜드 스웨덴 에그팩으로 지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자.

빅토리아코리아(02-2633-3504, www.evictoria.co.kr)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대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려보자. 어서 신청하러!

간접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전역 인증
게시판
바로 가기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헬다이버'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8월 20일까지)

전역자랑겔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최용빈 평생 30%

드디어 해상병 581기가 전역했다. 서북 도서 해역을 방어하는 2함대 고속정 233편대 수병들이야. 내가 전역하면 반드시 MAXIM에 전역 인증한다고 했지? 이게 뽐힐지는 모르겠지만 NLL 잘 지켜라. 너희 덕분에 내가 발 뺀고 잠잔다. 연평도, 대청도 등 최전방 고속정에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나중에 휴가 나오면 연락해라. 술 사줄게(술만). 이제 곧 태풍을 사준인데 몸 건강히 전역할 수 있도록! 전투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최강 233편대 파이팅!



서보형 평생 30%

입대하면서 제대를 기다렸는데, 진짜로 그날이 왔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내가 혼내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 너희들이 좋아서 그런 거였어. 너희랑 같이 군 생활을 해서 전역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고맙고, 너희도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몸 건강히 무사히 전역하길 바랄게. 꼭 전역해서 밖에서 보자!



김민수 평생 30%

애들이, 짧다면 짧은 군 생활(난 매우 길었다고 생각한다) 동안 뭐 얻어 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일을 건 많겠지만), 어짜졌나. 빨리 오고, 빨리 가자지. 뭐 늦게 온 게 잘못이지만... 형의 빈자리를 느끼면서 열심히 살기 바란다. 그럼 형은 이만 여자 친구 만들러 간다. 뽐!



이준섭 평생 30%

애들이, 잘 지내고 있느냐? 늦었지만 이렇게 올린다. 부산 사나이는 한다면 한다. 유창아, 전문 하시는 어찌 적성에 맞는 것 같으냐? 뽐이는 여전히치고 있겠지.^^ 당첨돼서 MAXIM 부대로 날아가면 행보관님한테 들키지 마라. 행보관님이 MAXIM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혼자 본다.ㅋㅋ 힘든 군 생활 나 먼저 끝났지만 너희도 곧 끝날 것 같지? 너희도 불철주야 뽐이 치거라!!



윤석호 평생 30%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수송부에서 작업하느라 힘들지? 이제 얼마 후면 유격 시즌이라 우울할 텐데 선물 하나 보낸다. 이거 보고 힘내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지내길 기원할게. ㅋㅋ P.S. 전역하기 전에 반드시 머리 길러서 나와라. 머리 뽐뽐 밀고 나왔더니 얼마 받아주는 곳이 없다. (---);



신대운 평생 30%

전역하고 내 나이 23. 하.. 진짜 전역하기 하루 전날 해도 돈도 많이 벌고, 면허증도 따고, 예쁜 여자 사귀겠다는 잡생각으로 세상이 내 것 같은데, 한 달 좀 지나도록 계속 놀다 보니 나 너희랑 같이 군 생활했을 때가 그림다. 미치도록 일해서 통장을 봤을 때 억 단위로 모여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지. 하얏튼 아직 많이 남은 군 생활, 이거 당첨되면 MAXIM 잘 보라. 맨날 해군 이발소에서 할 일 없다고 박스로 탁구대 만들어서 탁구 치지 말고, 이거 보면서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고 나와서 남은 학교 생활하며 공부라도 열심히 해.



노현동 평생 30%

"내가 죽는 순간이 윗등산 돼지 목에 태극기가 꽃히는 순간이다." 이 말만 해도 내가 누군지 알겠지? 박쥐 같은 놈들이야. 형은 전역하고 얼얼한 쉬고 일하고 있다. 어때? 부럽지? 너희 한 달 월급이 내 하루 일당이다. 그래서 주말마다 핫 플레이스로 가서 가진 돈을 탕진하고 있다. 내가 MAXIM 볼 때마다 옆에 와서 전역 자랑겔에 해병대 없는지 찾아보던 진용아, 내가 말했잖아. 전역하고 MAXIM 에 자랑질해준다고. 우리 아들 진용이. 자기가 지루해서 별명이 짜루라고... 내가 봤을 때는 네 존슨이 지루가 아니라 네 얼굴이 지루해 보인다. ㅋㅋ 8월에 휴가라고? 그때 되면 네 머리키락이 뒤꿈치에 닿겠다. 빨리 나와라. 형이 해운대랑 서면에 있는 핫 플레이스 데리고 가줄게. 그때 한번 미쳐봐라 웃통 까고. ㅋㅋ



우중근 평생 30%

대한민국 해병대 제1상륙사단 최강 킹콩 3연대 제2상륙기습대대 들고래 본부중대 통신소대 후임들이야. 이번엔 평양 훈련 갔다 오느라 수고했다. 밖에서 볼 피워서 밥도 해먹고, 국도 해먹고 산악 구보도 하고 보트 타고 평창에서 포항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MAXIM 을 선물해주마~ 두둥!! 조금 있으면 전투 수형한다고 보름 동안 숙영하면서 밖에만 있을 텐데, MAXIM이라도 꼭 챙겨 가져지.^^ 조금만 참아라. MAXIM 보면서 기다리던 전역하는 날 금방 온다. 수고해라.



어준호 평생 30%

사랑하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2상륙사단 문수산 호랑이 8연대 IBS기습특공2대대 후임들이 잘 있느냐? 선임이다. 내가 떠나고 부대가 잘 돌아가는지 참 궁금하구. 그렇다고 다시 가겠다는 건 아니고 ㅎㅎ 너희 군 생활 아직 한~참 남은 듯해 친히 선물을 하사하노라. 재미나고 유평지게 읽어라. 7, 8월에 유격이랑 IBS 한다던데... 살 많이 타겠구나. 흑인처럼.^^ 잘 지내고 군 생활 열심히 해라.



장석민 평생 30%

지용아, 내가 많이 혼내서 미안 ㅎㅎ 그런데 정말 항상 그랬지만 약은 없었다는 거 알아줘. 다 너를 위한 거(어른들의 거짓말?). 많이 남은 군 생활, MAXIM 보며 위안을 삼길^^ 무하하.



정영완 평생 30%

한여름 더위에 지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져 있을 너희의 존슨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물론 밖에도 똑같이 덥지만 내 존슨은 살아 있는 것 같다.ㅋㅋ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고 MAXIM 보면서 머리로 터득한 스킬을 전역하고 실전에서 몸으로 보여주는 너희가 되기 바란다. 고생해라. 난 MAXIM PARTY나 가보아겠다. ㅎㅎ



노진환 평생 30%

고생하는 후임들아 안 올 것 같은 전역일이 왔다. 너희도 조금 많이 참으면 전역할 날이 올 거야. 휴가 나오면 소주에 삼겹살 먹자. 수고해.

위 12명을 비롯한 총 215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청하고 참가유격 평생 30% VVIP가 되었다.

Unpicked

이달의 몸(못)쓸 사진

떨어진 빗방울에 젖어버린 뒤통보다 가까운 사진들



이달의 몸쓸 스태프 1

MISS MAXIM 이현지(p.44)



못 쓴 이유 얼굴과 다리가 없이 촬영장을 날아서 배회한다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다. 실은 김세형 인턴 에디터.



이달의 몸쓸 스태프 2

SUMMER DRINKS with MISS MAXIM 김수아(p.148)



못 쓴 이유 하필 수아씨 옆에 서있을 때 찍다니! 나 스튜디오 포토그래퍼한테 뭐 잘못된 거 있나?



이달의 몸쓸 스태프 3



STUFF 면도 용품 기사(p.82)

못 쓴 이유 어이쿠! 면도기 속에 미남이 있길래 남자 화보인 줄 알았잖아! 최하하!



이달의 몸쓸 스태프 4

MOTOR PEUGEOT 208 시승기(p.132)



못 쓴 이유 김희성 에디터의 가운데 손가락이 지긋이 올라가 있어서. 어라? 저 차 안에는 분명 내가 있었는데...?

Unpicked



이달의 몸뚱이 동료

MISS MAXIM 박무비(p.114)

못 쓴 이유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MISS MAXIM 박무비 뒤에서 정말 '깨알' 같이 등장한 MISS MAXIM 박소희(추정). 이것이 치열한 8강전의 전초전!!



이달의 못 쓴 설정 1



MUSIC 기린(p.158)

못 쓴 이유 기린씨, 촬영 콘셉트는 복고입니다. '벗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요.



이달의 무서운 합성

PARTY DJ ARIKAMA(p.166)

못 쓴 이유 막상 합성하니 호러 영화 포스터 같아서. 손이 너무 많아서 징그레!!



이달의 몸뚱이 짓가락질



HOW TO 고기 굽는 법(p.42)

못 쓴 이유 입에서 삼겹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달의 못 쓴 설정 2

ICON 장기하(p.94)

못 쓴 이유 지역 어린이 행사장에 초대 받은 트로트 가수 같아서.

패더급 세계 챔피언전



정찬성 VS 조제 알도

UFC[®] 163

8월 4일 (일) 오전 10시 30분 **SUPER ACTION**

MAXIM

KOREA

MUSIC&PLAY

밀러 뮤직 투어 IN SEOUL

10년차 DJ ARIKAMA

90년대를 사는 남자 KIRIN
(맥주 아니라고)

미드 <24> 대통령의 딸 맥심 화보

NAZNEEN CONTRACTOR

뭐 계약을 하러 온 건 아니더라고

2013
MISS MAXIM

TOP
8

BROKEN HERO

투신 실바, 6년의 신화 끝

Marshall

HOW TO FEED

외웠다가 꼭 써 먹어라

암컷의 미각 자극 여름 디지털 레시피
여자에게 끌어주면 안 되는 라면 4가지

MOTOR

LG 치어리더 김지예의

K3 BASEMENT

테스트 드라이브 대결

MINI vs. PEUGEOT

MILITARY: 전장의 특수작전 차량

WAR SUPER CARS

ICON

美男 장기하
의외로 꽤

지저분한 콧수염과 안경에
더벅머리를 기대한 우리 앞에
키 183센티미터의 멀끔하고
콧대 높은 훈남이 나타났다
“뭘~ 그렇게 놀래”

AUGUST 2013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